

우리역사의 비밀

솔본

2편

<아사달의 아사가 아침이라는 쪽바리 생각은 버려! >

아사달하면 으레 붙는 것이 아사 = 아침 + 달= (산)이라는 공식입니다.

내참! 그래서 아사달이 어느 종족의 말이라는 겁니까?

아사는 일본어 갖다 대고 달은 고구려어 갖다댁니다.

아사가 일본어로 아침을 뜻한다면 산을 뜻하는 '달'은 왜 일본어로 '야마'가 아닙니까?

차라리 아사달이 아니라 '아사야마'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죠.

또 아시(asi)가 일본어로 처음이라서 어찌구 저찌구,,

이제는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집어 치웁시다.

아스 (as) / 아사 (asa) 는 인류가 신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고안한 가장 최초의 성스러운 이름입니다.

수메르어 아스(as)는 '유일한, 하나의, 독특한,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훗날 인도유럽어족 어계통에서 에이스 (ace)로 자리를 잡습니다.

게다가 수메르어로 아스테 aste가 왕권, 신성한 도시를 뜻한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겠지요..

켈트어군에서 아스 As (대문자)는 신(god)을 의미합니다.

As는 단수형으로 신이고 그 복수형은 '아사'Asa입니다.

북유럽에서 부는 켈트족 유러피안 뿌리찾기 운동의 이름이 아사툴 (Asatur)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아사툴은 '신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최고신 오시리스의 원래 이름이 Asar이라는 것을 연구해 본 국사학자가 있을까요?

수메르어로 아사 (asa)가 꿈을 의미하는 이유와 최초의 신은 꿈이었다는 광범위한 동북아 신화들과

그리스의 최고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꿈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알기나 할까요?

아니, 아예 그리스에서 아마테라스 여신에게 바치는 약초가 '쑥'이라는 것과

아마테라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여자들이 꿈가면을 쓰고 추는 춤의 이름이 콤(kom)이라

는
문화사의 한 장만 들쳐봐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 이 콤(kom)이 이집트의 신성한 성전의 이름이고 이곳의 오시리스의 이름이 아사르 (asar)라는

사실...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스타라 'astare'라는 지명들이 한결같이 신이 머무는 곳을 뜻한다는 것은 아예 찾아 보지도 않았겠지요.

Asa가 신을 뜻하게 된 것은 원래 노스트라틱어군 (범 유라시아어)에서 asa가 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노스트라틱어는 지금으로 부터 약1만년~1만5년전의 언어로 추정되는 인도유럽어, 켈트어,
알타이어, 셈어의 공통 어군으로 추정되는 어군입니다.

이 노스트라틱어로 재구된 아사달 ASADAR은 신들을 붙잡고 있는 곳 (God-Holding)이라는
의미로 전 유라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뜻이 통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거룩한 영토, 신성한 곳이며 바로 神市가 아사달이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쪽바리들이나 이해하는 식으로 아사달을 해석하지 맙시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어라니 (2005-04-27 21:06:34)

그럼... 히타치-> 해돋이 미즈-> 물 사케(사키다)-> 술...오토상(일본)->암(만주)->
아버지(한국)...

...가에때->돌아 가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마루 (2005-04-27 22:33:10)

문외한이라 그런지, 처음부분은 그게..읽어치나 메치나 뭐 그런 거 같은데, 중간 이하 부분에 있는 것은 참 흥미롭군요. 다른 학자들이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라면 글쓰신 분이 직접 연구해서 좀 가르쳐주시죠.

솔본 (2005-04-27 22:49:34)

역사언어학자들에게는 한 동일어군내에서 어족이 갈라지는 시기를 추정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생활기초어 200어 단어중에서 1천년동안 약 20%씩 달라지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계산으로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는 지금으로 부터 약 5천년전에 분기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사달을 일본어에 의거해서 해석하지 말자는 것은 아사 Asa라는 단어가 먼 상고시대 부터

유라시아 전체에서 통용되었던 정신적 메타포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사의 면모는 이러한 유라시아의 연결고리에서 파악되어야 그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언제까지고 일본과 비교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어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된 언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세계 모든 어군과 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독특한 어족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대륙과 해양의 문화가 한반도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적어도 1만2천년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하게 동에서 서로 문명이 이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1만2천년전이란 그렇게 원시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철기나 문자가 없었다고 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니란 뜻이지요.

인터넷과 퍼스널 컴이 없었던 30년전을 지금의 시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불편하고 뒤떨어진 시대로 이해해서는 안되는이치와 같다고나 할까요...

분명한 것은 1만5천년~1만2천년시기에 동북아에 4대 문명의 모태가 되는 어떤 문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추적하고 있고요..

고려 (2005-04-28 00:34:59)

내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 '아사달'은 평양이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사달은 평양과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고려 (2005-04-28 00:36:40)

시작하는, 밖으로 나아가는, 퍼져나가는 땅이란 뜻으로, 고대의 수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려 (2005-04-28 00:37:52)

신시라는 말도 일리가 있군요.

김화식 (2005-04-28 01:44:17)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아닌가요?

그리스는 아르테미스?였던것 같습니다.

발음이 비슷하다보니 혼동하신듯 합니다.

장사수 (2005-04-28 02:14:35)

"곰과 여자(여신)와 쭉"은 동,서양의 신화에서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술본 (2005-04-28 03:16:27)

김화식님/

아르테미스가 맞습니다.
요즘 제 정신이 아니네요..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일본의 아마테라스..

<>

이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일까?

1. 인류가 처음으로 개발한 그릇은 빗살무늬 토기로서 한반도, 일본, 시베리아 전역에서 발굴된다.

다만 몽고이남의 중앙아시아나 중근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세계 최초의 토기는 일본 죠훈문화시기에 제작된 죠훈토기(빗살무늬토기)로 알려져 있다..

(B.C1만1천년전) 시베리아에서 발굴되는 토기는 연대상으로 이 죠훈토기와 다룬다. 물론 수메르와 이집트의 토기는 이보다 늦은 B.C 6천년경에 등장한다.

죠훈문화가 한반도에서 전파된 것은 맞는데 시베리아를 비롯 유럽과 중근동에 퍼진 토기의

주인공이 반드시 한반도인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2. 신석기 문화(말엽) 중에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이 바로 세석기 문화이다.

유리질의 흑요석이라는 화산암의 몸돌에서 떼내어 아주 얇고 예리하게 잘라서 바늘과 창날로 썼다.

웬만한 수술용 메스보다 날카롭고 정교하다.

==> 세계 고고학계는 이 세석기문화의 발원지로 아무르강 유역의 동북아시아를 지목한다.

그리고 세석기 문화는 1만2천년전을 기점으로 전세계에 대박을 터뜨리는 테크놀로지로

유행한다.

==> 동북아세석기 중에서 가장 발달한 형태의 종류는 장백산 흑요석 세석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세석기 문명을 주목하면서도 그 주인공으로 한국인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전세계에 퍼진 개의 조상은 동북아시아의 견종이다. 그리고 개는 1만5천년전에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육되었고 1만4천년~8천년 사이에 아메리카를 비롯 전세계에 퍼졌다 (2004. 4.사이언스지)

==> 개가 혼자 이동하나? 사람을 따라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1만4천년~8천년 사이에 동북아시아에서 전세계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는 이야기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4. 홍적세 마지막 빙하기였던 사르탄빙기 말엽, 즉 1만3천년~1만2천년전에 지구 극점의 이동으로 지구상

에는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었다. 1만4천년에 간빙기로 퇴각하던 북반구의 빙하가 다시 기세를 떨쳤고

동북아시아에의 숲과 초원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 중국 신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진서 장화의 박물지>

' 공공이 황제 자리를 놓고 전욱과 다투다가 그만 불주산에 부딪치자 하늘의 기둥이 무너지고

땅의 버리가 끊겼다. 화산이 불을 뿜고 엄청난 홍수가 몰아쳤다.

그리하여 일월성신이 서북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늘의 별자리가 지금처럼 되었다'

그렇다면 불주산은 어디인가? 박물지에 따르면 바로 북서쪽의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고

그 主山인 북극산의 부산(附山)이라고 했다.

==> 지금으로 부터 1만3천년과 1만2천년사이에 지축의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을 회상하는

기록이 아닐까? 그로인해 동북아의 문명주인공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9천년전 환국시대의 종말을 뜻했던 것이 아닐까?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

버드나무의 미스터리

버드나무...

고구려 주몽의 어머니, 물의 신 화백의 딸은 버드나무 처녀 유화(柳花)였다.
그리고 만주족의 태모신 '푸타마마'Futamama는 버드나무 여신이였다.

중생의 만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관음 (중국어 발음은 '환인'이다)은 한 손에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버드나무가지에 감로수를 묻혀 고통받는 중생에게 뿌린다.

자비를 뜻하는 버드나무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시를 남겼다.

'우리는 바빌론의 강가 언덕에서 울었다. 우리의 수금(거문고)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고서..'
유대인은 지금도 교회마루를 버드나무 가지로 치는 종교의식이 있다.

유럽 켈트족에게 버드나무는 모신 브리기트(brigit)여신의 상징이었고 브리기트는
훗날 영어 bright의 어원이 된다. 또한 브리기트는 불의 여신이였다.

버드나무가 성스러운 불을 상징해서 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한식날이되면 각 가정에서 아궁이의 불을 끄고 다음날 관청에
서
버드나무로 깎은 나무에 불을 붙혀 각 민가에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으며 각 가정은 이
버드나무로
아궁이에 새불을 붙혔다고 한다 (한국문화상징사전)

불의 나무 버드나무는 그리스에서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 전달해준 프로메테우스의 지팡이였
으며
프로메테우스는 이 버드나무로 관을 만들어 썼다.

고구려의 유화, 만주족의 모신 푸타마마, 켈트족의 태모신 브리기트 그리고 관음(중국어 발
음은 환인)
모두 버드나무가 상징이다.

버드나무에 그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연속되는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sumer (2005-07-10 11:58:04)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지팡이를 짚고 상을 치룹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버드나무 지팡이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버드나무는 강가에서 잘 자랍니다. 무릇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는 버드나무이고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족입니다만, 觀音의 현대 복경식 발음은 guan yin(꾸안 인)입니다.

이건구 (2006-09-18 14:31:16)

이 부근의 기사는 堯가 羲仲에게 暘谷(郁夷)…和仲에게는 昧谷(西土)을 주어 농사의 안배를 하고 있는바, 바로 暘谷은 集解注에, “尙書作「嵎夷」. 孔安國曰., 「東夷之地稱嵎夷. 日出於暘谷. 羲仲, 治東方之官」”(尙書는 「嵎夷」로 作하였다. 孔安國은, 「東夷之地를 嵎夷라 칭하는데. 日은 暘谷에서 나온다. 羲仲은 東方之官을 다스렸다.)이라 하였고, 索隱은 “舊本作「湯谷」, 今並依尙書字. 案., 淮南子曰., 「日出湯谷, 浴於咸池」, 則湯谷亦有他證明矣. 又下曰., 「昧谷」, 徐廣云「一作『柳』」, 柳亦日入處地名. 太史公博採經記而爲此史, 廣記異聞, 不必皆依尙書. 蓋郁夷亦地之別名也.”(舊本은 「湯谷」으로 作하였는데, 今 모두 尙書의 字에 의거한다. 살펴 보건대. 淮南子도 「日이 湯谷에서 나와, 咸池에서 浴한다」고 한즉, 湯谷이라 作한 또 다른 例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 下文에., 「昧谷」이라 하였는데, 徐廣은 「一作『柳』」라 하였는데, 柳, 또한 日入處地名이다. 太史公은 經과 記를 널리 채집하여 此史를 만들었으니, 다양한 記錄과 異聞을 반드시 모두 尙書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아마 郁夷 역시 地之別名일 것이다.)이라 하였고, 正義는 “郁音嵎. 陽或作「暘」. 禹貢青州云., 「嵎夷既略」. 案., 嵎夷, 青州也. 堯命羲仲理東方青州嵎夷之地, 日所出處, 名曰陽明之谷. 羲仲主東方之官, 若周禮春官卿.”(郁의 音은 嵎. 陽或作「暘」. 禹貢의 青州條에, 「嵎夷가 이미 정벌되었다」고 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嵎夷는 青州이다. 堯가 羲仲에게 東方青州嵎夷之地를 다스리도록 命하였는데, 日이 나오는 곳으로, 名을 陽明之谷이라 한다. 羲仲은 東方之官을 다스렸다는데, 周禮의 春官卿과 같다.)이라고 하였다.

‘青州’의 「青」은 물론 東을 나타내는 방위색.

또, 「昧谷(西土)」에 대해서는 集解는 “徐廣曰., 「一作『柳谷』」. 駟案., 孔安國曰., 「日入于谷而天下冥, 故曰昧谷. 此居治西方之官, 掌秋天之政也.”(徐廣은 「一作『柳谷』」이라 하였다. 裴駟가 생각건대., 孔安國은 「日이 谷에 들면 天下가 어두워 진다. 故로 昧谷이라 하였

다. 이 곳에 있으며 西方之官을 다스리고, 秋天之政을 관장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 곳의 방위색은 물론 ‘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色을 나타내는 표현을 「天下冥」이라
한 점에 주목해두기로 한다.
이상은 본인이 작업중인 원고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두서가 없지만, '수{water}=음(암, 흑)=류
(버들)'라는 관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박혁거세가 호박에서 나왔다고?

신라의 김수로,김알지 이 성스러운 인물들은 모두 황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호박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성씨도 '박'이랍니다.

어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스러운 인물이 박에서 나오다니요..
우리 전통에 박을 성물로 여기는 관습이 있나요?

박혁거세의 성씨 박은 유라시아와 연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어에서 신은 북'bok'입니다.

북유럽 켈트어군에서 태양의 여신 솔(sol)의 마차를 이끄는 말의 이름이 알박(Arbak)
입니다. 나중에 이 알박(Arbak)은 천마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태양신 그 자체로도 인식됩니
다.

스키타이 훈족의 언어에서 '벡 '(beg) / 베키(beki)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특히 말을 탄 군주를 뜻하지요.

우즈벡(uz-bek)은 오구즈(oguz)족의 으뜸 (bek)이라는 뜻이지요.
중국어 백(伯)이 만일을 뜻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중국어가 차용한 것이지요.

셈어 즉 페르시아어 계통에서 신은 박 'bagh'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bagh= 신 + dad = '선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바그다드란 신의 선물 (God gift)란 뜻인 것이지요.

중앙아시아에서 신을 뜻하는 '박'bagh은 그 변형어로서 베이 bey, 바이 bay와 같은
투르크어 파생어들이 있고 모두 으뜸을 뜻합니다.

=> 아마도 박달, 배달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드라비다어에서 신은 역시 바가 бага입니다.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기타 는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뜻이지요.

=> 악기 기타 (guitar)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 '바가'가 일본에서는 '바가야로'라는 경멸어로 쓰이는데
우리의 등신 (等神), 건달(乾達)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말해 박(bagh), 복(bok), 백(beg), 베키(beki), 바가(baga)는
제각기 유라시아에서 '신'(god), '으뜸'을 뜻하는 존칭어였던 것이지요.

박혁거세의 '박'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혁거세 신화는 어쩌면 bc 57년의 이야기가 아닌 아주 오랜 상고시대
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지요.

-술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장사수 (2005-05-01 17:28:30)

"居西干"이라는 칭호의 의미도 알 것 같습니다.

북유럽인은 왜 , 무엇 때문에 동이의 치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일전에 저는 동아시아의 근본 문명이 지금으로 부터 1만2천년~8천년사이에 전세계로 퍼져 났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 북구 유럽에서 동이의 전쟁신 치우와 똑같은 개념의 신이 존재하고 그 이름 역시 치우라는 것입니다.

Ziu (Tiw)

Norse Tyr , ancient Germanic god. Originally a highly revered sky god, he was later worshiped as a god of war and of athletic events. He was identified with the Roman war god Mars, and among Germanic peoples Mars' day became Tiw's day (Tuesday).

-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Copyright (c) 2005.

위의 내용은 컬럼비아 대백과 사전의 인용문입니다.

북유럽의 전쟁신 '치우(Ziu)는 티우 (tiw)로도 발음하는데 로마의 전쟁신 마르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우/티우의 이름으로 부터 화요일을 의미하는 Tuseday가 유래했다고 하는군요.

화요일은 불 즉 火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다 우연이라고 해버리면 속편하겠지만...

다음번엔 유럽인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유럽인의유전자적 원형은 중근동인과 아시안의 혼혈이라는 것입니다.

몽골 침입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에 유럽의 뿌리찾기 운동을 소개하면서 'Asatrur' 아사툼을 소개했었습니다.

신을 일컫는 켈트어의 고어가 아사 Asa라고 말씀드렸지요.

유럽의 어떤 학자가 이 '아사툼'에 대해 '아시아의 샤먼군주 통치의 흔적' (under the Asian Shaman imperial)이라는 주장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다시 찾으려니 기억이 안나네요 (미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으로 부터 1만2천년~8천년사이에 전세계 4대문명의 모체를 안은 한 동아시아의

종족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밝혀 보이겠습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光濟 (2005-04-30 13:16:18)

8천년 전 ~ 1만 2천년 전에 동아시아의 국가로 존재해야 한다면 구려(구이) 또는 고조선이
어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무한적용 (2005-04-30 18:00:09)

고조선이 어떻게 그때 있지요? 배달국이나 환국이라야 하지 않는지..

영 (2005-05-01 01:58:29)

유럽인류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볼 수 없나요? 보고싶네요..

<>

[re]북유럽인은 왜 , 무엇 때문에 동이의 치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백성들은 나라 이름을 기억 못해도 영웅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치우천왕의 이름이 북유럽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훈족의 아킬라와 몽골족의 '테무진'이 유럽인에게 공포의 대명사가 된 것도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기마군대를 앞세워 초원길을 통해 유럽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환국이나 배달국이 몽골제국처럼 거대한 유목제국이었다고 하더군요.

참..그리고보니 유라시아의 초원길은 신석기시대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상고시대 북방 민족이 따뜻한 옥토를 찾아 중원으로 남하했고 그곳의 토착민족을 추방하거나 지배할 때 무기뿐만 아니라 종교도 충분히 활용했어요. 그게 선도仙道라고 하는데..무축이나 주술 등 각종 제사의식이 필요한 그 시대의 샤머니즘과 결합하였다고 합니다. 샤머니즘 자체가 선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샤먼의 어원 즉 시원이 만주에서 기원했다는 반자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샤머니즘도 우리 민족이 시작하여 외국까지 전파했던 것 같아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우리민족은 태백산의 수림樹林을 광명神의 보금자리로 믿어 각 고을마다 수림을 길러 '수두' 또는 '소도'라고 불렀고, 소도의 우두머리를 단군이라 부르고, 그 단군들 중에 대단군(神수두)이 천제天帝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목민족의 천손신앙이 소도사상(샤머니즘)으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3대종교(기독교,불교,이슬람교)처럼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하여 고대 아시아인들의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잡았을 겁니다.

일본의 신도神道도 소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군국주의자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배제하고 종교를 악용하고 있어서 문제죠..

아래 것은 선사시대 유목민족이 사용한 초원길에 관한 내용이 있어 퍼온 겁니다.

오픈백과 : 동양과 서양의 교역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의 역사

평점 :

+ 84 (106명) 나도 평가하기 조회: 6193

daniel226 (2004-10-04 00:45) 신고하기 | 이의제기 (1)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의 순서로 그 사용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1) 초원길

먼저 초원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길은 동서양을잇는 이 세 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를 살펴보자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초원길은 스키타이인들의 활동무대였습니다. 이 스키타이인들은 초원길을 달리면서 그리스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된 청동기 문화를 다른 지방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도 끼여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청동기 문화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겁니다.

스키타이인의 뒤를 이어 초원길의 지배자가 된 민족은 흉노족 입니다. 이 '흉노'라는 이름은 중국 및 동양에서의 이름이고, 서양에서는 이들을 'Huns' 즉 '훈'족 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제국 말기시대에.. 훈족의 이동으로 밀려난 게르만 인들이 대거 로마 국경을 넘어 국내로 이주해왔다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바로 그 원인이 되는 '훈'족이 바로 흉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약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이 길을 통하여 서방으로 진출했으며 그 결과 유럽 동부에 살던 게르만 인들이 이들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밀려서부로 쫓겨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기원후 3세기부터 4세기 까지 초원길을 활용한 민족은 다섯민족이나 됩니다.

중국역사의 한페이지를 5호 16국 시대라는 이름으로 장식하고 있는 다섯 오랑캐(흉노, 선비, 저, 갈, 강) 가 바로 그들이지요. 이들은 중국의 혼란을 이용하여 중국본토에 저마다의 세력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그 때 이들이 돌아가면서 세운 나라가 총 16개 나라가 되기 때문에 5호 16국 시대라 명명된 것입니다. 다섯 오랑캐를 이어서 돌궐족과 위구르 족이 초원길을 내달립니다.

이 두 민족은 이길을 통하여 보금자리를 옮겨서 위구르는 중동지방에 '서하'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돌궐족은 후에 서양에서 '투르크'라 불리면서 공포의 존재로 남게되죠.^^;

흉노의 '훈' 과 마찬가지로 돌궐 의 서양식 이름이 '투르크' 랍니다. 이어서 약 9세기부터는

마자르 족이 이길을 활용합니다. 사실 마자르족은 중동지방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초원길을 이용하여 유럽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동유럽으로 밀려오자 온 유럽이 벌벌떨게 됩니다.(어째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는 민족들은 '모두' 공포의 대상이 되는걸까요;;ㅋ)이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지금의 '헝가리' 입니다.

또 셀주크 투르크도 이 길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켜서 결국 아랍세계의 패자가 됩니다. 셀주크 투르크에 이어서 이제 이 초원길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네요..ㅋ

초원길을 마음껏 '내달렸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민족...바로 몽고족입니다.

몽고는 서하와 서요, 금을 굴복시킴으로 동방을 정리하면서 바투로 하여금 서방을 정벌하게 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겁니다. 바투의 '유럽 원정!' 바로 그 무대가 되는 곳이 초원길 시대인 것이죠.

몽고의 대원정이 마쳐진 이후에는 이 초원길로 선교사들이 왕래를 합니다. 주로 크리스티교 선교사들이 이 길을 따라 동으로 가게 되지요. 이상으로 초원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사막길(비단길)

사막길 혹은 비단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되어 소아시아지방, 서아시아, 이란고원과 중앙아시아를 지나 파미르고원, 타림분지를 거쳐 중국의 장안까지 연결되는 길 이랍니다.

중앙 아시아로 뺨 뚫려 있는 이 교통로는 다른 어떤 길들 보다도 동서양의 문화교류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비단길의 시작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단길은 본래 아랍 사람들이 교통로로 사용하던 구간에 중국 전한시대에 반초가 개척한 장안까지의 길이 더해지고 이길이 서쪽으로 유럽까지 확장되어 완성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반초라는 신하가 이 비단길을 개척했으며 전한이 멸망한 후에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비단길 구간에 오랑캐들이 출몰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 하였으나 후한이 다시 성립되면서 감영(삼국지에 나오는 감영과는 동명이인 입니다.)에 의해 다시 개척되게 됩니다.

이시대에 비단길을 통해 전래된 유명한 문화는 바로 불교와 인도 쿠산 왕조의 간다라 미술을 들 수있는데요.. 불교는 중국에 전파되어 마침내는 한반도, 일본까지 거쳐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간다라 양식은 동쪽 끝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쳐서 석굴암의 불상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가 멸망한 후, 위.진.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혼란기를 맞아 비단길이 또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의외로 이때는 굳건하게 잘 보존 된답니다.

덕분에 수많은 구법승들이(기독교의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듯,)이 길을 따라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뱀다리를 하나 놓아보자면.. 삼국시대때 백제에 온 마라난타 스님도 이 구법승들 중에 하나였답니다.ㅋ

구법승들이 지나간 길에는 자신들이 살았던 지방의 문화.. 즉, 인도의 굽타 미술이 전파됩니다. 그 이후, 수나라를 이어 당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부터는 이 비단길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특히 이 교역로를 오가는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이 많이 다녀야 돈을 버니까.) 길을 따라 절도사를 배치해 치안을 유지하였답니다.

특히 당나라 영토 서부에 복속되어 있는 비단길 지방에는 안서도호부를 두어 그 지방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길이 안정되니까 상인의 왕래도 잦아지고 당연히 구법승도 더 활발하게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단길이 차차 안정되어 자리를 잡자 당나라는 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잘나가던 때에 당나라 남쪽에 자리잡은 토번(지금의 티벳)과 아랍의 사라센 제국이 당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눠먹으려고 손을잡고 당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국경에 자주 출몰하여 약탈을 하는 식으로 당나라를 괴롭혔는데요.. 이렇게 하면 비단길을 통해 오던 상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따라서 상인들이 비단길 가기를 꺼려하게 되겠지요.

상인이 오지 않는 당나라는 더이상 이익을 보지 못할테고요. 이런 계산을하고 사라센 제국과 토번이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자 보다못한 당나라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 줄 요량으로 아예 대군을 일으켜 이들을 토벌하기위해 나서는데 이때 고구려 유민 출신 절도사인 고선지 장군이 군을 이끌게 됩니다.

고선지 장군의 휘하 장병들은 연전 연승을 하며 비단길과 주변 치안을 다시 확립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그만두지만 사람은 배가 부르면 다른 마음을 품는다던가요?

배부르게 된 당나라는 비단길의 이익금을 독점할 욕심을 품게됩니다. 결국 고구려 유민 출신 고선지 장군에게 서역을 정벌할 것을 명하여 전 비단길을 당나라 영토안에 넣으려는 욕

심을 밖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탈라스 전투에서 당군이 패함으로 당나라의 비단길 지배 야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비단길은 또다시 잠수를 타게 되는데요. 중국 본토의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이 그 이유입니다. 이후 송나라 시대에는 오랑캐의 공격 때문에 비단길 보다는 바닷길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몽고제국이 나타나서 서역원정을 할 때까지 비단길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3) 바닷길

자 이제 마지막 교역로인 바닷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바닷길은 유럽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쳐 홍해로 접어들던가 잠시 육로로 서아시아를 통과, 페르시아만으로 접어들게 되어 인도 남아시아 중국까지 연결되는 교역로입니다.

이중에 지중해 항로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페니키아, 카르타고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가 활용하던 항로입니다.

또한 중부와 동남아시아 해로는 기원전 1세기에 인도에서 개척하는데요, 아라비아해에서 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간 대항로입니다. 인도의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퍼지게 된 것도 이 길을 따라 이루어진 것 입니다.

기원후 8세기 부터는 이 길을 통한 아랍인의 활동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산품을 한 배 가득히 싣고 이길을 따라 중국에까지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아라비아 인들은 신라의 경주까지 와서 무역을 했답니다! 고분들에서 발견되는 유리공예품들은 모두 이들의 특산품이며, 이것이 아라비아인들이 신라까지 와서 무역을 해왔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의 조선기술을 생각해 볼 때 '목숨을 건 모험'이라고 밖에 생각하기 힘든 일이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중국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당나라 이전의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 바닷길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뺑 뚱린 비단길이라는 육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대외 무역에 신경을 쓰는 왕조들이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 대다수의 중국왕조는 혼란기에 자기 몸 하나 건실하는데 급급하여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이 바닷길의 유용함을 파악하고 '시박사' 라는 것을 설치하여 바닷길을 관리하게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해양수산부' 장관이랄까요..?ㅋ

당의 뒤를 이은 송나라는 영토상으로 이 바닷길에 아주 목숨을 걸게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조까지 활용해서 득을 봤던 비단길은 황폐해져서 더이상 사용하기 힘들어졌고 옆친데 덮친격으로 오랑캐들의 방해까지 더해져 더이상 비단길은 상인들이 안심하고 지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나라와 금나라의 침공으로 하북지방을 빼앗기면서 송나라는 비단길과 단절이 되고 맙니다. 결국 남송은 오랑캐들이 출몰하지 못하는 바닷길로 진출하게 됩니다. (오랑캐들은 말은 잘타지만 배는 잘 못탄다지요..ㅋ)

덕분에 이 남송시대엔 중국의 선박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늘게됩니다. 우선 대양에 나가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지고 많은 상품을 실을 수 있도록 선박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또한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도 바로 이시대에 중국에서 발명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명나라에 이르면 중국의 조선기술은 동양 제일이 아닌 세계최고가 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되다보니 명나라 황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오랑캐를 내몰고 '한'족의 나라를 부흥시킨 대 명국의 위대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 원정'을 떠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세계 만방에 대 명국의 이름이 퍼지고 운나라의 '어버이'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원정의 총대장은 정화 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세계사 시간에 '정화의 대 원정' 이라고 배운 것이 바로 이 원정에 대한 이야기이죠. '대 원정' 이라고 해서 서양식으로 병사를 이끌고 가서 창칼로 실력행사를 하여 자국 영토로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위대한' 문물을 전해주고 그나라의 '조공'을 받아서 다시 명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조공'도 중국사람 입장에서나 '조공'으로 생각했지 주는 쪽 입장에선 단순한 '선물' 이었겠죠?^^ㅋ

아무튼 이 정화의 원정단은 당시 세계 어느나라도 건조하지 못할 커다란 선박을 수십척이나 이끌고 아프리카 서안까지 다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원정'은 이 때 이후로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명 말기에서부터는 이 길을 따라 유럽사람들이 중국을 찾아와 교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역은 허울일 뿐 실제로는 중국을 한번 먹어보겠다는 야심이 깔린 계략이었죠.

이미 유럽인들은 이 길을 통해 아시아로 와서는 이동네 저동네 찾아다니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서글픈 일이지만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화도 이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썼습니다...^^

<박달>

<>

환인(桓仁)은 불교의 신 인드라가 아니다.

흔히 '환인석제'를 불교의 제석천으로 해석하면서 단군조선과 환단고기의 내용이 결국 불교적으로 윤색된 것이라는 주장이 학계에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 무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은 환인은 제석환인(帝釋桓因)의 약자로서 석가제바인제(釋迦提婆因提)·

석가인다라(釋迦因陀羅)·석가라인다라(釋迦羅因陀羅)·석가제환인다라(釋迦提桓因陀羅)·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석제(釋帝)·제석(帝釋)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불교의 신을 차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군신화의 환인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전승되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원후 3세기경의 불교전래에 이 환인을 꿰맞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사달, 단군, 배달 등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비한자적, 비불교적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왜 굳이 환인만을 불교적으로 차용하려 했을까요?

단군신화의 내용이 불교적으로 윤색될 바에야 차라리 보살들도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환인'은 불교전래 이전에 그 어떤 고유명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아주 오랜 상고시대부터 발음되어져 온 신성한 이름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과거 상고시대의 최고신은 여신이였다는 여러 제민족의 전승은 우리 환인파도 비교해서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렵과 농경의 최고신은 모두 큰 여신이였고 태모신이였습니다.
환인의 전승이 과거 청동기시대 이전이라면 아마도 환인은 여신의 속성이 현저했었을 것입니다.

태모신으로서 환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관음(觀音)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음의 중국어 발음은 'KHan-in'입니다. 환인이 아니라 '환인'에 가깝습니다.
한번 주변에 중국인이 있으면 테스트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 '관음'이 산스크리트어로 Avalokitsvara인데 도저히 '관세음보살'로는 음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음역이 아닌 의미역이라고 할까요..

대자대비.. 온갖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는 관음은 인도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많은 전설들이 이 관음에 부가되었지요. 우리의 경우 선도산성모설화는 관음의 일대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 링크1은 동아시아 전승의 태모신으로서 관음(huan yin)-
- 링크2는 중국 전승의 여신으로서의 관음 (kuan-yin)

이렇듯 관음사상이 동아시아에 적극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만주의 태모신 푸타마마, 그리고 중국의 서왕모, 그리고 우리의 선도산성모등과 같은 큰 여신숭배 전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큰 여신의 시원적 이름이 '환' 또는 '한'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알타이어의 특징상 이 '환/한'은 화니/ 하니, 화나/하나, 아니/ 아나,하누/아누,하노/아노 등으로 변형될 수 있고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스러운 어휘들의 원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가장 유력한 설명이 1만5천년전의 노스트라틱어(범유라시아 원형어)에서 wha, ha, hya등은 희다, 밝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는거죠)

이와 관련해서 관음의 상징이 흰옷 즉 백의를 입고 등장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요.

따라서 '환인'이 '환님 또는 한님'의 음사로서 桓因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인이 '하느님'의 동족어라는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이 환인은 수메르의 최고신 아누(anu)/안(an), 페르시아의 하누(hanu), 북유럽의 후온(huon)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김우석 (2005-04-30 13:56:38)

'환인'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불교식'으로 번역 한거라고 하던데;;;

술본 (2005-04-30 14:01:20)

김우석/

'불교식'으로 번역한 것과 '불교신'을 차용한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학계에 '불교식'이 아니라 '불교신'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환인'으로 음사 번역했다는 것은 그 배경 설명이 아직 없었지요.

김우석 (2005-05-22 17:30:04)

김종서씨가 쓴 '신시 당군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보십시오...

<>

러시아어와 독일어 번역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최근 우리 상고사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어로 된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1만2천년~8천년사이에 우리 겨레의 유라시아 진출에 대한
검토할 만한 가치를 가진 연구 논문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역사기록에 대해 고고학, 인류학, 비교언어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되어 있어 골치입니다.
함께 연구해 보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kalito7@empal.com-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솔본 (2005-04-30 14:30:36)

일례로 러시아어중에 철(쇠)를 Kim으로 발음하는 것같은데...
그 배경을 알 수가 없네요..

이 배경을 탐구해 보면 왜 우리가 김(金)씨를 금씨로 발음하지않는 지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형 (2005-05-01 10:58:06)

제가 러시아어를 일년정도 했지만 철을 kim 으로 발음하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철,쇠는 metal 이라고 발음됩니다.

<>

수메르어의 아사달, 곱=아사의 켜기문자

아사달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메르어 입니다.

ašte [CHAIR] ==> 아쉬테

1. throne => 면류관 ,왕권
2. seat, dwelling
3. shrine, chapel ==> 예배,제의
4. a unit of area ==> 일정한 지역 (지성소)

Akk. kussû "chair, stool, throne"; sukku "shrine, chapel"; šubtu "seat, dwelling".
[1992] P. Steinkeller and J.N. Postgate, LAT 90.

==> 아카디언 어(후기수메르어)로는 '쿠수'네요..



- 위 글자가 수메르어로 아쉬테입니다. 가운데 3개의 신을 뜻하는 곤' | '이 있지요?

=====



az [BEAR]

PIRIG×ZA: az

1. bear

Akk. asu.

See ETCSL: az=bear.

수메르어로 곱을 뜻하는 Az입니다. 발음은 As로 납니다.

아카디언어(후기 수메르)로는 아수/아사쵸.

수메르어 아스(as)에는 유일한, 뛰어난, 하나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아서왕(Arther)은 '곱'이라는 뜻으로 이 as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

기원전 3천년경, 이집트,수메르의 주체세력은 북방계 아시아인?

지금부터 1만2천년~8천년전 인류4대문명의 씨앗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개와 함께 세계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힌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톤입니다.(BC 1,800년) 전형적인 북방계 몽골로이드형이지요.
이집트의 다신교를 거부하고 오로지 태양신만을 유일한 신으로 여길 것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주도하다가 축출됩니다.

그의 탄생은 미스터리입니다. 아케나톤은 왜 갑자기 이집트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
했을까요? 특히 그는 왜 그렇게 태양신에 열광했던 것일까요?

이집트의 다른 파라오와 그의 왕비 조각입니다.이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인일까요?
구텐나루도 없는...저하고 너무 닮았네요.. 기원전 1800년이니까.. 몽고침입과는 관련이 없
는데..

이 인물은 수메르왕조의 지도자 구데아(gudea)입니다. (BC 3,000)
전형적인 아시안 몽골로이드죠. 아래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제사장의 인물상입니다.
다시말해 이집트나 수메르는 다민족 국가였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기원전 2천년경에 도대체 이러한 아시안 몽골로이드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들은 어떻게 지도자가 된 것일까요?

수메르의 한 제사장.. 전형적인 유러피안.. 위의 구데아와는 다른 인종..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

동아시아의 신석기~청동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현생인류로 불리워지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전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약 20만년 전입니다.

그로부터 인류의 기술적 문화적 발전은 지역적으로 이렇다할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만5천년전에 이르면 갑자기 새로운 변화들이 등장합니다.

소위 신석기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의 특징은 돌을 쪼개고 갈아서 아주 예리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석영질의 '몸돌'이라는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다녔는데 필요하면 이 돌을 비늘처럼 툭툭 떼어내서 뾰족한 찌르개나 예리한 날의 돌칼 또는 송곳 그리고 끌 따위를 만들어 썼던 것입니다.

몸돌은 그야말로 스위스제 군용칼 처럼 만능도구였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한 것은 다름아닌 몽골과 동아시아와 그리고 시베리아 동부지역이었습니다. 이른바 세석기 (microlith)문화는 몽고,한반도,극동시베리아, 일본을 다른 지역과 구분되게 하는 독특한 문화권으로 묶어 주는 것이지요. 이 극동아시아의 세석기는 너무나 예리하고 정교해서 이를 가지고 면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동아시아가 고도의 세석기를 발전시키고 있을 때 유럽과 다른 지역의 신석기는 그저 돌을 열심히 갈아서 쓰는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약 1만4천년전입니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의 또 다른 혁명은 소위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토기의 사용은 정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수렵 채취단계에서 정주단계로 이행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락과 부락이 연결되는 일정한 '사회적 공동체'의 출현에 결정적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 부족간 연맹체가 설립하려면 일정한 정주단계에 접어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가장 주목할 만한 토대가 극동아시아에서 마련되었던 것이지요.

다만 동아시아의 정주단계는 유럽이나 중근동처럼 농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로'가 주효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즉 유라시아의 정주문화가 '농촌'기반이었다면 동아시아의 그것은 '어촌'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아시아의 신석기 어촌이 훨씬 잉여생산물에 많았을 거라는 가정입니다. 그것은 유라시아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경인의 영양상태가 수렵채집시절보다 떨어졌다는 인류학계의 보고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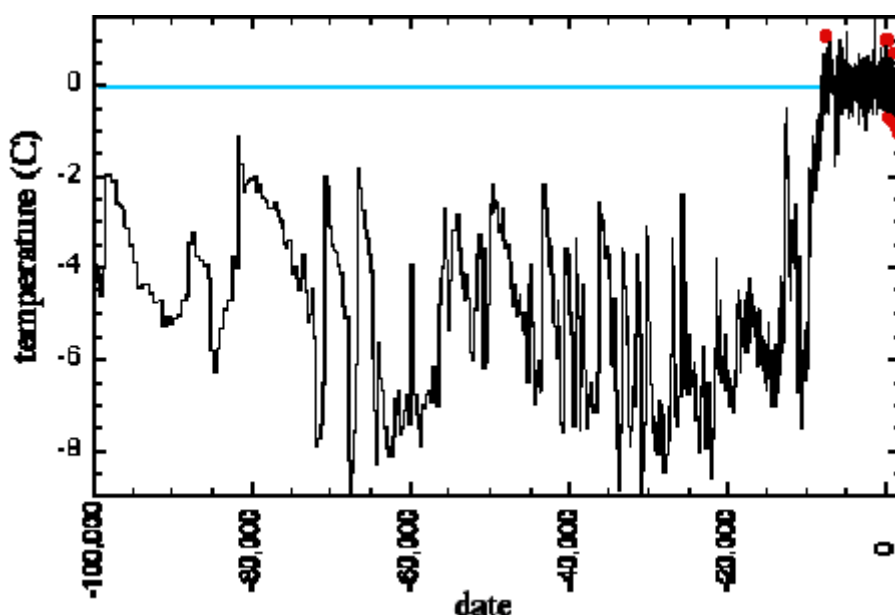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어로경제는 풍부한 단백질의 공급과 단위 노동당 수확면에서 유라시아의 농경을 앞질렀고 당연히 사회적 분화가 촉진되었을 거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1만2천년전에 다가서면 아무르강과 연해주부근에는 정착마을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빗살무늬토기들이 제작되는 것이지요.

이때에도 유럽과 소아시아에서는 원시적으로 돌을 열심히 갈아서 그릇으로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부터 1만년~8천년에 이르면 갑자기 전 유라시아에 토기와 세석기가 번져 나가게 됩니다. 마치 인터넷의 확산처럼 유행을 타는 것이지요.. 엄청난 확산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 대박이 났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1만5천년전에 빙하기가 막을내리며 지구의 기온이 급상승해서 지금과 같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1만3천년~1만2천년전에 이르면 갑자기 급강하하게 됩니다. 여름 기온은 평균 20도를 밑돌았고 극심한 한랭기가 몰아쳐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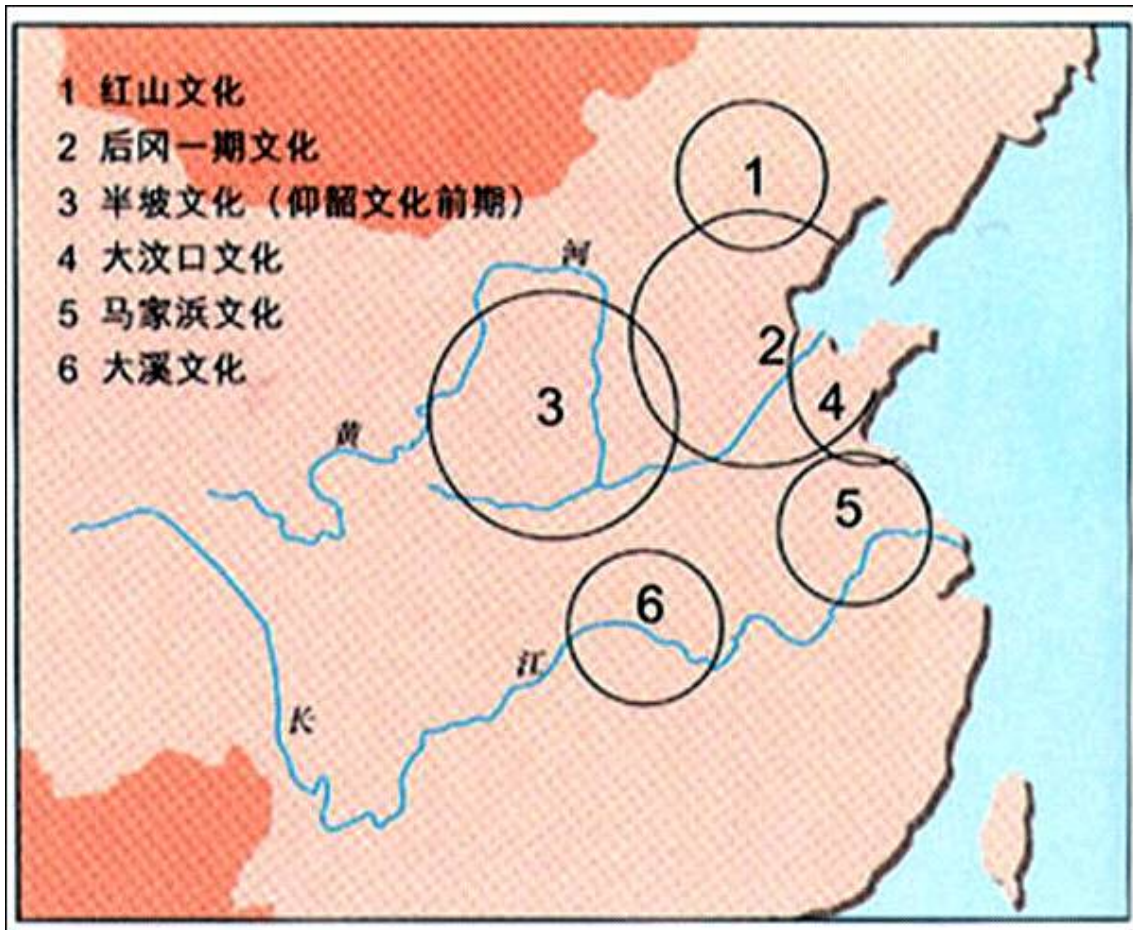


이시기에 다시 빙하가 몰려오고 강은 1년중 6개월 이상 얼어붙었으며 해수면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북방종족들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해 갔을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 지형은 황해와 한반도 사이에 좁은 해안선이 북에서 남으로 발해앞에 이르러 있었지요. 마치 황해와 한반도의 연결된 평야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이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추위를 피해 북방종족들은 이 해안선을 끼고 산동반도 이남까지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때가 1만2천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즉 지금의 산동반도 앞바다의 황해평야에는 기존의 거주집단과 북방에서 이주해온 집단이 서로 엉키어 그야말로 바글바글한 세계최대의 인구밀도를 기록하는 집단 정착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대략 1만2천년 즈음에는 고도 문명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풍부한 식량자원과 남북의 새로운 문화적 만남.. 그리고 엄청난 인구밀도는 고도로 분화된 사회구조와 기술 및 문화적 변동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아시아의 주요 문화유적[자료실험] /황해만을 끼고 있음을 주목하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만2천년이 끝나갈무렵 다시 지구의 기온이 급상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기온의 상승은 북반구의 빙하를 녹여내면서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급상승과 기상이변을 불러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수면은 이때 약 100m정도 상승했다고합니다. 1만2천년에서 8천년전까지 약 2천년에 걸쳐 황해평야에는 엄청난 홍수와 폭우등이 몰아쳐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 황해평야의 동이족은 서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흩어져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지금부터 6천년전 홍산문화의 고도로 발전된 토기문화의 기술적 전단계와 은나라의 초현대적인 청동기 기술의 전단계가 중국내에서 발굴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신석기와 청동기사이의 잃어버린 고리는 고고학계의 숙제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가 시베리아와 스키타이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가정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거꾸로 동아시아의 청동기 제조술이 그쪽으로 전래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판이지요..

이러한 가설은 인류의 4대문명의 발생이 어느날 갑자기 출현한 배경과

유럽과 소아시아의 문명이 동아시아와 여러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점..
그러나 그 기원에 있어서 동아시아가 원형적으로 제시되는 이유에 대해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

이 러시아단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Iron

1. n. 1) хим. железо (элемент) 2) черный металл, напр., железо, сталь, чугун; as hard as iron – твердый как сталь; перен. тж. суровый; жестокий – map of iron 3) железное изделие (часто в сложных словах: нап

온라인 영-러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철을 뜻하는 iron에 대한 러시아발음이 kim /him 아닌가요?

그 다음이 '젤렌쑈' (?)인가...

마지막 3번에는 칼/할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이찬형 (2005-05-04 07:22:27)

님^^ 여기서 말하는 хим은 химия -히미야-(화학) 의 준말로 사전 용어 입니다.

즉 철 이라는 단어앞에 хим 이라고 써놓은 것은 화학용어라는 뜻이죠....^^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밝히려는 님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건투를 빕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거나 메일 ultachan@nate.com 주시기 바랍니다.

<>

김(金)씨는 왜 금(金)씨가 아닐까? ==> 유러피언 Kim들의 수수께끼

여러분은 아마도 서양에 Kim이란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여배우 '김베신저'(Kim Basinger)가 아닐까 합니다.



[김 베신저, 또는 김 베이싱어라고 한다.L.A.컨피덴셜로 그녀는 아카데미 상을 받았지 아마?]

영미식 이름은 우리와 좀 다른데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으로 구별합니다.
퍼스트네임은 세레명이라 해서 성자나 귀족의 이름을 쓰고 라스트 네임은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김베신저의 Kim은 어떤 왕족이나 성자의 이름이고 Basinger는 집안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즉각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서구의 'Kim'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Kim'은 적어도 Jon(요한), peter(베드로), David (다윗)과 같이 서구인들이 세레명으로
쓰는 성자(聖者)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Kim'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 봅시다. 다음은 인터넷의 "Open Dictionary"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Kim

[English]

Literal translation from Old Norse as Son of God, or Son of Chief, the meanings
having same translation; both obviously male in form.

==> Kim은 고 북유럽의 언어로 신의 아들, 또는 족장의 아들을 뜻하며 남성형.

Proper noun :Kim (김이라 발음)

A male given name. => 남자의 성씨 (given name은 성씨임)

A female given name, a short form of Kimberly. (여성의 성씨.. 김벌리의 약자)

A surname very common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Dutch: Kim => 독일어 '킴'

Bulgarian: Ким => 불가리아 '킴'

Vietnamese: Kim (often used with a second first name) => 베트남에서도 킴.

[독일에서의 다른 의미]

Dutch

Noun

kim (plural: kimmen, diminutive: kimmetje) => 독일어에서는 복수형으로 킴멘.

horizon => 지평선을 뜻함

Synonyms

horizon

Proper noun

Kim

Kim (female given name) => 독일에서도 남녀의 성씨로..

<http://open-dictionary.com/Kim>

=====

이상으로 살펴보면 Kim이란 존재는 유럽과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유럽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에 알려진

어떤 신화적 존재에 대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왜 김(金)씨를 발음 그대로 금(金)으로 발음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시말해 Kim이 있었고 그것을 金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것이죠.

이러한 가설은 지역명에 있어서도 김해(金海)와 금마군(金馬郡)의 발음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해 Kim계열이 존재했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유럽에서 'Kim'이 누구였는지 좀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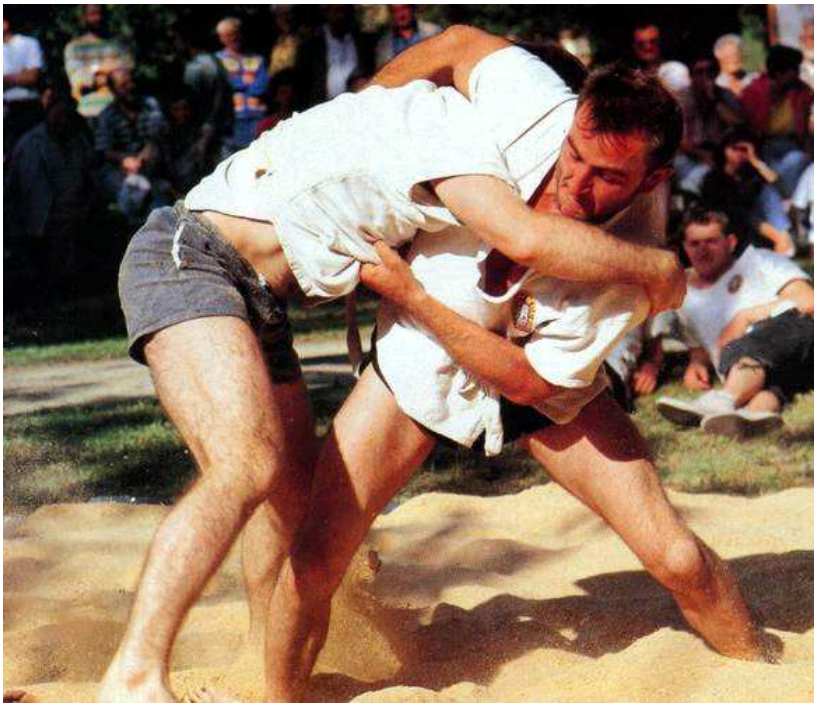
Kim이라는 이름이 Old Norse지역에서 유래했다면 그것은 바이킹과 켈트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영국에서는 아일랜드,웨일즈,브레튼,코니시지역이고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를 아우르는

지역이지요.



[코니시지역의 민속 씨름]



[영국 브렌톤지역의 씨름]

이들의 조상은 키메리언 khimerian이라 불리는 코카서스 스키타이족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 스키타이는 사카(saka), 중국에서는 색(塞)족이라 불리웠던 B.C3천년 이전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을 그 선조로 봅니다.

이들은 흑해연안에서 우랄동쪽까지 안드로노브문화공동체를 유지했던 청동기 문화의 주인공들로 알려져 있기도합니다. 문제는 이 색족 즉 사카족이 인도-이란어 계통의 종족이었느냐 아니면 중앙아시아 몽골리언의 혼혈이었느냐가 고고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많은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Kim이라는 존재를 탄생시킨 사카족이 유러피언의 원형이 된 인도 이란어족이라 보지만 그 반대 견해도 많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이란어족의 주요 유전자적 구성에서 인도북부 즉 사카족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종족에서 서쪽 보다는 중앙아시아나 동아시아인의 유전적 영향이 선사시대로 소급해 우세하다는 보고가 2003년 11월 European Journal of Human Genetics 지에 발표되기도 했었지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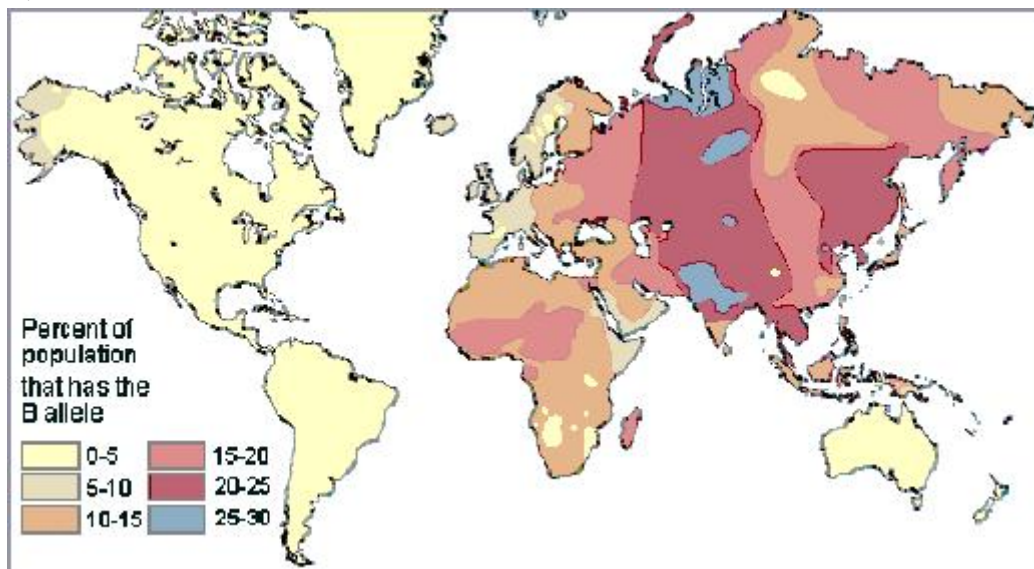
The Indian mtDNA gene pool appears to b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east Eurasian gene pool (including central, east and southeast Asian populations) than the west Eurasian one (including European and Caucasian populations).

=> 인도인의 DNA유전자 풀은 유러피언이나 코카서스서쪽보다 유라시아동쪽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를 포함)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Within India, northeastern tribes are quite distinct from other groups; they are more closely related to east Asians than to other Indians.

=> 인도내에서 북동그룹 종족은 다른 그룹과 분명히 다른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보다 더 동아시아인에 가까이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아래의 도표는 인간의 혈액형중에 B형의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유전적 형태가 우리 고조선과 고구려 지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B혈액형의 유전적 다양성출현정도: 중국의 지나족과 우리 동이족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근데 황하 유역의 파란집단은 누구일까?]

일전에 제가 밝혀낸 독일을 비롯 켈트문화권에서 전쟁신 치우Ziu/ Tiw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과 유로피언 들이 자신의 뿌리를 아사툴(Asatur : '신들을 섬김'이라는 뜻)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화들은 서에서 동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1만2천년에서 8천년에 이미 동에서 서로 확산된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 Kim을 영웅으로 신성시하는 유러피언의 문화는 켈트와 스키타이의 영향을 강하게받았다
- 켈트와 스키타이는 BC3천년경 인도-이란어를 쓰는 종족이 북방으로 진출하여 성립시켰다.
- 인도-이란어를 쓰는 인도 동북지역의 원류인 사카족의 유전적 형질은 서쪽인 코카서스나 이란과 같은 서방계보다는 중앙아시아나 동아시아의 유전적 형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선사시대에 이미 결정된 것이다.
- 따라서 유러피언의 Kim의 시조는 동아시아 우리 김씨와 관련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송준희 (2005-05-02 15:22:58)

솔본님

항상 유익한 좋은글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송준희 드림

道不遠人 (2005-05-02 16:28:4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솔본님의 의견과 같이 Kim이란 성에 관하여 민족적인 유래에도 지적호기심이 갑니다만 ,요새 출판된 서적중에 <대륙을 달려온 신라왕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995년 이란의 고고학자의 주장 이론과 더불어 현재 흑해 연안과 이란동부에서 스키타이인 이전에 존재했던 프리기아족,수메르족,스키타이문화,천산산맥지역동부,남부로 이동한 유라시아 아리안 그리고 바이칼호부근의 으로 부터 북부스텝지역을 통해 민족과 문화적인 이동이 있었고 이런 문화벨트가 고대 문명의 이동루트라는 이론이 전개 됩니다.

Kim씨의 연원을 찾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막리지 (2005-05-02 17:54:36)

솔본님이 말씀하신 김,금 그리고 KIM에 대해 읽어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몇해전 베트남에 갔을때에 베트남 간판중에 상당히 많은 가게중에서 바로 KIM 이라는 간판
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그런 가게들은 귀금속을 파는 곳이더군요. 다이아몬드를
가르키는지 잘 확인이 안되지만 구 소련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문득 건전 스포츠 마사지하는 곳에 베트남 아가씨가 있는 곳이 있던데 그곳
에 모처럼 가서 물어보고 무슨 뜻인지 베트남 말인지 아니면 러시아나 식민지 시대 말인지
알아보고 결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개인적으로 질문한가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올리신 글중에 단군,단등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솔본님은 단군과
왕검을 별개로 보시는 지요.

저는 요즘 단군사에 대해 읽고 있는데 혹시 단군과 왕검은 별도의 인물일거라는 생각이 들
더군요.

단군에 대한 솔본님의 견해는 읽었는데 왕검에 대한 해석은 어찌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왕검에 대한 견해를 올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최선엽 (2005-05-02 23:10:08)

그런데 dutch라면 독일이 아닌 네덜란드 아닌가요?

솔본 (2005-05-02 23:39:44)

대막리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제생각에는 단군은 이름 왕검이 직위가 아닌가 합니다.

흥논의 모돈선우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더 연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솔본 (2005-05-02 23:40:43)

최선엽/

dutch=> 네덜란드가 맞습니다. 제가 헛갈렸네요..

솔본 (2005-05-02 23:45:52)

도불달인/

고조선의 문화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온 것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그 원뿌리는 동에서 서로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이의 귀환이라고 할까요...

고조선의 단군은 서역에서 왔는가?

일부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군이 이른바 흑해연안의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등..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비롯 동북아시아의 청동 유물간에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략 BC 10~7세기 경에 인도-이란어족의 아리아인 그룹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근시안 적인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현상만 본 것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족이 솔로몬왕국을 끝으로 2천년이 넘게 전세계에 유랑하다가 자신들의 조국에 돌아온 것을 민족이 이동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 고고학계의 의문가운데 하나가 서기전 4천년이전에 어떻게 서시베리아 지역에 동북 아시안 그룹이 청동기의 싹을 틔워왔는가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바이리그 문화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신석기말기 문화에까지 보이는 빗살무늬토기와 어로도구는 분명히 동북아인의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빗살무늬토기는 동북아시아가 기원이고 그 발굴지역은 북위50도이상에서만 출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나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서시베리아 동북아시아인의 바이리그 공동체문화는 이후 기원전1800년~기원전1600년 경에 등장하는 남러시아의 안드로노보 문화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안드로노보문화공동체는 아파나시예보문화와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본격적인 대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동북아시아인의 영향을 담은 안드로노보문화는 카라수크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말해 동북아시아인은 서기전 4천년이전에 이미 유럽의 경계선까지 진출해 있었고 기원전 18세기에는 청동기문화의 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유라시아 동북아시아인들은 이후에 켈트문명과 스키타이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스키타이 훈족과 동북아의 흉노문화가 2천Km이상 떨어져 있었음에도 놀랄만큼 유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전 4천년이전에 이미 유라시아에 진출한 동북아시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서기전1만2천년~8천년사이에 전세계로 퍼진 동이계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기전 1만년경의 문화를 돌도끼나 들고 다니는 원시인문화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도구와 연장이 비록 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도구들이었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단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동북아인들이 개발한 흑요석 세석기칼은 정말 예리하고 정교했는데 일종의 단단한 유리로 만든 칼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돼지의 목을 자르는데 아마도 현대의 어떤 금속칼을 쓰는 것보다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원전 4천년이전에 서시베리아 바이리그문화공동체의 주역이었던 동북아시아인은 남하하면서 인도북부에 진출한 이란계통의 아리안족과 중앙아시아의 제민족과 혼혈되면서 청동기 문화를 꽃피우게 되고 다른 갈래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와 전설은 서로 뒤섞이고 때로는 경쟁과 타협을 거치며 아득한 기억의 고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중앙아시아의 천산산맥에 이를 즈음에 단군신화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밝힌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마늘이 바로 천산지역에서만 야생적으로 자생한다는 사실과 신화의 약초가 인간의 손에 자란 재배종일 수 없다는 가정에서 단군신화는 마늘을 제배하기 이전의 스토리였고 그것이 야생적으로 채취되는 곳은 천산유역이 유일하다는 미국의 식물학 정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단군신화는 서기전 10세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한반도에 왔다하더라도 그것은 1만년 동이겨레의 귀환인 것이지 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道不遠人 (2005-05-03 09:38:26)

<고깔을 쓴 단군>의 내용과 같은 이론의 전개이군요.실제적으로 논리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태백산 (2005-05-03 09:51:24)

신승오씨가 쓴 <환단제국사>,<동방제국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이론입니다.좀더 과격한 믿기힘들지만 한번 사서 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고려 (2005-05-03 11:37:48)

예수교의 단군지파 얘기가 생각나네.....

<>

동이겨레의 메소포타미아 진출- 자르모 공동체의 수수께끼-

1948년 이라크 북부 자그로스 산맥근처에서는 한 오래된 유적지가 발굴됩니다.
여러 형태의 곡식 알갱이와 돼지, 사슴, 개의 뼈가 나왔고 사슴뼈로 만들어진
돌낫이 나왔습니다.

뼈로 된 바늘과 숟가락의 출현은 이곳이 일정한 문명단계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심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유물은 사슴뼈로 자루를 만든 돌낫이었습니다.
거기에 흔적이 남은 유기물질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BC 6700년이란 수치가
나오자 전세계 고고학계는 커다란 흥분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름아닌 인류최초의 농경사회의 출현을 검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크 북부 자르모 유적지]

이 발굴을 주도했던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브레이드우드박사의 발굴편지는 너무나 유명
하여 지금도 인터넷에서 원문이 게재될 정도인 것이지요.

자르모유적지의 위치가 자그로스산맥을 경계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바로 인류최초의 문명인 수메르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자르모 유적지는
수메르문명의 전단계인 것으로 까지 추정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일대의 유적문화를 일컬어 '자르모공동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지요.

인류 최초의 농경사회...

인류 최초 문명의 모태...

어떤 이들은 이곳이 바로 성경이 말한 에덴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수의 작은 점토조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5천개가 넘는 이 점토상들은 곰,염소,돼지,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두상만을 조각한 조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학자들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금지된 신의 문명'의 저자 앤드류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이 괴상한 형상의 작은 입상들을 보면서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유토피아로 떠 올렸던 나의 자르모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 얇은 입술에 뾰족한 턱, 가늘고 긴 얼굴에 높은 광대뼈..짜진 타원형의 눈을 한 대머리.."
자르모인들은 왜 이런 사람같지 않은 얼굴을 만든 것일까?"

앤드류콜린스가 그의 책에 게재한 자르모의 작은 두상 조각상의 그림들은
그러나 제 눈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편두를 한 몽골리안 얼굴이었으니까요.. 하하하...

"마치 아시아인 같은"이라고 표현한 앤드류는 이 두상의 주인공에 대해
그들이 성서에 등장하는 네피림 주시자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성서에는 독사의 얼굴과 매서운 눈을 가진 외래의 주시자들이 기술과 천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서구 고고학계가 환호를 질렀던 자르모공동체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 유적에서 개의 뼈가 나왔다는 것과 돼지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흑요석의 세날석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보다 약 3천년 앞선시기에 아무르지역의 동북아시아문화와 일치하는 것
입니다.

처음으로 개와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입니다.
흑요석 세날석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도 동북아시아인입니다.
더구나 가장 이른 농경의 흔적으로 순화된 벼씨가 출토된 것은 1만5천년전의 한반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문화전파를 타고 전달된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아무르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신석기시대의 편두유골의 형태가
이라크 북부의 자모르에서 퉁구스인의 좁은 얼굴에 짜진눈..그리고 불거진 광대뼈를 한 자
르모인의
두상 조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9천년전에 말입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san (2005-05-04 01:05:00)

솔본님,

자르모유적에서 발견된 두상 조각상의 그림을 보고 싶은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본 (2005-05-04 03:10:10)

san/

스캔떠야 하는데...

제 스캐너가 고장이..ㅜㅜ

<>

동북아민족주의는 열등감의 발로?

북단대 어떤 교수가 그랬다는군요..

일본 민족주의는 고대 중국보다 후졌던 문화적 위상에 대한 반발 => 강제적 동화,정복심리
중국 민족주의는 서양 열강과 일본의 약탈에 대한 반발 => 문화적 포용? (은근슬쩍 가로채기)

한국 민족주의는 중일 침략에 대한 반발로 배타적.. => (이런 개새이들이..)

이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한중일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주관적 견해입니다.

일본 : 뭐든 자신들이 만든 것을 쓰라고 강요하거나 유도한다.

중국 : 남의 것도 뻔뻔하게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

한국 : 기껏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다 빼앗긴다.=> 그래서 늘 열받아 있다.

한국인 : 일단 인정해 주고 추켜주면 좀 손해보더라도 다 내주는 경향이 있다. 열받으면 끝장.

중국인 : 무조건 의심부터. 지독한 이기주의.. 이익앞에서는 수모도 참는다. 배신에는 반드시 보복.

일본인 :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나온다.. 하지만 이미 계산은 다 되어 있다. 속내를 모른다.

협상전략.

중국인에게는 참을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상대가 아무리 허름하고 누추해 보여도 무시하면

안된다. 일단 설득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풀어 나가기 쉽다. 한번 좋은 사례를 만들면 더 어려운일도

쉽게 나아갈 수 있다. 다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설득의 포인트는 그가 속한 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부분이다. 이것을 놓치면 협상은 지리멸렬하다.

일본인에게는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한번 좋았다고 다음 번도 쉽게 생각하면 낭패보기 쉽다.

대개의 경우 일본인은 가능한 것만 이야기한다.

설득의 포인트는 철저한 준비와 조사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다.

친해지는 것과 비지니스는 별개.

이상은 제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영 (2005-05-03 13:57:03)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제 경험상도 비슷합니다.

많이 겪어 보셨군요.. 중국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유럽보다 더 하더군요. 일본은 일반사람은 매우

친절해 보입니다. 속은 알 수 없지만요. 또한 정치에 무관심 하더군요..

<>

9세기에 실크로드를 장악한 '베세니오스'족은 누구인가?

투르크족의 역사가 모하메드 카쉬가리의 기록에 보면 9세기 중엽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는 베세니오스라는 이름의 한 부족이 등장해서 실크로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의 세력은 너무나 강고해서 주변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에 대항해 보지만 속속 무위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들의 이름은 여러가지로 불려졌습니다.

동로마 비잔티움에서는 팻치낙스(Patzinaks), 페체나치(pechenachi), 파체나세(Pachenase) 페쨍스 (Pezengs)였는데 라틴어로는 "비세누스"(bissenus)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그들을 밧지낙스(Badzinags)라고 불렀고 헝가리인들은 "베셰네"(Besehnye)

러시아 인들은 페체넥스(Pechenegs)라고 불렀지요.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엠바강과 우랄지역에서 활동했으며 그들이 9세기 후반경에는 돈과 카마지역에서 마자르를 쫓아내고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 밖에는...

이 베세니에그룹은 후에 카잘그룹과 오구즈(oguz)그룹이 연합하여 통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비잔티움의 황제 K.Porphirogenesos에 의하면 이 '베세니에'그룹이 비잔티움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카시사르는 이들이 오구즈의 한 갈래라고 기록하지만 사실 베세노이, 혹은 베세니에는

투르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구즈의 갈래라면 무엇때문에 오구즈연합이 카잘과

단결해서 그들에게 대항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이 어쩌면 당에 멸망한 백제의 유민들이 서쪽 감숙성을 통과하여 중앙아시아 초원 쪽으로

나아가게 아닌가 합니다. 만일 백제인들이 당에 귀화되기를 거부했다면 그들이 망명할 장소는 서쪽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백제가 중국을 벗어나게 되면 중국의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고 대신 모하메드 카쉬가리와 같은 당시의 투르크 역사가의 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통일신라 이후 지나에 복속하기를 거부했던 백제,고구려 망명집단들의

기록들이 투르크나 러시아의 옛사가 기록에 남아 있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국사서들만 끌어 안고 씨름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히려 눈을 돌려 이러한 투르크나 러시아, 유럽의 고 사서기록을 탐구해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날 지도 모릅니다.

마치 컴퓨터의 듀얼모니터 상에서 옆 모니터로 옮겨간 커서를 눈앞의 모니터에서

못찾는 것 같은 상황같은 것이죠.

-솔본-

In middle of the ninth century the Besenyos, who took the control of the trading route from Itil to Khorezm, dealt a hard blow to the Khazarian trade, and became their dangerous neighbors. The Khazars tried to ally with the Uses (Oguzes) to the east of them against Besenyos, but did not succeed.

Besenyos, named in various sources "Patzinaks" (Byzantium), Pechenachi, Pachenase, Pezengs,"Bissenus" (in Latin),"Badzinags" (in Armenian),"Beshenye" (in Hungarian), "Pechenegs" (In Russian), lived between the rivers Emba and Ural, and in the first half of the 9-th century were displaced by the allied forces of Khazars and Oguzes because of a threat to their trading routs. Crossing Itil, they settled instead of the Magyars, whom they displaced, in the vicinity of Don and Kama (860-880). It was a first part of a big resettlement movement.

From - Turkic world-

www.ozturkler.com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치우비 (2005-05-06 01:27:20)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힘내십시오

<>

호주 ABC방송의 특집 - 개는 15,000년전 동아시아의 고도 문명사회로부터 기원..

다음은 2002년 11월 호주 ABC방송의 사이언스쇼의 프로그램의 방송 스크립트입니다.

출연자 Pual Tacon은 호주 박물관 연구원이며 Savolainen Peter 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원의 유전자학 박사입니다. 리포터 조니카 뉴바이는 이쁜 기자고요.. 아마도..)

이들은 사육된 개의 기원을 추적하여 그것이 1만5천년전 동아시아에서 처음 사육되어졌고 그 종이 전세계에 퍼졌다는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그들의 연구논문은 2002년 사이언스지에

게제되었으며 전세계 고고학계와 인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요..

그것은 개의 사육이 인류문명의 기원과 농경사회 출현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쇼크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역사학,고고학,인류학자들있었지요..

Origin of Dogs

Saturday 23 November 2002

Program Transcript

Jonica Newby: What would you think if you opened a leading journal and there was a big apology from scientists. Oh, sorry, you know that whole out of Africa origin of the human race thing, we've made a bit of a mistake. You see we're actually out of Taiwan.

==> 조니카 뉴바이(ABC 리포터) :

만일 여러분께서 앞서가는 한 (과학)저널을 펼쳤을 때 거기에 과학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 실렸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 이거 참. 죄송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큰 실수를 했네요. 실제로 우리는 타이완에서 기원 했거든요. ㄸㄸ"

Well, that's kind of what happened this week, only it wasn't the origin of humans in question, it seems we've been completely wrong about the origin of the dog. Peter Savolainen heads of team of molecular biologists based in Sweden, who've come up with the new findings.

==>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이번 주에 발생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류의 기원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던 개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을 이룩한 스웨덴의 분자생물학 팀장 피터 사볼라이넨의 말을 들어 보시죠.

Peter Savolainen: We have looked at DNA samples from dog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at we find is there is much larger genetic variation in East Asia tha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this tells us that it's the possible geographic origin of the dog.

==> 피터 사볼라이넨:

우리는 전세계의 개로 부터 DNA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해 본 결과 동아시아의 견종이 다른 어떤 곳 보다가장 큰 유전자적 다양성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말해 동아시아지역이 개의 기원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Jonica Newby: And that's a real shock, because until now we've always been told the domestication of dogs happened in the west. And it's not an insignificant event we've got wrong here.

=> 조니카 뉴바이(앵커)

정말 충격적이군요.... 이제까지 우리는 개의 사육이 서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단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상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Paul Tacon: The moment we linked up with dog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rucial events in human history. By domesticating the dog we learnt that we could control the destiny of other animals and indeed plants and this led to agriculture, and farming, zoos and ultimately the state of the world today.

폴타콘 (스웨덴 과학자)

==> 우리가 개와 연결되었던 순간은 아마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개를 길들이면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이 식물에 이르면

농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농장이나 사육원이 개발되고 결국은 오늘날 전세계 국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Jonica Newby: Anthropologist and admitted dog lover, Paul Tacon. So how could we have missed the location of such an important event? Well, the best archaeological

evidence of early dog domestication comes from Israel and Germany, but it's very limited, and of course Asia, and particularly China haven't been that conducive to archaeology in the last 50 years. There were intriguing clues the conventional story could be wrong though: one scientist noted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dog's cheek bone was found only in one population of wolves, Chinese wolves.

조니카 뉴바이 (앵커)

==> 인류학자이며 입양된 개를 돌보는 폴 타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놓칠 수 있었을까요? 개의 사육에 대한 가장 훌륭한 고고학적 증거는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은 대단히 제한적이었고 아시아는 물론 중국에서도 50년간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보수적인 이론이 틀렸다는 다소 모호한 실마리가 있었는데 한 과학자가 주목한 개의 턱뼈

가 오로지 한 종의 늑대.. 다시말해 중국 늑대들에게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었지요.

An earlier attempt to use DNA to locate the dog's origin failed, according to Peter Savolainen, because it didn't have enough samples from the east. That's why he was determined this time to get the samples no one ever had.

==> 하지만 이른 시기의 DNA검사로 는 개의 기원을 밝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피터 사볼라이넨

에 의하면 그것은 동아시아로 부터 충분한 샘플이 수집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피터는 이제까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실험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이지요.

Peter Savolainen: We were taking DNA from hairs so we had to get in contact with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who were interested in dogs, and they would snatch a few hairs from the dog, put it in an envelope and send it to us by mail. It has been a slow process and without email it would have been much more difficult to perform this research.

==> 피터 사볼라이넨

우리는 개에 관심이 있는 다른 여러나라들의 사람들로 부터 개의 털을 얻어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사람들은 개의 털을 한 줌씩 뽑아 우리에게 우편봉투에 담아 보냈지요. 그것은 정말 더딘 작업이었습니다. 만일 이메일이 없었다면 시간이 더욱 걸렸겠지요.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보면 아시아 견종중에 우리나라 개는 정말 극소수만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견종만 따로 모아 놓고 실험해 보면 분명히 한국 토종개가 그 기원일 텐데..)

아메리카개의 기원도 똑같이 동아시아견종이 조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중국개는 아니지요..역자 주)

Jonica Newby: Through the magic of email Peter Savolainen's team was able to get samples from previously unsampled parts of the world – Siberia, Mongolia and most importantly all over China.

==> 리포터

이메일의 마법으로 사볼라이넨의 팀은 전세계에 이제껏 채집되지 못했던 지역의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베리아.몽골, 특히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For analysis, they split the samples into two groups, east and west, with the dividing line running from the Urals straight down through the Himalayas.

분석을 위해 그들은 동과서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히말라야를 관통하는 우랄산맥을 분기점으로 했던 것입니다.

Peter Savolainen: We find a lot of different DNA types and almost all of them are found in east Asia, whi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ere is only a subset of these types. So that tells us that the dog originated in east Asia and then the dog spread in smaller groups to other parts of the world.

==> 피터 사볼라이넨

우리는 전세계 각양각종의 개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동아시아개들이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말해 전세계 개들의 유전자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들은 바로 이 동아시아

아 견종 유전자 타입의 부분집합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사육된)개의 기원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전세계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란 사육된 개를 뜻합니다. 그것은 1만5천년전이고 개가 늑대에서 분리된 것은 10만년전입니다.

사육된 개와 야생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릅니다. -역자 주-

Jonica Newby: Can you tell us from your work where in Asia the dog was domesticated?

리포터 : 그렇다면 개의 사육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Peter Savolainen: No, we cannot say anything specific because we don't have the resolution necessary for that.

사볼라이넨 : 아뇨. 우리는 그것을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뭐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죠.

Jonica Newby: Sure, I mean, do you have a personal opinion about where you think it might be?

앵커 : 압니다만.. 혹시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도 있으신지?

Peter Savolainen: Well, I have an opinion that perhaps the dog originated somewhere in China, and that is only based on the earliest high cultures in east Asia were formed in parts of China.

==> 사볼라이넨

글쎄요.. 제 생각에는 개는 중국 어딘가에서 기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일찌기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베이스가 중국지역에 있었으니까요.

(어휴! 복장터져 죽겠네.. 1만5천년전 동아시아의 고도 문명이 어떻게 중국인가? 이 친구 환단고기

를 읽어 봤다면 생각이 확 달라지겠구만.. 답답합니다.. -역자주-)

Jonica Newby: That would be ironic if China proved to be the dog's birthplace, given it's one of the few places to have ever banned dogs for being too bourgeois.

==> 앵커

중국이 개의 기원지라는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은 개를 그야말로 '개'취급하는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약간 비꼬는 뉘앙스-역자주-)

Savolainen's team also used the DNA to work out when the dog was domesticated. Earlier, he was part of a group that suggest it was up to 100,000 years ago. His new study used two techniques to get two possible dates - 40,000 or 15,000 years ago. But Peter thinks the 15,000 year date is a better match for the archaeological record.

사볼라이넨팀은 개가 언제 사육되었나를 알기 위해 DNA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볼라이넨은 개사육 10만년전 설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리포터의 착각. 10만년전은 개가 늑대로 분리된 시점 -역자)

So overall, what do you think your findings have done to the conventional story of

dog domestication? Sounds to me like it's turned it on its head.

전체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발견이 개사육에 대한 기존 학설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치 머리와 꼬리가 바뀐 것 같은데요..

(문명의 흐름이 시방 동에서 서로 왔다는 이야기냐? 너 죽고 잡냐? 뭐 이런 암시가 있는 거죠 -역자주-)

Peter Savolainen: Well, I haven't thought about it - that it would be that revolutionary really. I'm just a modest scientist.

사볼라이네 : 글썄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사실 혁명적인 것입니다만.. 저는 단지 겸허한 과학자

일뿐입니다. (아! 정말 약았다.. 교묘히 빠져 나가는.. -역자주-)

Jonica Newby: But one man who's not too modest to comment on the study's importance is Dr Paul Tacon, anthropologist from the Australian Museum. And unlike most of his colleagu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he's not all that shocked by the news.

==>리포터

하지만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겸허하지 않게 코멘트를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박물관의 인류학자 폴 타쿤박사입니다. 그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다른 동료학자들과는

다르게 전혀 쇼크를 먹지 않습니다.

Paul Tacon: I wasn't surprised by this new research result which I believe is incredibly important. We haven't given east Asia enough credit for many developments in human history over the past tens of thousands of years. It's probably true that early humans in east Asia played as much of a role as early humans in Europe or parts of Africa or west Asia in developing who we are today, and certainly the domestication of the dog in east Asia may have been one of those crucial things that early humans in that area gave to the rest of us.

==> 폴 타쿤

저에게 이 연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수천년, 수만년전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동아시아의 인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는 서아시아에서 발전을 이룩한 것 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기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의 사육 기원이 동아시아

에서 일어 났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 나머지 우리들에게 물려준 중요한 유산들 중에 하나 인 것이죠.

Jonica Newby: When it comes to broader implications to the story of dog's domestication, Tacon says that's harder to pin down because the DNA still can't give us an accurate date.

==> 리포터

개의 사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타쿤은 그 시기에 대해 더욱 신중함을 기합니다. 유전자방식으로는 정확한 시기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Paul Tacon: The real question that remains is, exactly when did the domestication of the dog first take place. For instance, if the dog was domesticated 100 to 130,000 years ago, that's when certain modern human groups moved out of Africa and encountered Neanderthal in Europe and west Asia or Homo erectus in east Asia.

==> 폴 타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정확하게 언제 처음으로 개의 사육이 이루어 졌느냐 입니다. 예를들어 만일 개가 10만년~13만년전 사이에 사육이 시작되었다면 그 때는 아프리카를 떠난 현대인이 네이테르탈인이나 동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북경원인 -역자주)와 만났을 때 입니다.

If the dog was with them, that suggests that that may have given them a competitive edge. If the dog was domesticated 40 to 50,000 years ago, that was the period where there was cultural change that underpins who we are today. Again it suggests that the dog played a crucial role in that. But if say, the dog was domesticated 15,000 in east Asia, one of the important implications there is we have archaeological fossil evidence in Germany in the heart of Europe to about 14,000 years ago, and what that means is that people from China to Germany had trading networks and they could spread ideas such as domestication, artefacts and other things right across the globe.

만일 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것은 경쟁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개 주인이 누구냐는.. -역자주-)

만일 개가 4~5만년전에 기들여진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규정하는 당시의 문화변동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개가 그 문화변동에 중요한 룰을 했다는 것을 다시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개를 사육하면서 처음으로 인간과 다른 동물들간의 차이를 깨닫고 진정한

인간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역자주-)

하지만 만일 개가 1만5천년전에 동아시아에서 사육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운데 하나는 1만4천년

전의 독일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개의 화석입니다. 다시말해 그것은 이 시기에 중국과 독일지역

에 교역로가 있었고 사육이나 도구 또는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흠~흠.. 맘에 듭니다.. 다만 그것이 중국이 아니라니깐요.. 1만4천년전에 무슨 중국이 있어?-역자주-)

Jonica Newby: But while the research can't yet tell us exactly when and how dogs influenced human evolution, it does excitingly, finally explain why the most ancestral type of dog, the dingo, lives around here.

==> 리포터

하지만 연구자들은 아직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개가 인간의 진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개의 선조형에 속하는 덩고가 우리 주변(호주)에 있다는 것이죠.

(덩고라는 개는 호주에 분포하는 야생개입니다. 이 덩고의 조상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개라는

것이 최근 유전적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런데 이 덩고는 딱~ 우리 시골에 사는 누렁이입니다.

보장합니다. 황구 누렁이라니깐요..)

Paul Tacon: In a sense, I feel vindicated but what I'd like to see is a lot more serious research focussing on east Asia and I think we'll find many more surprises to come as well.

==> 폴 타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명예를 되찾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입니다. 그리되면 아마도 우리는 더욱 놀랄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Jonica Newby: And possibly sooner than we think. Because just as I was finishing up my talk with Peter Savolainen, I asked him about the dingo and he let slip something very interesting.

==> 리포터

생각보다 빠른 시일내에 그리 되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사볼라이넨과 대화를 막 끝냈는데
딩고에 관해 물었고 그는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슬쩍 흘렸죠.

Peter Savolainen: I don't want to say anything about the dingo really.

사볼라이넨 : 저는 딩고에 관해서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Jonica Newby: Why's that?

리포터 : 왜죠?

Peter Savolainen: Because we are just now looking at DNA from dingos and this will
be published in the near future. So I might come back with more hard facts on that.

=> 사볼라이넨

이제 막 딩고의 유전자를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조만간 알려지겠죠. 더 확실한 사실들을
갖고

다시 올 겁니다.

Jonica Newby: So you'll just leave us with a tease, will you?

리포터 : 지금 안달나게 만드려는 거죠?

Peter Savolainen: Yes.

사볼라이넨 : 네..

Jonica Newby: I for one can't wait. This is Jonica Newby for the Science Show.

리포터 :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까지 사이언스쇼에 조니카 뉴바이였습니다.,

Guests on this program:

Savolainen Peter

Senior researcher

Division of Molecular Biotechnology

KTH

Stockholm Sweden

Division of Molecular Biology, KTH
savo@biotech.kth.se

Paul Tacon
Division of Anthropology
Australian Museum
6 College Street
Sydney 2010
Tel: +61 (0)2 9320 6249
Fax: +61 (0)2 9320 6058
pault@austmus.gov.au

Jonica Newby
Science reporter
ABC Television & Radio National
newby.jonica@abc.net.au

Presenter: Robyn Williams
Producer: Polly Rickard

[역자 소감]

- 개의 사육은 인간이 처음으로 가축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를 사육한 그룹이 다른 돼지나,소도 길들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목축의 기원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동아시아라는 주장이 가능해 집니다.
- 제가 찾아본 사이언스지의 내용에서 한국의 견종은 몇마리 안됩니다. 총 650마리 가운데 중국개는 엄청 많더니...
- 어차피 개의 기원이 동아시아인 만큼 동아시아개들만 모아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그 기원지 가 밝혀질 것입니다.
-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개도 동아시아견종이 그 조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유전자는 한국과 일본인에게만 나타나는 X그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전자 인류학'의 저자 존 릴리스포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 지금으로 부터 1만5천년~8천년전 신석기혁명기에 동아시아에서 퍼져 나가 전세계 4대문명을

일으킨 주인공..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한기식 (2005-05-07 23:24:55)

계속파다 보면 동이쪽이 나올겁니다

<>

박(Bagg)씨 성의 조상을 찾으려는 유럽인들의 몸부림(?)

인터넷에서 'name of Bagg'이라고 치면 많은 유럽인들이 자기 이름이 박(bagg)인데 조상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애타게 찾는 글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주로 영국,독일을 비롯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사람들이죠.

일전에 유러피언 김씨(Kim)에 대해 썼습니다만 이번 유럽 박씨(Bagg)는 한마디로 장관이네요..

옛부터 가방(bag)을 팔아왔기에 그럴다느니 어찌느니..

그중에는 바게트 Bagett라는 귀족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자못 자랑스럽게 주장하다가 근데 왜 Bagg이 'little бага'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바게트와 바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며 다시 포기하는...

아마도 많은 영어학자들이 도전하는가 봅니다만 한결같이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박씨'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나오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의 bag,bog,beg,beki,bay,baga등은 지도자, 신을 의미한다고

밝혀드렸습니다. 특히 말을탄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 박을 성씨로 쓴 것은 우리 박혁거세와 켈트 북유럽인들 뿐입니다.

다시말해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는데 그게 호박같이 생겨서 박씨로 했다'는 것은 깜찍한 이야기지요..

박씨는 유라시아를 주름잡던 어떤 영웅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밑에 한 유럽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애처로운 박(Bagg)씨 조상찾기 노력을 한번 읽어 보시죠.

- <http://baggetthistory.com/origin.html>-

BAGGETT FAMILY HISTORICAL RECORDS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FAMILY

- Origin of the Name Baggett

BAGG/BAGGE/BAGGS/BACKS—Each of these variant spellings is a Baptismal name meaning, “the son of Bagg.” They occurred in early rolls and there seemed to be no reason to doubt their being a Scandinavian personal name (Dictionary of English and Welsh Surnames—Bardsley G.P.C. 1980). These are included here merely as an added reference. There is no indication of a direct relationship to Baggett or its variants.

– 박,박게,박스,등 이러한 이름의 변형은 '박(Bagg)의 아들'을 뜻하는 세례명이다.
그들은 일찌기 스칸디나비아인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룰을 한사람들이다. ()안은 생략.
하지만 그들이 바게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

(이하 생략합니다.)

The names described in one reference: Bagg/Bagge/Baggi—Bagg and Bagge are English and are metonymic for a bagger, i.e., “one who made and sold bags” (U-5, Smith). There is nothing directly on Baggi, but Bagby (English) is one who came from Baggi's homestead, in the North Riding of Yorkshire. A modern Old English variant is also Beag. Another reference to these is to note that they all represent a selection of Anglo-Saxon and Norse elements (B-2, Ewen).

Suffixes abound in use in regard to name formation when added to “root words” with intent of modifying the signification. The French diminutive suffixes are (“et”), (“ett”), (“ot”), and (“ott”). The (“et”) is a very common suffix, as is the (“ot”).

It is of course possible that the suffixes could have been added to Bagg as a “root word” but not to Baggi or Bagge, except for the possibility that Bagge as a variant could have in that sense been a variant of the root word Bag/Bagg, though inconclusive.

Moreover, some etymologists say that another meaning for Baggett/Baggott is that the names are English (back to a point), but meant: “Descendant of Little Baga, or Bacga, the fat one.” This is not intended to confuse, but again the name Bagg is cited as English with the root word for it being Bacga (Old English) for disputer (U-3, Rule).

It is also possible that Baggot is a diminutive of Bague, designating the man with the small golden ring (Family Names and Their Story, Baring-Gould 1910/1968 C.P.C.) (a different meaning generally not supported by others).

ET and OT—These are diminutive French suffixes and very common. One modern English surname found frequently in England and Ireland (though not of English origin) with this suffix is Bagot (from History of Surnames of the British Isles, C. L. Ewen, 1931; reprinted F.P.C., 1968).

Note also that British surnames being derived from words in many tongues, exhibit an unusual variety of suffixes, some of which may be traced to more than one sour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uffixes principally of the Anglo-Saxon, Norman-French, Gaelic, and Welsh languages.

BAGOT (BAGOD)-A family that was very important in the Pale (a district in eastern Ireland, around Dublin) from the thirteenth century. Bagotstown locates them in County Limerick and Castle Bagot in Dublin. A Baggot street is located there (Surnames of Ireland, by Edward Machlysaght, 1964/1980, I.A.P.) (Bibli. Map, Dublin).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고려 (2005-05-07 23:58:40)

참고로, 일부 박씨중에는 일반 한국인들과 매장 풍습이 좀 상이한 경우도 있음.....

술본님은 매사를 신과 연결 시키는게 독특하군요.

술본 (2005-05-08 00:05:39)

고려/

신화의 이야기는 대개 영웅의 역사적 이야기를 미화하는 경우가 많지요.

다시말해 어느 집단의 신화를 분석해 보면 그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교적 관점을 갖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

환단고기 해석의 문제점.

환단고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오랜 상고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자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기에 아시아유목부족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상나라에 대한 사마천의 기록이 은허의 갑골문의 기록과 대조하여 역대왕조에 대한

기록이 놀랄만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역사서로서 가치가 높아졌다. 그것은 사기가 기록될 시정보다 거의 천년 이전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은-주시대와 관련해서 유목사회의 당대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그 당시 중국을 둘러싼 제민족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는 이러한 면에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 이전에 알타이 유목민의 거대한 연방이 존재했으며 그 기간도 지금으로부터 9천년전으로 소급된다.

민일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가 환단고기를 역사적 사료로 활용하려면 우선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내용의 수 많은 부분이 전승과정에서 상당부분 윤색되고 첨삭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환단고기의 한 문장 한 줄을 무오류로 규정해서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 환웅과 단군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들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어느 한 순간 고고학적 모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럼으로써 환단고기가 말하고 있는 진실마저 외면당하게 될까 걱정이다.

가정을 통해 가설을 수립하고 또 그 가설을 바탕으로 논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순수한 추상과학인 수학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역사에서 연역적 방법론은 위험하다.

적어도 팩트를 중심으로 경험적 귀납법의 미덕을 갖추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대하고 찬란한 상고사의 모습은 어느 하루 아침에 판타지소설, 아동만화로 추락할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서와 환단고기의 내용은 타협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분명한 기준없이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유리한 기록을 중국사서에서 찾고 불리한 기록은 환단고기를 들어 반박하는 것이 무슨 학제적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주장을 고고학적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중국 모두 일본의 죠훈문화로 부터 한 수 배운 꼴이 되고 만다.

현재까지 세계 고고학계가 인정하는 인류의 가장 오랜 토기는 1만3천년전의 죠훈토기이다. 한반도와 중국의 모든 토기는 이 죠훈토기의 연대와 경쟁하지 못하며 특히 첨저형 빗살무늬 모티브는 결정적이다.

동북아시아의 신석기말기와 청동기사이의 문화변동과 그 전파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오로지 산동과 발해 유역의 발굴물은 모두 고조선의 것이라 우기면 고조선 문화는 그대로 일본 것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죠훈문화의 놀라운 독창성과 선진성에 대해 환단고기의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부합되는 지 찾아보아야 한다. 아울러 그것이 한반도와 어떤 관계를 수립했는지, 또 비교적 연대가 떨어지는 양소,홍산문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 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 것이다.

일본 고고학계가 용산문화나 신라문화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미 자신들의 죠훈문화가 이들 문화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죠훈문화쯤이야 당연히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니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죠훈문화야말로 어쩌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정도다.

환단고기는 죠훈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본 재야사학자는 얼마나 될까?

모두 대륙에만 정신이 팔려서 가상 환타지 소설쓰기 경쟁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san (2005-05-08 08:18:17)

솔본님,

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발해연안과 황해의 바다밑에 홍산, 신락, 사해문명의 전신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그 수몰지구를 확인하겠지요]

고려 (2005-05-08 11:23:56)

일본의 고고학 유물은 이미 다 조작된 걸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참 이해가 안되는군요.

고려 (2005-05-08 11:25:11)

님말대로 한단고기를 중국사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만 수정해서 중국측 주장과 일치하게 수정한다면, 옳은 역사탐구인가요?

고려 (2005-05-08 11:30:16)

또한, 동북아 민족의 활동을 기술한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리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자는
님의 의견대로 한다면, 주체가 상실된 역사로, 그 역사의 서술의미 자체가 없어 지는 것입
니다. 역사서술은 그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적의 원수일 수 있는 것
이 역사인데.....누가 서술한 역사인가를 잊는 것은 그 역사기록을 제대로 밝히는 것 자
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솔본 (2005-05-08 12:36:32)

고려/

일본의 고고학 유물이 죄다 조작되었다구요?

그런 입장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언제 우리 한단고기를 중국측 사서와 일치시키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환단고기가 언제 동북아 민족의 활동만 기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역사서술이 공정하지 않다는 님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까?
다시말해 우리 환단고기나 삼국사기도 알고 보면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주체의식을 살려 적과 동지를 나눠서 역사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주체의식을 살리자고 북한은 평양이 고조선 초창기부터 지금이 평양이라고 하고
단군릉도 평양에 있다고 최근 입장을 바꾸었지요.

단군릉을 신석기~청동기로 편년하면서도 쇠로 된 못조각이 나와도
그냥 우기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체의식 역사입니까?
한마디로 중국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평양이 원래 평양이었다고 하는 북한 주체역사학자들과
고조선 평양은 저 멀리 대륙에 있었다는 남한 주체역사학자들이 만나면 볼만 하겠네요..

중국이나 일본역사학자에게는 양보 못하고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까 양보할 수도 있다면 이건 코미디가 되겠죠.

고려 (2005-05-08 14:35:36)

솔본님, 난독증세가 있으신가요? 내가 쓴글의 주체는 서술주체를 줄인말입니다. 굉장히 오
버하고 있군요.

일본의 석기시대 유적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보도된 신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
니다. 참고 하시길 발가고요.

역사서술은 누가 주체가 되어 서술하였든지, 공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 상식도 없는
분과 역사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님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되짚어 드리고도 싶지만, 님이 이해하지 못할것 같고, 또, 웃글
처럼,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멋대로 남을 헐뜯는글을 게시할까 두려워 참지요.

주체의식과 서술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말 공부부터 하시고, 언어에 대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의도는 고대사 운운하면서, 슬쩍, 단군조선을 넘어 고대 환국이나, 배달국이 우리의 시
조다라는 예수교 사학과 매우 일치성을 보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님이 도출하려는 결론은 뻔하죠. 고대에 한국의 문명이 서구로 갖는데, 다시 회귀하였다. 이는 이미, 서구 선교사들이 초기에 국내에 활동하면서 써먹은 논리입니다.

문명간의 교류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는 그 해석하는 주체가 어떻게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역사서술은 매우 공정하게 서술되었다고 뇌까린다면, 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가는군요.

솔본 (2005-05-08 15:40:43)

고려/

웃기는 인간이 따로 안계시군요..

고려 (2005-05-08 16:54:29)

저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님이 오버하길래, 나도 한번 오버 해본것입니다. 마음수양을 좀 더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장사수 (2005-05-08 20:55:38)

주제님은 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윗 글을 보면서 예전의 "茶O님의 상황"처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띤 논쟁은 보기에도 좋은데 그 글 속에 감정이 실리면 결국은 파국에 이릅니다. 배우는 입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2005-05-11 18:08:20)

솔본님? 다른건 다 좋다고 치고 이말은(따라서 우리는 일본 조몽문화의 놀라운 독창성과 선진성에 대해 환단고기의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부합되는 지 찾아보아야 한다) 귀에 그슬리는군요 저의가 의심 될지경으로...놀라운 독창성 운운이 뭘니까?

최범구 (2005-05-18 10:15:10)

일본의 역사 조작에 대하여 저도 봤습니다.

그쪽의 한사람만이 그런 토기를 발견했는데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개인 연구가라고 들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봤는데 토기 조각을 심었다가 다시 파내는거죠...

그 토기가 일만 4천년전의 것이라고 하더군요.. ㅋㅋ

겨울산 (2005-10-14 00:28:59)

조작된거라고 밝혀져서 만천하에 웃음꺼리가 된게 언제인데 이런 주장을 하십니까???

김상하 (2005-11-11 13:08:56)

일본 고고학자의 조작은 토기가 아니라 인골이었던 걸로 압니다. 구석기유적이 열도에서는 나타나지않으니까 인골의 일부를 몰래 파묻다가 들통났죠. 죠몽문화는 실제 조작이 아닌 현실인데....

<>

삼국의 언어는 달랐을까? 같았을까?

이 질문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대답은 복잡합니다.

우선 언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답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인공은 1만5천년경 동북아의 독특한 세석기문화를 가지고 남하한 북방인들이 기존에 한반도에 거주하던 이들을 몰아내거나 또는 융합하면서 신석기문화를 열어 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몽골로이드며 빗살무늬토기의 형태로 보아 고아시아족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 갈래에 있어서 환동해권으로 연결되는 문화공동체와 환 발해권의 문화공동체 간에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환동해권 문화세력은 일본의 죠훑문화와 연결되며 이는 아무르강하류의 신석기문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인종족으로는 고아시아계통의 사람들이고 언어 역시 고 아시아어로 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환발해권 신석기문화의 특징은 요동반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용산문화나 신라문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의 언어에는 통구스-알타이어의 특성이 뚜렷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반도 남부에는 1만3천년쯤 황해평야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온 남중국인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시노-티벳어 가운데서도 남중국어의 특징이 강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3그룹이 교류를통해 원시 한반도어를 쓰는 기층문화를 열어가고 있을 즈음 청동기 무기를 가진 세력이 한반도에 들어 오면서 급격한 문화변동이 있었다고 학계는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원전 10_7세기경 고인돌을 상징으로 하는 지배계급을 형성하면서 원시 한반도어는 기층어가 되고 알타이어,몽고어,투르크어, 심지어는 켈트어와 인도유럽어 계통의 문물이 지배계층을 통해 전파되면서 이원적 형태를 띠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에는 3국이전까지 기층어와 지배계층어의 이중형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가 신라가 통일을 이루면서 현재와같은 국어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3국시대에는 기층민중의 언어는 3국 모두 큰 차이가 없었고 지배계층어 간에는 고구려-백제-몽골어, 신라-가야-통구스어 형태의 방언적 차이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언어모델인 언어역사론에 비춰 보면 다른 결론을 얻습니다.

이 모델은 하나의 공통어군에서 서로 다른 어족이 갈려나가는데 있어서 200개의 기초어휘

중에서 1천년간 20%가 소실되거나 변화한다는 통계모델에 기초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전 분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으로 부터 약 1만8천년전쯤 유라시아에는 노스트라틱어라는 원시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도유럽어, 우랄-알타이어, 핀-우그르어, 아프로-아시아어 시노-티벳어등을 망라하는 메타어군입니다.

학계에는 아직 논란이 분분합니다만 어쨌거나 하바드와 같은 유수한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니 시쳇말로 '나까'는 아니라는 거죠.

이 가설을 토대로 해본다면 우리 한국-일본어는 가장 고립된 언어라는 점에서 원시 유라시아어에

해당하는 노스트라틱어 가운데 가장 일찍 분기되어 나갔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1만8천년전 이후, 유라시아에 공통적인 중석기말기~신석기 문화기 어디 쯤에서 우리 원시한국어문화 (일본어 포함)는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공동체를 발전시켜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이 1만5천년~1만2천년전 동북아시아 특히 아무르지역에 등장하는 돌날세석기문화와

조몽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기술로서 보면 정말 하이테크문화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개를 처음으로 길들인 종족이 개와 함께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와 맞물립니다. 1만4천년전 아메리카 인디언의 개가 베링해를 넘은 동아시아 개의 후손이라는

유전자 분석의 이야기는 그 개의 주인공이 바로 동북아시아인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개를 불렀던 우리말 카이, 캉이, 워리는 고스란히 전세계에 개를 일컫는 명칭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메르로간 조상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인류문명은 찬란한 새벽을 맞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

창조사학회의 년센스 -셈족이 한국인의 조상이라고?

얼마전 우연히 창조사학회의 한민족 대탐험이라는 탐험기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홍수 이후 아라라트산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한 셈족의 이동경로를 따라 가는 기록이었지요..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년센스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탐험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중국 반파유적에 이르기까지 환저,평저,침저토기의 유형을 따라 그것이 셈족의 이동경로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토기의 출현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시베리아 아무르유역과 한반도 남부, 그리고 일본의 큐슈지역, 다시말해 환동해권지역이라는 고고학적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울러 채문토기의 경우 앤더스의 채도 서방의 길이 방사성 탄소연대기법에 의해 거꾸로 동에서 서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온 마당에...

유라시아 6천Km를 열심히들 다니셨으나 거꾸로 확인해 준 것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이동한 문물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에서 태양은 지구를 향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아득한 옛날 황해문명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했던 주시자들.. 뱀같은 얼굴에 찢어진 눈.. 깃털 망토를 둘러쓴 이방인들..

이스라엘족에게 신문명을 가르쳐 주었다던 악마의 자식들은 전형적인 몽골리안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사실일 뿐이죠.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taoist (2005-05-17 14:02:30)

저것들은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신문명을 가르쳐 주었는데 왜 악마가 되어야 하는지..@@

<>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나 -훈족의 박달,배달나라?-

HUN EMPIRE

204 B.C - 216 A.D

Area - At north, Siberia; south, Tibet - Kashmir; east, Pacific Ocean; west, Caspian Sea; (Total Area - 18,000,000 Km 2)

Founder - Mete (Bagatir, Maotun, Batur)

투르크족인들이 주장하는 흉노제국입니다.

제국의 건설자는 '바가틸(박틸)' (bagatir/ baktir)=박달? 모돈선우, 바툴(batur)=배달?

셋중의 하나겠지요..

우리 환단고기의 환국은 이 흉노제국에 대한 기억이거나
아니면 흉노가 기억하는 환국이거나..

마지막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고민입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살어리랏다 (2005-05-18 07:55:57)

barkul / 바르쿨/막굴...? 그옆에 haml / 하을 /하늘?

최범구 (2005-05-18 09:35:37)

지금의 한글을 영어로 옮겨도 다 똑같이 이해해 지질 않습니다.

하물며 몇 천년전의 언어를 간단히 이해하시기는 힘들겠죠.

아마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게 좋을겁니다.

비슷하다고 하는것은 언어가 변하고 세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최범구 (2005-05-18 09:36:18)

아마도 몇개국어룰 연구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태백산 (2005-05-18 11:03:09)

홍노의 모돈선우가 활약한 시기가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진 때입니다.동쪽에는 동호가 있었는데 부여가 동호에 해당됩니다.부여는 단군조선의 후예입니다.선비,오환이 이동하여 북위를 세우는 데 이들역사서에 단군에대한 기사가 실립니다.한국사에서는 신화로 치부합니다.왜 이런지 이유를 잘생각해야 합니다.신화로 생각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일부러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군조선이 망하고 난후 모돈선우가 나옵니다.그리고 부여는 홍노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서로 적대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부여는 홍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이것은 과거 하나의 나라였는데 두개로 분리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같습니다.지금의 한국과 북한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단군조선은 위의 지도에서본 것과 같은 강역을 차지했을 것입니다.진,한 동쪽의 조선은 단군조선이 아니라 기자조선일 것입니다.동쪽의 조선이 단군조선이냐에 혼란을 느낄때가 많았는데 후에 고려,조선시대에 단군조선을 신화로 하고 기자를 숭배하는 이유를 잘 고찰해야 합니다.

서한 (2005-05-18 15:32:33)

확실히...한단고기및 단기고사,규원사화에 실린 단군조선의 강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것 같습니다..

<>

[믿거나 말거나] 이가 많으면 덕과 지혜가 많다? -이사금의 수수께끼-

오래전에 탈해 이사금이 왕위를 놓고 떡을 물어서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한 내용을 통구스 언어계열로 풀이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탈해가 말하길 '옛부터 이가 많으면 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가 많으면 덕이 많다니요... 그것이 옛부터 전해져 온 말이라?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니.. 그러니까 새번째 어금니를 가리켜 사랑니라고 하는데 이를 영어로는 Wisdom Tooth, 즉 지혜의 이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智齒라고 합니다. 대개 사람에 따라 이 사랑니의 숫자가 다르죠.

학자들은 이 wisdom tooth의 아이디어 기원을 고대 그리스어의 adra.su로 보고 있습니다. adra= 지혜, su=치아.

그런데 이 이빨을 뜻하는 su는 수메르어 'zu'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어 'zu'는 이빨외에도 동시에 '지식'(knowledge)을 의미하죠.

중국어 齒(치)가 이 'zu'를 차용한 것인 지 아니면 반대인지 그도 저도 아닌 우연의 일치인지 아직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사랑니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adra.su를 셈어, 즉 아랍과 페르시아에서는 li'k'm으로 불렀는데 그 발음은 '릿کم'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말은 hikim(이킴/ 어두에서 H는 종중생략)이고요..그래서 Abu al hikim(아부 알 이킴)은 지혜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어쨌든..

떡을 물어서 치아가 더 많았다는 탈해는 아마도 사랑니가 많았나 본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페르시아적 발상이라는 것과 사랑니 이름이 li'k'm(릿کم)이었고 삼국유사는 그래서 탈해가 (닛금/잇금)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빨이 많으면 지혜가 많다는 생각은 동이가 페르시아에 전해준 아이디어일까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동이에게 들어 온 것일까?

믿거나 말거나...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홍승희 (2005-05-25 22:28:24)

그밖에도 페르시아 지방 특히 수메르 문화와 우리의 연관성이 많지요? 특히 언어적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아부와 아버지도 그런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옛 기록들이 대개 자음만 표기된 것이라 모음은 후에 임의로 붙인 것이 많아서 그렇지 그 모음을 다시 조합해보면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유사성이 높게 나타날지도 모르지요.

<>

고대 이스라엘과 한민족의 친연성에 대해

구약성서 히브리어본 열왕기하 23장5절 그리고 호세아서 10장5절에 보면
사제(priest)를 히브리어로 일컫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제'를 의미하는 단어의 발음은 kamar (카말)입니다.

이곳의 제호 강현들 께서는 이 '카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왜 그 단어가 사제, 즉 종교적
지도자를
일컫는 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히브리어 카말(kamar)은 샤먼 또는 주술사를 뜻하는 알타이이어 캄(kam), 일본어 카미
(kami)

그리고 우리말 검. 감(gam)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봅시다.

욥기 3장5절에 보면 욥이 시험에 든 자신을 한탄한 나머지 자신의 출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날이 캄캄하였다면"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캄캄함이란 불행이 닥쳐 출생하지 않았거
나
출생하자마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Let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stain it; let a cloud dwell upon it; let the
blackness of the day terrify it.)

그런데 여기서 '캄캄하다' (blackness)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키미릴'(kimriyr)입
니다.

킹제임즈 바이블의 이 단어를 성서학자 스톨롱스(strongs)는 이렇게 설명하죠.

kimriyr

redupl. from 'kamar' (3648); obscuration (as if from shrinkage of light, i.e. an eclipse
(only in plural):--blackness. / kamar : priest , be black

==> '카말'(kamar)에서 비롯되었음. 캄캄함.

우리말에서 검다는 거말(kemer)이고 검은 것은 신의 영역이어서 '검','감'이었지요.

히브리어 카말은 사제라는 뜻과 동시에 검다라는 뜻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언어적 유추방식은 고대 이스라엘과 한민족이 그 어떤 공통의 종교관을 갖고
있었음을

추론케 합니다.

이 정도로 부족하다면 또 다음의 예를 봅시다.

에스겔서 44장13절 그리고 호세아서 4장6절에서는 역시 사제 (priest), 또는 행정관 (minister)를 의미하는 말로 '카한'(kahan)이 등장합니다. 이 '카한'은 또 '코헨' (kohen)으로도 발음되었는데

이 코헨은 바로 최고의 통치자 (chief ruler)를 의미하는 말이었지요.

kohen

active participle of 'kahan' (3547); literally, one officiating, a priest; also (by courtesy) an acting priest (although a layman):--chief ruler, X own, priest, prince, principal officer.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또 히브리어로 '거발'(gebar)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곧 전사의 (warrior), 용맹한

의 형용사를 뜻합니다. 다시말해 '거발-카한' (gebar -kahan)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곧 '용맹한 군주'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단군 거발한과도 그 어떤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 히브리어와 한민족의 언어가운데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주었는 지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카말'(kamar: 사제,샤먼)로 돌아가 봅시다.

위에서 원전으로 설명한 스트롱스의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kamar가 복수형을 가질 때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 (idolatrus priest)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알타이어 캄(kam), 우리 말 '검'이 이 히브리어 '카말'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 이야기는 적어도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기록되어진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지역에서 이 민족과 치열한 생존투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말해 이 당시 히브리민족은 Kam 또는 검, 카말이라고 불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집단과 함께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지금으로 부터 1만2천년과 8천년사이에 고고학적으로 동아시아의 문명집단이 서쪽으로

이동한 증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메르에서 처음 토기가 등장한 것은 4천년전이고 반파에서는 6천년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나투피안 유적지에서 발굴된 세형돌날과 세석기는 우리 만주와 아무르 선조들이 처음 개발한 첨단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라도 수메르에서 샤먼을 뜻하는 말이 사르만'sarman'이었고 그것이 BC 3000년 이라고 웹스터 사전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샤먼(Shaman)이라는 말이 동북아 만주의 통구스어로서 그 연원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만주 통구스어 샤먼이 수메르어의 '사르만'을 차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메르가 만주 통구스의 샤먼을 차용한 것일 까요...

1만5천년전 동북아에서 처음 개를 길들여 세계로 퍼져 나간 우리 조상들이 세형돌날과 토기를 가지고 서쪽 메소포타미아에 도달한 것이 약 9천년전입니다. 그곳의 유물들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열왕기상하 시대는 BC 10세기 경이었고 이미 고조선이 건국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 가나안 지역에서 우리 한민족의 세계관이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7-31 16:26)

홍승희 (2005-05-31 20:25:15)

중동 언어에 흔히 신을 호칭하는 말 '엘'은 우리의 '얼'과, 평화를 뜻하는 말 '샬롬' 혹은 '샬렘'은 우리의 '살림'과 연관시켜 볼 수 있지요. 할렐루야를 우리 고어에 연관시켜 보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이구요. 아멘은 '아만'이라는 지금은 사투리로 남은 말과 맞대응시킬 수 있지요. 아무렴 그렇구 말구인 셈이죠.

너무 건너 뛰는 건가요? 의미와 발음을 맞대응시켜보면 그다지 거리가 멀지는 않을겁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많은 이들의 아버지'이고 이 가운데 아브가 곧 아버지임도 들어보셨죠?

그 아브라함이 출발한 갈대아 우르 지역, 우리 상고사의 우루국과 관련 있는 지역이지요?

그는 무조건 서쪽으로 떠나라는 명령 하나만 받고 목적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군말 없이 순종해 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보다는 상고시대 지식인들을 양성해 사방으로 인민교화를 위해 떠나보내던 방사의 모습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방사를 사방으로 떠나보내 인류 만민을 교화하는 모습은 후대에 예수가 제자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떠나보내는 모습에서 재현되지요. 예수님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 제자들이 이해한 예수와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전통 사상, 종교의 정신과 달아 있기도 하지요.

소이 (2005-05-31 21:17:12)

그리고

이거 있자나요.

예수가 기도하던 대상이 "아빠" 인거.

target=_blank><http://endic.naver.com/endic.php?docid=348>

(<--이거 주소창에 복사해다 붙이고 보세요. 발음도 들어보시구요.)

sumer (2005-07-09 20:18:40)

북부여의 임금 해부루.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해보면 hebrew(유대인), 그 아들 해모수 즉 모수(mose)너무 우연일까요? 가야금을 만든 가야인 우륵과 수메르 고대도시 Uruk,(Angular harp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라고 브리태니커 사전에 나오더군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군병을 뿌리치듯이 해모수의 아들 고주몽은 북부여 탈출시 강을 만났을때 자라와 물고기를 떠오르게 하여 추격에서 벗어나지요. 기적을 만드는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sumer (2005-07-09 21:08:03)

아부라함이 건설한 고대도시 베델, bethel=beth(house)+el(god) 즉 신의 집

우리민족은 배달민족이라고 하는데 혹시 베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베델출신의 해부루와 모수(mose)가 북부여 건국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

북유럽인은 왜 , 무엇 때문에 동이의 치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일전에 저는 동아시아의 근본 문명이 지금으로 부터 1만2천년~8천년사이에 전세계로 퍼져 났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 북구 유럽에서 동이의 전쟁신 치우와 똑같은 개념의 신이 존재하고 그 이름 역시 치우라는 것입니다.

Ziu (Tiw)

Norse Tyr , ancient Germanic god. Originally a highly revered sky god, he was later worshiped as a god of war and of athletic events. He was identified with the Roman war god Mars, and among Germanic peoples Mars' day became Tiw's day (Tuesday).

-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Copyright (c) 2005.

위의 내용은 컬럼비아 대백과 사전의 인용문입니다.

북유럽의 전쟁신 '치우(Ziu)는 티우 (tiw)로도 발음하는데 로마의 전쟁신 마르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우/티우의 이름으로 부터 화요일을 의미하는 Tuseday가 유래했다고 하는군요.

화요일은 불 즉 火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다 우연이라고 해버리면 속편하겠지만...

다음번엔 유럽인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유럽인의유전자적 원형은 중근동인과 아시안의 혼혈이라는 것입니다.

몽골 침입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에 유럽의 뿌리찾기 운동을 소개하면서 'Asatrur' 아사툴을 소개했었습니다.

신을 일컫는 켈트어의 고어가 아사 Asa라고 말씀드렸지요.

유럽의 어떤 학자가 이 '아사툴'에 대해 '아시아의 샤먼군주 통치의 흔적' (under the Asian Shaman imperial)이라는 주장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다시 찾으려니 기억이 안나네요 (미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으로 부터 1만2천년~8천년사이에 전세계 4대문명의 모체를 안은 한 동아시아의

종족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밝혀 보이겠습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5)

光濟 (2005-04-30 13:16:18)

8천년 전 ~ 1만 2천년 전에 동아시아의 국가로 존재해야 한다면 구려(구이) 또는 고조선이
어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무한적용 (2005-04-30 18:00:09)

고조선이 어떻게 그때 있지요? 배달국이나 환국이라야 하지 않는지..

영 (2005-05-01 01:58:29)

유럽인류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볼 수 없나요? 보고싶네요..

<>

[re]북유럽인은 왜 , 무엇 때문에 동이의 치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백성들은 나라 이름을 기억 못해도 영웅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치우천왕의 이름이 북유럽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훈족의 아틸라와 몽골족의 '테무진'이 유럽인에게 공포의 대명사가 된 것도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기마군대를 앞세워 초원길을 통해 유럽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한국이나 배달국이 몽골제국처럼 거대한 유목제국이었다고 하더군요.

참..그리고보니 유라시아의 초원길은 신석기시대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상고시대 북방 민족이 따뜻한 옥토를 찾아 중원으로 남하했고 그곳의 토착민족을 추방하거나 지배할 때 무기뿐만 아니라 종교도 충분히 활용했어요. 그게 선도仙道라고 하는데..무축이나 주술 등 각종 제사의식이 필요한 그 시대의 샤머니즘과 결합하였다고 합니다. 샤머니즘 자체가 선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샤먼의 어원 즉 시원이 만주에서 기원했다는 반자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샤머니즘도 우리 민족이 시작하여 외국까지 전파했던 것 같아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우리민족은 태백산의 수림樹林을 광명神의 보금자리로 믿어 각 고을마다 수림을 길러 '수두' 또는 '소도'라고 불렀고, 소도의 우두머리를 단군이라 부르고, 그 단군들 중에 대단군(神수두)이 천제天帝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목민족의 천손신앙이 소도사상(샤머니즘)으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3대종교(기독교,불교,이슬람교)처럼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하여 고대 아시아인들의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잡았을 겁니다.

일본의 신도神道도 소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군국주의자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배제하고 종교를 악용하고 있어서 문제죠..

아래 것은 선사시대 유목민족이 사용한 초원길에 관한 내용이 있어 퍼온 겁니다.

오픈백과 : 동양과 서양의 교역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의 역사

평점 :

+84 (106명) 나도 평가하기 조회: 6193

daniel226 (2004-10-04 00:45) 신고하기 | 이의제기 (1)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의 순서로 그 사용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1) 초원길

먼저 초원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길은 동서양을 잇는 이 세 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를 살펴보자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초원길은 스키타이인들의 활동무대였습니다. 이 스키타이인들은 초원길을 달리면서 그리스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된 청동기 문화를 다른 지방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도 끼여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청동기 문화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겁니다.

스키타이인의 뒤를 이어 초원길의 지배자가 된 민족은 흉노족 입니다. 이 '흉노'라는 이름은 중국 및 동양에서의 이름이고, 서양에서는 이들을 'Huns' 즉 '훈'족 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제국 말기시대에.. 훈족의 이동으로 밀려난 게르만 인들이 대거 로마 국경을 넘어 국내로 이주해왔다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바로 그 원인이 되는 '훈'족이 바로 흉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약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이 길을 통하여 서방으로 진출했으며 그 결과 유럽 동부에 살던 게르만 인들이 이들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밀려서부로 쫓겨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기원후 3세기부터 4세기 까지 초원길을 활용한 민족은 다섯민족이나 됩니다.

중국역사의 한페이지를 5호 16국 시대라는 이름으로 장식하고 있는 다섯 오랑캐(흉노, 선비, 저, 갈, 강) 가 바로 그들이지요. 이들은 중국의 혼란을 이용하여 중국본토에 저마다의 세력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그 때 이들이 돌아가면서 세운 나라가 총 16개 나라가 되기 때문에 5호 16국 시대라 명명된 것입니다. 다섯 오랑캐를 이어서 돌궐족과 위구르 족이 초원길을 내달립니다.

이 두 민족은 이길을 통하여 보금자리를 옮겨서 위구르는 중동지방에 '서하'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돌궐족은 후에 서양에서 '투르크'라 불리면서 공포의 존재로 남게되죠.^^;

흉노의 '훈' 과 마찬가지로 돌궐 의 서양식 이름이 '투르크' 랍니다. 이어서 약 9세기부터는 마자르 족이 이길을 활용합니다. 사실 마자르족은 중동지방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초원길을 이용하여 유럽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동유럽으로 밀려오자 온 유럽이 벌벌떨게 됩니다.(어째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는 민족들은 '모두' 공포의 대상이 되는걸까요;;ㅋ)이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지금의 '헝가리' 입니다.

또 셀주크 투르크도 이 길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켜서 결국 아랍세계의 패자가 됩니다. 셀주

크 투르크에 이어서 이제 이 초원길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네요..ㅋ

초원길을 마음껏 '내달렸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민족...바로 몽고족입니다.

몽고는 서하와 서요, 금을 굴복시킴으로 동방을 정리하면서 바투로 하여금 서방을 정벌하게 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겁니다. 바투의 '유럽 원정'! 바로 그 무대가 되는 곳이 초원길 지대인 것이죠.

몽고의 대원정이 마쳐진 이후에는 이 초원길로 선교사들이 왕래를 합니다. 주로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이 길을 따라 동으로 가게 되지요. 이상으로 초원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사막길(비단길)

사막길 혹은 비단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되어 소아시아지방, 서아시아, 이란고원과 중앙아시아를 지나 파미르고원, 타림분지를 거쳐 중국의 장안까지 연결되는 길 이랍니다.

중앙 아시아로 뺨 뚫려 있는 이 교통로는 다른 어떤 길들 보다도 동서양의 문화교류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비단길의 시작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단길은 본래 아랍 사람들이 교통로로 사용하던 구간에 중국 전한시대에 반초가 개척한 장안까지의 길이 더해지고 이길이 서쪽으로 유럽까지 확장되어 완성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반초라는 신하가 이 비단길을 개척했으며 전한이 멸망한 후에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비단길 구간에 오랑캐들이 출몰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 하였으나 후한이 다시 성립되면서 감영(삼국지에 나오는 감영과는 동명이인 입니다.)에 의해 다시 개척되게 됩니다.

이시대에 비단길을 통해 전래된 유명한 문화는 바로 불교와 인도 쿠산 왕조의 간다라 미술을 들 수있는데요.. 불교는 중국에 전파되어 마침내는 한반도, 일본까지 거쳐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간다라 양식은 동쪽 끝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쳐서 석굴암의 불상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가 멸망한 후, 위.진.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혼란기를 맞아 비단길이 또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의외로 이때는 굳건하게 잘 보존 된답니다.

덕분에 수많은 구법승들이(기독교의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듯,)이 길을 따라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뱀다리를 하나 놓아보자면.. 삼국시대때 백제에 온 마라난타 스님도 이 구법승들 중에 하나였답니다.ㅋ

구법승들이 지나간 길에는 자신들이 살았던 지방의 문화.. 즉, 인도의 굽타 미술이 전파됩니다. 그 이후, 수나라를 이어 당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부터는 이 비단길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특히 이 교역로를 오가는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이 많이 다녀야 돈을 버니까.) 길을 따라 절도사를 배치해 치안을 유지하였답니다.

특히 당나라 영토 서부에 복속되어 있는 비단길 지방에는 안서도호부를 두어 그 지방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길이 안정되니까 상인의 왕래도 잦아지고 당연히 구법승도 더 활발하게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단길이 차차 안정되어 자리를 잡자 당나라는 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잘나가던 때에 당나라 남쪽에 자리잡은 토번(지금의 티벳)과 아랍의 사라센 제국이 당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눠먹으려고 손을잡고 당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국경에 자주 출몰하여 약탈을 하는 식으로 당나라를 괴롭혔는데요.. 이렇게 하면 비단길을 통해 오던 상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따라서 상인들이 비단길 가기를 꺼려하게 되겠지요.

상인이 오지 않는 당나라는 더이상 이익을 보지 못할테고요. 이런 계산을하고 사라센 제국과 토번이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자 보다못한 당나라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 줄 요량으로 아예 대군을 일으켜 이들을 토벌하기위해 나서는데 이때 고구려 유민 출신 절도사인 고선지 장군이 군을 이끌게 됩니다.

고선지 장군의 휘하 장병들은 연전 연승을 하며 비단길과 주변 치안을 다시 확립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그만두지만 사람은 배가 부르면 다른 마음을 품는단가요?

배부르게 된 당나라는 비단길의 이익금을 독점할 욕심을 품게됩니다. 결국 고구려 유민 출신 고선지 장군에게 서역을 정벌할 것을 명하여 전 비단길을 당나라 영토안에 넣으려는 욕심을 밖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탈라스 전투에서 당군이 패함으로 당나라의 비단길 지배야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비단길은 또다시 잠수를 타게 되는데요. 중국 본토의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이 그 이유입니다. 이후 송나라 시대에는 오랑캐의 공격 때문에 비단길보다는 바닷길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몽고제국이 나타나서 서역원정을 할 때까지 비단길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3) 바닷길

자 이제 마지막 교역로인 바닷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바닷길은 유럽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쳐 홍해로 접어들던가 잠시 육지로 서아시아를 통과, 페르시아만으로 접어들게 되어 인도 남아시아 중국까지 연결되는 교역로입니다.

이중에 지중해 항로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페니키아, 카르타고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가 활용하던 항로입니다.

또한 중부와 동남아시아 해로는 기원전 1세기에 인도에서 개척하는데요, 아라비아해에서 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간 대항로입니다. 인도의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퍼지게 된 것도 이 길을 따라 이루어진 것 입니다.

기원후 8세기 부터는 이 길을 통한 아랍인의 활동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산품을 한 배 가득히 싣고 이길을 따라 중국에까지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아라비아 인들은 신라의 경주까지 와서 무역을 했답니다! 고분들에서 발견되는 유리공예품들은 모두 이들의 특산품이며, 이것이 아라비아인들이 신라까지 와서 무역을 해갔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의 조선기술을 생각해 볼 때 '목숨을 건 모험'이라고 밖에 생각하기 힘든 일이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중국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당나라 이전의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 바닷길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뽕 뽕린 비단길이라는 육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대외 무역에 신경을 쓰는 왕조들이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 대다수의 중국왕조는 혼란기에 자기 몸 하나 건살하는데 급급하여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이 바닷길의 유용함을 파악하고 '시박사' 라는 것을 설치하여 바닷길을 관리하게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해양수산부' 장관이랄까요..?ㅋ

당의 뒤를 이은 송나라는 영토상으로 이 바닷길에 아주 목숨을 걸게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조까지 활용해서 득을 봤던 비단길은 황폐해져서 더이상 사용하기 힘들어졌고 옆친데 덮친격으로 오랑캐들의 방해까지 더해져 더이상 비단길은 상인들이 안심하고 지날 수 있는 길 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나라와 금나라의 침공으로 하북지방을 빼앗기면서 송나라는 비단길과 단절이 되고 맙니다. 결국 남송은 오랑캐들이 출몰하지 못하는 바닷길로 진출하게 됩니다. (오랑캐들은 말은 잘타지만 배는 잘 못탄다지요..ㅋ)

덕분에 이 남송시대엔 중국의 선박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늘게됩니다. 우선 대양에 나가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지고 많은 상품을 실을 수 있도록 선박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또한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도 바로 이시대에 중국에서 발명되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명나라에 이르면 중국의 조선기술은 동양 제일이 아닌 세계최고가 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명나라 황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오랑캐를 내몰고 '

한'족의 나라를 부흥시킨 대 명국의 위대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 원정'을 떠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세계 만방에 대 명국의 이름이 퍼지고 온나라의 '어버이'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원정의 총대장은 정화 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세계사 시간에 '정화의 대 원정' 이라고 배운 것이 바로 이 원정에 대한 이야기이죠. '대 원정' 이라고 해서 서양식으로 병사를 이끌고 가서 창칼로 실력행사를 하여 자국 영토로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위대한' 문물을 전해주고 그나라의 '조공'을 받아서 다시 명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조공'도 중국사람 입장에서나 '조공'으로 생각했지 주는 쪽 입장에서선 단순한 '선물' 이었겠죠?^^ㅋ

아무튼 이 정화의 원정단은 당시 세계 어느나라도 건조하지 못할 커다란 선박을 수십척이나 이끌고 아프리카 서안까지 다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원정'은 이 때 이후로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명 말기에서부터는 이 길을 따라 유럽사람들이 중국을 찾아와 교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역은 허울일 뿐 실제로는 중국을 한번 먹어보겠다는 야심이 깔린 계략이었죠.

이미 유럽인들은 이 길을 통해 아시아로 와서는 이동네 저동네 찾아다니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서글픈 일이지만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화도 이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썼습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5)

pardoha (2005-11-26 23:32:43)

제가 어떤글을 봤는데 훈족과 흉노족은 다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증거가 편두라는데 흉노족은 편두를 하지않는데 훈족은 했다고합니다.

어느 유럽에서 박사학위받은 한국인이 쓴 글이었는데 다음에서 편두 치신뒤 블로그보시면 로마를 호령했던 어찌구하면서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불'(火)에 대한 세계언어 그리고 기원의 문제..

인간이 불을 다루게 된 것은 지금으로 부터 50만년전쯤이고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20만년전

으로 본다고 합니다.

인류의 어떤 종족이 불을 처음으로 다루게 되었는 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최초로 불을 다룰 줄

알았던 종족은 다른 맹수나 인근 종족과의 싸움에서 유리했을 것이고 훨씬 많은 종족개체를 남길 수 있

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불'의 사용이 처음에 특정 종족으로 부터 전세계로 퍼져 나간 것인 지 아니면 각 지역의 원시인류가 동시에 각각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인 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불'을 일컫는 세계 각국의 단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우선 영어로 불은 fire입니다. 이 fire의 고영어(Old English)는 'Fyr'입니다. '피에르' 또는 '피엘'이 있겠는데 당시 중세영어는 앵글로색슨과 켈트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켈트어에서 모음 'y'의 음가는 'u'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Fyr'은 '폴'과 '필'의 중간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재구할 수 있는 것이죠.

게르만의 독일어로 불은 'Feure' (페우얼), 프랑스어로는 Feu (페우), 그리스어로는 Pur (폴)이죠,

이러한 점에서 인도-유럽어언어계에서 불의 원시어 재구시 /F/음과 /P/음이 서로 교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켈트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네덜란드에서는 'Vuur' (부울)입니다.

아프로-아시아어(동아프리카어)에서도 불은 'Vuur'입니다. 이 'Vuul'은 림부르기안,플레미시

지역의 방언으로도 역시 'Vuul'인 것으로 보아 어느 나라만의 특정 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을 일컫는 이 부울(Vuul)계 어는 화산을 일컫는 볼케이노(Volcano)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 볼케이노는 원래 라틴어 볼카누스 (Vulcanus)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불의 신' (God of Fire)

의 이름 볼칸 (Vulkan)에서 유래된 것이죠.. 고대 그리스어로 재구하면 이는 Pur (불) + Cani(이빨)

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칸이 몽고와 투르크의 신 부르칸(Vurkan)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음은 분명하고 이것이 우리 불함(不歟)과도 모종의 관련이 있음은 이미 최남선이 시사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火)은 또 지중해 및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Fuaco/Fuaco/ Fugo/등로 발음하는데 그 어간은 분명히 'Fu'일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어 火(Fua)와 음운상 연결되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이 '불'과 관련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음가들이 있습니다.

켈트어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스칸디나비아와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불'은 탄 (Tan) 아이리시어로 불은 타인(tine), 영국의 브레튼어로는 탄(tan),스코틀랜드에서는 테이네(teine) 등이죠..

이것은 우리가 '불'과 관련해서 '타다' 또는 '때다'라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중국어로는 탄(炭)이 숯을 말하고 이때 숯은 영어로 charcoal이 있으나 이는 보다 학문적인 말이고 대중어로는 'Soot'(숯검댕)입니다. ==> 사전을 찾아 보세요

또 히브리어 불은 아쉬 (Ash)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아쉬 (Joho-ash)는 신의 불 (The Fire of Lord)

의 뜻인 것이죠.. 중근동에서 유라시아에 '불'을 뜻하는 아주 오랜 고대어,즉 노스트라틱어로

아사/아쉬(asa, ash) 인데 이는 투르크어에 불을 '아쉬테'(Ashite)라고 하는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노스트라틱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아사/아쉬(asa, ash)가 후에 신(god)을 의미하는

성스러운 말로 변화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인도네시아 같은 남방계어 (austranesian)에서 불을 아피'api'라고 하는데 이는 유라시아에 연결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음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을 '지피다' '피우다'라고 하는 말과도 어떤 유추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수메르어에서 직접 불을 무엇이라 했는 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bar(태우다,굽다,불꽃) 또는 Ubulbul(불꽃 ,섬광)의 어휘형태를 보아 B의 자음에 a, u형태의 모음이 첨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불에 대한 어휘들을 늘어 놓는 것은 우리 말 '불'이 전세계가 '불'을 말하는

단어들에 대해 거의 모든 관련어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말해 불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는 '타다', '피우다' '지피다' 등 불에만 관련되는 어휘들을
통해 다른 어족이 '불'을 뜻하는 단어에 다양한 동의어 대응관계를 유추할 수 있으나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어군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불을 뜻하는 스칸디나비아어군의 탄(tan)은 남방어의 아피(api)나 네덜란드의 불
Vuul
에 어떤 관련어로도 대응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더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의 경우 '흐르다', '길다'와 같이
물에 관련해서 쓰는 어휘를 통해 다른 어군과 다양한 유추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공통의 유전자풀에서 개체군내 다양한 유전적 돌연변이의 집합적 포함관
계를 통해 그 조상을 추적하는 작업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과거 고도의 문명어휘에 적용해 보면 현재 우리 한국인이 전세계 4대문명의
주요 어휘를 모두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어휘들이 우리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어휘를 차용해 간
명백한 증거들을 어군내 화용 또는 변용을 통해 추적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5)

자부심 (2005-06-04 22:49:39)

요즘 들어 조금 뜸해지신 솔본님의 글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가르침 주시고, 혹 훗날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寶溪 (2005-06-04 23:04:50)

솔본님의 글 저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_()_

눈사람 (2005-06-05 03:06:23)

역시 최고네요..... 열의와 재능에 정말 탄복합니다.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홍승희 (2005-06-06 00:09:26)

참 중요한 지점을 포착하셨습니다. 불, 물, 빛, 밝음, 어두움 등 원시적 단계에서부터 사용되었을 어휘들을 여러 사람이 각각 수집, 한 자리에 모은다면 참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불과 관련해서 아마도 환하다, 따뜻하다라는 감각적 말도 관련어휘로 참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군요. 중국어 화(火) 발음(실제 중국어 발음이 그런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말 환하다와 연관성이 있는 발음일 것 같군요. 다른 지역의 Fa 음가들 역시 그런 연관성이 보입니다. 특히 더운 지방에서 불의 주된 효능을 밝음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타는 열이 보다 중요했고 언어의 습득도 그런 쪽으로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군요.

sumer (2005-07-09 22:48:59)

화(火)를 오늘날 북경식 발음으로 후오(huo)라고 읽습니다. 우리말 발음과 유사합니다. 중국은 지역 방언이 심하고, 또 예전에는 화라고 읽는 곳이 있었겠지요.

인도에서 pur는 도시(city)의 뜻으로 쓰입니다. 자이푸르,사랑푸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

동굴생활시대와 움막시대에는 사람이 모여서 불을 피웠으니 사람이 모이는 곳도 pur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pur(인도 현지에서는 '뿔'에 가깝게 발음)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삼국시대의 지명표기에 그대로 쓰이는데 한자로 부리,벌,部,부락으로 표기됩니다. 비사벌, 서라벌, 소부리 등, 부락은 지금도 마을의 의미로 쓰입니다.

<>

한국어 ' 나는 너를 사랑해'와 가장 가까운 언어들.

I love you...

인류가 개발해온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말로는 난 너 사랑해..

이 표현 가운데 가장 한국어에 가까운 말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1. (Naanu Ninnanu Ishtapattiruve)

=> 위의 글자는 인도 남부 Kannada지방의 말입니다.

(나누 니나누 이쉬타파티루베)

2. (n^An unnaik kAthalikkiREn)

=> 이 것은 타밀어 입니다. 발음은 (나안 우나익 카탈리케렌)

3. Neenu ninnu pra'mistu'nnanu

=> 역시 인도 남부의 텔루구(telugu)어입니다. (네누 니누 프라미스투나누)

4. Malayalam -> Njyaan Ninne' Mohikyunnu.

=> 말레이지아가 아니라 인도 지방입니다.

(니얀 니네 모히큐누) / Ngan Ninne Snaehikkunnu (느간 니네 스네히큐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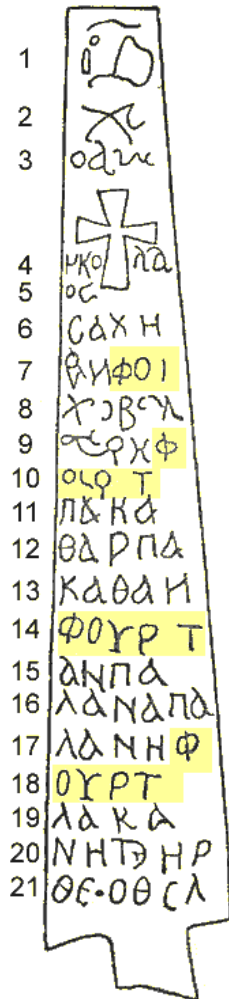
5. (India): (Nenu Ninnu Premistunnu)

=> 인도어죠. (네누 니누 프레미스투나누)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5)

<>

오세티안 켈렌추크 비문의 수수께끼 - 위대한 군주 Baktar은 누구인가?



코카서스 켈렌추크에서 발견된 비문

6,7,8라인에 X...(흐,하)로 시작되는 자의 아들 '박달'Bakatar이 보인다.

X. ... ρη φοιρτ Ἰακαθαρ

(X....의 아들 Bakatar)이다.

1888년 여름, 옛 소련의 고고학자 스트루코브(D.M)는 남러시아 코카서스의 쿠반(Kuban)지역의 켈렌추크 강변에서 그리스 문자가 기록된 한 이상한 묘비를 발견합니다.

묘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어 진 것이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그리스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그리스문자는 그리스어로 뜻이 통하지 않았

다고 합니다.

스트루코브 박사와 동료들은 그 묘비의 탁본을 떼서 소련 아카데미로 보냈고 모스크바 대학의 민속학교수이자 소련 사회과학 아카데미 회원인 밀러(Vs. Miller)박사는 묘비의 그리스문자를 빌려 쓴 그 언어에 분명히 오세티안,(체첸, 잉구세테아지역)어로 볼 수 있는 몇몇 어휘들이 반복해서 등장함을 보고 오세티안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비록 그 묘비에는 연대기록이 없었으나 밀러박사는 같은 지역의 다른 그리스문자의 패턴들을 비교하여 그것이 11~12세기에 만들어졌음을 추측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펠렌추크의 비문은 오세티아의 문자체계를 알려주는 유일한 고대 기록입니다.

아울러 펠렌추크의 비문은 서역의 알란인들과 함께 오세티안이 코카서스 서부지역에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또한 비문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당시 이 지역에 기독교의 전파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파타코프 (F.Sh Fattakhov)는 펠렌추크비문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투르크언어로 분명하게 읽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 니콜라 . 만일 더욱 성장하였다면 지도자의 유르트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타르바카타이-알란의 유르트에서 어린이는 칸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비문에는 이와 함께 오세티안의 거룩한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박타르/박달(Baktar)가 있

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박타르는 X..로 시작되는 어느 존재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흐’ 혹은 ‘하’로 시작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코카서스 오세티아에는 7명의 아들을 둔 왕 박달의 전설이 있습니다. Os-Bagatar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오세티안들은 이름 앞에 On 또는 an 또는 Os, As를 존칭으로 붙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밀러와 다른 소련 학자 아바예프(Abaev)는 이 Baktar가 투르크어 또는 몽고어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보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투르크-몽골세력이 코카서스 서쪽을 지배해서 투르크화되기 이전에 오세티아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코카서스 지역에서 Baktar / Bagatar의 전설이 아주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박달임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5)

道不遠人 (2005-06-11 18:11:20)

아마도 고대 동서의 민족,문화벨트의 선상에 있는 프리기아와 관계있는것 이닌지...

홍승희 (2005-06-12 21:00:58)

눈에 번쩍 뜨이는 내용이군요. 분명 박달임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 박씨 성들이 그 쪽과 연관이 있어보이기도 한데. 박혁거세의 출신지역이 어쩌면 상당히 먼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고대 지역명? 왕국 이름인지가 박트리아죠. 그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고대 12한국 지역이 그 곳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근거일지도 모르고...

<>

서양의 '케이크'는 우리의 '떡'에서 비롯된 것.

떡은 우리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아울러 오랜 상고시대부터 떡이 우리 조상들에게 차지한 위치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지요.

어느 국어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속담중에 소재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떡'이라고 합니다.

떡은 원래 농경이 시작되면서 하늘과 조상에 바친 제례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의적 성격의 음식은 모든 관혼상제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도 우리의 떡과 같은 개념이 있어왔으니 바로 '케이크'이죠.
서양역시 이 케이크는 상고시대에 신에게 제사로 바쳤던 공물이었다고 합니다.

떡과 케이크는 그 유래와 기능이 일치함에도 서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인해
그 기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현대 영어 케이크 (cake)가 쓰여진 것은 1200년경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고영어에서 이 cake는 카카 'kaka'였는데 이는 인도-이란어에서의 'keki'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같은 유럽에서도 이 케이크라는 단어는 범용적이지 않다는 것이
죠.
일례로 이탈리아에서 케이크는 토르타 (torta)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토르테(torte) 러시아어
로
토르뜨(tort) 이고 네덜란드 어로는 따르뜨 (tarrt)입니다.

주로 켈트어와 슬라브어계통에서 이 케이크는 토르뜨, 따르뜨 등으로 불리워 지는 것이죠.
우리의 '떡'과 충분히 음운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어휘입니다.

분명한 것은 떡의 프로토타입의 어휘가 유라시아에서 '떡/토르뜨'와 '카카'/'케키'라는 두개의
형태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인데 '카카/케키' 유형은 중근동과 아나톨리아를 비롯 페르시아-
이란어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 현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경의 시작과 전파를 살펴보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카카/케키' 유형은 약 BC8천년전 신석기혁명기에 중근동에서 시작된 농경의 유산이라

고

주장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근동의 농경이 유럽에 전달되면서 카카/케키 유형의 단어를 유포시켰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델로는 '떡/또르뜨'의 어휘의 발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농경의 시작은 현재의 고고학적으로는 BC7천년으로 소급되나 충북 소로리 지역에서 발굴된 탄화범씨는 순화미로서 그 연대가 BC 1만3천년으로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록입니다.

다시말해 충북 소로리 탄화미를 근거로 한민족의 농경 시작이 적어도 전세계에서 가장 이를 수도 있다는 가설의 바탕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게으른 학계는 관심도 없답니다)

떡/케이크의 존재가 농경의 기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유라시아 가운데 이탈리아, 러시아를 비롯 슬라브지역의 '또르뜨'가 한민족에게 전파되어 '떡'이 되었다는 것은 농경의 시작연대에 비추어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농경의 시작이 BC 4천년경으로 보니까 우리보다 공식적으로도 3천년 이상 늦은 데다가 설령 그들의 '또르뜨'가 들어왔다 해서 3천년 이상 신께 바친 음식의 이름을 버릴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이는 다시말해 유라시아에 한민족의 농경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떡'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떡을 모찌라고 하지만 고대일본에서 제사때 쓰던 쌀로 만든 떡은 '스또끼'라고 해서 우리 '쌀떡'의 전파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떡'을 떡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인도 타밀지역과 텔루구, 즉 드라비다어로 떡은 '또췌' (doce)이지요.

이러면 어떤 이는 '봐라.. 인도의 쌀재배가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떡'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쌀 재배지역의 시원지로 학계가 꼽는 곳은 중국 양자강유역과 한반도 남부입니다.

이제까지는 쌀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지만

고고학적 발굴은 그것이 정 반대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지역에서 발굴된 어떠한 탄화미도 연대가 중국 양자강 유역보다 늦고
중국 양자강의 어떤 탄화미도 한반도 소로리 탄화미 보다 연대가 늦다는 것입니다.

세계학계는 현재 쌀의 기원지로 인도가 아닌 중국 양자강유역을 보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들이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인정한 가장 오랜 탄화미(BC13,000) 그것도 분명히 인간이 재배를 시작한
흔적이 있는 순화미로서 소로리의 범씨를 인정하면서도 농경의 기원으로 한반도를 근거없이
외면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한민족의 '떡'은 농경문화가 시작되었던 1만2천년전에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한민족이 '개'와 함께
세계로 나아간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떡'이 '포르뜨/따르뜨'가 되어 퍼지는 동안 한민족의 또 다른 농경문화의 산물이
중근동 메소포타미아에도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과자 = 까까'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스킷은 유라시아 여러지역에서 케이크의 뜻인 '카카'로 불립니다)

이 '까까'와 '떡'이 퍼져 나가면서 중근동지역에서는 '까까'가 카카(kaka), 케키(keki)가 되어
아리안에게 전파되었고 '떡'은 '포르뜨/따르뜨'로서 유라시아에 전파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전통 떡살무늬들이 인류 4대 문명의 모든 근원적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논증하겠음)

한민족의 농경문명이 4대문명의 기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희미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차 뚜렷해져 갈 것입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5)

역사탐방 (2005-06-19 17:18:52)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초고대문명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홍승희 (2005-06-20 14:45:37)

현재 발굴되고 있는 유적이나 또는 천문학과 연계된 연구로는 양자강 유역의 벼농사도 우리 민족이 시작한 것 맞습니다. 현재 중국대륙에서 발굴되는 상고대 문명 유적은 분명 중국 화하족 문명과 다른 동이족 문명이며 이를 우리 역사와 연결시켜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잘난 사학자들의 몫인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 제껴놓고 세계의 공인 받을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요.

홍승희 (2005-06-20 14:50:45)

그런데 떡과 관련된 이름들이 대개 발효되지 않은 떡입니다. 부풀린 케익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특정한 날에는 효모를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떡 가운데 부풀린 떡은 기장떡, 일명 술떡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떡이 원래 제사음식이었던 만큼 부풀린 떡을 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일종의 과장 내지 속임수로 본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직하고 정갈한 음식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환단고기의 환국12연방과 고고학적 의미

환단고기의 서술은 일면 메타적인 면모가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식의 표현과 유사하다.

성경의 창세기가 물리학적 우주론으로 백업된다면

환단고기의 '환국12연방'론은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백업된다.

이를 위해 '최몽룡, 이현종, 강인욱'교수 공동저서인 '시베리아 고고학'의
한 절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

P 131~132

[후기 구석기(1만3천년전)시대의 석기문화는 세형돌날문화의 등장과 전개과정을
밟으며 기술집약적인 석기문화를 창출하였다.

이 석기문화의 양상은 동북아시아에서 개발된 석기제작법으로서 형태는 동북아시아 이외의
다른 지역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석기문화의 등장과정으로 부터 소멸과정까지 석기문화의
전 과정을 볼 때 북아시아의 후기 구석기문화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독특
한
지역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부몽고, 극동지역, 동북 시베리아,중국 동북부지방 일부지역 한반도 및 일본은 하나
의
큰 문화공동체로 평가될만큼 지역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석기문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여러분은 아마 환국12연방의 범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것이 석기시대의 문화라는 점에서 어쩌면 대단히 낙후된 원시문명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르강 하류와 수추섬에서 발굴된 구석기 말기 신석기시대의 토기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그 모양과 문양으로 볼 때 이집트나 수메르의 그 어떤
토기들 보다 다양한 표현과 기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기문명이 청동기나 철기시대에 비해 원시적이라고 보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료적인 측면일 뿐이다.

참고로 아즈텍과 마야 문명은 금속을 사용할 줄 몰랐던 시기에 이미 엄청난 고도문명의 양식들을 구축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환단고기는 아득한 옛날 시베리아-동북아의 커다란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이지역에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전에 말이다.

그것이 정치적 공동체였는지, 문화적 공동체였는 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동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토기가 출현했다는점. 그리고 토기가 정착문화를 촉진하면서

이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촌락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으리는 점에서 시베리아-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어쩌면 부락간의 연대를 통한 정치적 공동체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고고학적 발굴로 가정되는 시베리아-동아시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유일한 문헌적 해답은 '환단고기'뿐이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홍승희 (2005-06-26 21:26:26)

환단고기는 이를 정치적 공동체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돼 나가야 할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역의 텍스트들 속에서 종종 해석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성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전투의 기록이 나오고 그 때 평화(샬렘)의 왕 말기세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 행위에 앞서 그들 사이에 그분을 믿느냐는 문답이 오가지요. 같은 종교 문화를 가진, 그러나 혈연적으로는 상관이 없어보이는 집단간에 종교 문화적 공통기반을 통한 정치적 연대-매우 느슨하긴 하지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 오면 미디언의 장로인 모세의 장인이 신앙적 지식을 가르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대립되는 집단간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시대와는 확연히 변한 모습이지요.

우리 역사를 고고학적 발굴로 확인하고 해석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동지역의 여러 텍스트들은 여러 면에서 해석의 한 방법을 보여줄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조선(朝鮮)의 발음은 '쥬신'이 아니다.

중국어는 고대의 발음과 중세의 발음 그리고 현대의 발음간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 쓰이는 한자 발음은 중세중국어 발음에 가깝운데 이를 통해 중국 한자음의 중세음을 한국어 한자 발음을 통해 재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어의 고대음가는 흔히 '상고음'이라하는데 현재의 중국어 발음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朝鮮), 부여(夫餘)의 경우가 그렇다 하겠습니다.

우선 부여를 살펴 봅시다.

중국의 '한자고금음휘'(1973. 주법고 편) 와 상고음운표(1944), 칼그렌의 '중국상고음'의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면,

夫(부) : b'iwag (한자고금음휘) / b'iwo (칼그렌) / pjwar (중국상고음)
餘(여) : diag (한자고금음휘) / dio(칼그렌) / riag (중국상고음)

다시말해,

부여는 ' 뻘아 디악' / '뻘오 디오' / '피아~ㄹ 락' 등으로 불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뻘아 디악'과 '뻘오 디오'는 모음조화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중국어 발음이기 보다는 알타이어에 가까운 음차가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피아~ㄹ 락'은 알타이어 Pialag. 즉 성채, 마을, 주거지를 뜻하는 발음과 일치합니다.

만일 이러한 발음들이 중세 중국어나 현재 우리가 발음하는 한국어에 대응해 본다면 '평양'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위의 음들을 빠르게 발음해 보시기 바람)
(사실 '평양'은 고조선에서 나중에 등장한 지명이죠)

아울러

뻘아 디악 ==> 뻘아 디아 ==> 뻘아 리아 ==> (1) 뻘리 (2) 뻘라
를 통해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 72개국의 수많은 '비리'국들 (난비리, 초산도 비

리 등등..)

이 어쩌면 '부여'의 옛 상고음을 딴 나라들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조선(朝鮮)의 옛 발음은 어떠했을까요?

'쥬신'은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朝(조) : tieog (한자고금음휘) / tiog (칼그렌) / tiaw(중국상고음)

그런데 鮮(선)에대한 자료는 없어서 다른 자료를 참조합니다. (스타로스틴)

선(鮮)

Modern (Beijing) reading: xian 1

Middle Chinese reading: sjen

Old Chinese reading: shar ==> 고대 상고음은 '샤르'

다시말해 조선의 옛 음가는 '티억샤르' / '티옥샤르' / '티아샤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티억,티옥의 'ㄱ'음이 흔히 탈락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조선의 평균적인 재구음은 "테샤르" / '타샤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스타로스틴에 의하면 (朝의 상고음은 'thewer')

문제는 이 발음이 조선이 스스로 자신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인들이 붙힌 이름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입니다.

환단고기는 '조선'을 스스로 일컫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인들은 우리 선조들이 '테샤르'/타샤르라고 그 당시 불렀던 이름을 들어서 기록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테샤르/타샤르'..그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었을까요?

어쨌든.. 조선이라는 옛 음가는 '쥬신'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했던 말일까요?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Ghost (2005-07-08 07:19:31)

제가 듣기로는 "여진"이라는 한자가 "쥬신"이라는 음에 가장 가깝게 나온다 들었습니다. ^^
사실, 쥬신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데, 우리나라에도 쥬신을 이름으로 하는 클럽이 있고,
일본에도 쥬신을 이름으로 하는 클럽이 있지요.
우리는 축구클럽이었나 그렇고, 일본은 뭐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군요.

마루 (2005-07-08 14:18:18)

평양의 옛 발음이 '페라' 라고 단재 신채호선생이 주장했죠. 페라와 윗 글의 '피아~ㄹ 락'
은 흡사하군요.

홍승희 (2005-07-08 21:36:40)

김산호님은 쥬신을 천산산맥의 천산으로 보네요. 그리고 만주족들이 부르던 만주의 옛 이름
가운데 쥬신이 있고 이는 여진을 그렇게 읽었다는데 그보다는 숙신을 그리 읽었다고 봐야
더 그럴싸 해 보이네요. 원래 만주족들이 만주를 부르는 이름은 서너가지가 있었다고 합니
다. 이는 아마도 고조선 연방의 붕괴후 난립했던 열국시대의 국명들이 남아 사용된 것이 아
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뉘어 불려지던 이름이 청왕조가 들어서고 청 태종때 명칭을 통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홍승희 (2005-07-08 21:37:37)

(수정)아, 만주족들의 경우 쥬신이 아니라 쥬션으로 발음됐답니다.

쥬 신 (2005-07-09 05:38:59)

김산호 화백 대조선 제국사에서 쥬신의 이두식 한문 표기는 조선,숙신,주리진,주신 등이다.
숙신,읍루,물갈,말갈,여진,만주 등의 민족 이름들은 모두 쥬신족과 동일한 배달 민족이다.

숙신 : 쥬신의 이두식 표기로서, 그 발음은 여전히 쥬신이다.(현재 중국인들은 쑤우신으로 발음)

여진 : 쥬신의 이두식 표기로, 본래는 주리진이다. 현재 중국인들은 뉴우신으로 발음

솔본 (2005-07-10 03:17:38)

김산호 화백은 잘 몰랐던 것이 겠지요..
역사와 판타지는 다른 것입니다.

쥬신의 이두식 한문표기가 조선,숙신,주리진?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둔 것일까요?
제가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이지요..

역사를 살펴볼 때는 냉정해야합니다.
환타지로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

한민족의 비밀은 한자의 옛 발음속에 있다.

한민족의 비밀은 한자의 옛 발음속에 있다.

언어와 문자는 그것을 함께 사용하는 집단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묶어 준다.

이러한 문화공동체는 정치 공동체의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또한, 중국의 가장 가까운 주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동체로 묶여지지 않아 왔다.

그것은 서로간에 말과 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말과 글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말이 있는 다음에 문자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예를들어 '바람'이라는 말이 있는 후에 '風'이란 글자가 쓰여졌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상황과 마주한다.

우리 말 '바람'을 한자로 쓰면 風인데 중국어로는 '펑'(feong)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과 훈을 붙여서 바람 '풍'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風이라는 한자의 고대음가는 현대 중국어 '펑'(feong)이 아니라 '프람' / '퍼럼' 등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

Character: 風

Modern (Beijing) reading: feng 1

Middle Chinese reading: pu"n|

Old Chinese reading: pr@m => 고대 중국어 발음

Dialects:

Sino-Tibetan:

Translation: wind

Comments: Also read *pr@m-s, MC pu"n| (FQ), Pek. feng 'to criticize'.

Number in GSR: 0625 h-i

- 스타로스틴, Chinese Etymology-

=====

위의 자료는 북경대와 대만대 연구진이 참여한 모스크바대학 스타로스틴교수의 '바벨 프로젝트'

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나'를 의미 하는 我는 중국어로 워(wo)이지만 고대 중국어 음가는 '나' nah였다. 또한 너(ou)를 뜻하는 이 爾 (너 이)는 중국어로 니(ni)이고 고대 발음은 네 (neh)였다.

Character: 我

Modern (Beijing) reading: wo 3

Middle Chinese reading: n|a^/

Old Chinese reading: n|ha:j? ==> 고대 중국어 발음

Dialects:

Shuowen gloss:

Sino-Tibetan:

Translation: I, we; my, our (inclusive, according to Yakhontov)

Comments: The form *n|ha:? (a later subjective/objective counterpart of) is still used very rarely during Early Zhou; several times there occurs also an emphatic form *n|ha:n| "I for my part". Initial *n|h- is suggested here by archaic Min forms: Chaozhou ua3, Jianou n|uoi8 // ue|8 (see ROCP 126).

Number in GSR: 0002 a-g

=====

Character: 爾

Modern (Beijing) reading: er 3

Middle Chinese reading: n/e/

Old Chinese reading: nhej? ==> 고대 중국어 발음

Shuowen gloss: .,*###.###,#####.. [128]

Sino-Tibetan:

Translation: you, your

Comments: One of the 2d person pronouns beginning in *nh- (cf. also *nh@:?, *nha?). For *nh- cf. Jianou ni8 (a colloquial form corresponding to MC n.y/, a late

dialectal variant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haracter, according to Shuowen, is 'good-looking', 'bright-looking' – attested only within the rather late compound (MC liej-n/e/) id.

Number in GSR: 0359 a-b

=====

뿌리를 뜻하는 本은 어떤가? 현대 중국어로는 '번'(ben)이지만 고대 발음은 '파르/퍼르'였다.

Character: 本

Modern (Beijing) reading: ben 3

Middle Chinese reading: po/n

Old Chinese reading: p@:r?

Vietnamese reading: ba`n

Dialects:

Sino-Tibetan:

Translation: root

Comments: Viet. also has a colloquial loan: vo^/n 'capital, funds, principal'.

Number in GSR: 0440 a

=====

자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예시한 경우는 정말 극 소수에 불과하다.

수많은 현대 중국어의 한자음의 고대음과 그리고 중세 음가는 한국어의 현재 중국어 한자음에 가깝다. 다시말해 한자음의 고대 원형의 음가는 한국어에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말'이 먼저 있던 뒤에 '문자'가 표현되었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위의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다시말해 '프람/퍼람'이라는 말이 있고 이 발음과 뜻에 대해 (風)자가 쓰여졌던 것이지만 현재 중국어 펑(feong)이라는 발음이 風에 처음부터 대응되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어 feong/ 風이 과거에는 pram/prem 이었는데 현재 바뀌어서 'feong' 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어진다.

다시말해 我는 과거에는 '나(nah)'였는데 지금은 워(wo)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風을 고대 발음 바람/퍼람(중세국어)이라고 하고 있고 本을 고대 발음인 뿌리/ 불휘(중세국어)로 하고 있으며 我를 고대발음인 '나'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자어의 고대 음가에 가장 가까운 발음은 우리 한국어의 한자식 발음뿐이다.

무슨 뜻인가?

한자는 처음부터 우리 한민족의 발음 음가에 맞추어서 표기되었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지금의 지나족의 음가에 한자의 발음이 대응되었던 것이 아니란 뜻이다.

지나인들은 我를 처음부터 워(wo)로 발음했고 우리는 '나'(nah)로 발음했으며
風을 지나인들은 처음부터 평(feong)이라 발음할 때 우리는 프람(pram)이라고 했으며
本을 지나인들이 번(ben)이라고 할 때 우리는 '파르'(뿌리)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중국어 '나'가 '워'로 바뀌었는지 '프람'이 '푼'으로 바뀌었는지
'파르'가 '번'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한자어의 음가변천을 설명하는 글은 단 한편도 보지 못했다.

영어 One의 고대음가가 '오네', 아나(ana)라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가의 변화가 앵글로색슨족 스스로가 변화시킨 것으로 보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를 뜻하는 One을 오네, 아나로 발음했던 것은 아리안인과 그 영향을
받은 켈트족이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켈트족이 색슨족에게 밀리면서 '아나'는 색슨족의 사투리 '원'에 자리를 내 주었을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발견된다.

러시아에서 하나를 뜻하는 'odin'을 '아진'이라고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오딘'이라고
발음하면 촌놈취급을 받는다. 사투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딘'은 켈트족의 위대한 신의 이름이었고 first, One을 뜻했던 Odin 그 발음의 고
어는
그대로 '오딘'이었다.

러시아에서 켈트문화의 영향이 쇠퇴하고 슬라브문화권이 들어서면서 거꾸로 Odin의 사투리
'아진'이 표준발음이 되었을 뿐이다.

자 이제 정리해 보자.

나(I)를 의미하는 한자 我의 고대 음가는 '나(nah)'였다. 이것이 표준음이었었고
현재 지나인들의 '워'(wo)는 그 당시 사투리였을 것이다.

다시말해 고대 중국의 세력중심은 지금의 지나족에게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我를 당시 고대음 '나'로 그대로 발음하는 민족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 뿐이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자어의 고대발음이 지금 우리의 발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환 桓이 과거에는 '환/한'이 아니라 '아르'/와르였다는
사실과 朝鮮의 발음이 쥬신이 아니라 '떼(테)샤르/ 따(타)샤르'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박혁거세'의 혁거세 발음이 '카(하)슬라'였고 '거서간'의 발음이 ' 카자르-칸'이었다는 사실
을
주목해서 이것이 무엇을 뜻했던 이름인지 전면 재고해야 한다.

桓(환)은 결코 환하다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옛 고음 '아르'에서 온것이고
檀(단)의 고음은 지금과 같은 '단/탄'이었다.

따라서 환단은 '아르탄/아르탄'이 맞는 발음이다.

그리고 그 발음은 바로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의 먼 고향으로 늘 그리워 하며 점토판에 기록
한
황금의 나라 '아르타'(artta)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이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산들바람 (2005-07-13 23:17:09)

우와.....대단 하십니다...

영 (2005-07-13 23:35:41)

솔본님이 연구하신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여러 연구 성과가 책이 되어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다른 나라 학자도 읽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고대사산책 (2005-07-13 23:58:43)

공감하면서 유사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어에 '철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어로서 한자와는 무관한 말로 생각하기 쉬우나 산책이 보기에 한자로 된 말이다. 제대로 표기하면 '흄이 없다'로 본다. '밝을 흄'인데 원래 의미는 '賢明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지혜/슬기'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지혜는 나이가 들고 세상경험을 쌓으면서 세상이치에 밝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흄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歲根이 없다'라고도 하는 것이다.

즉 '흄=슬기[智慧]=賢明=歲根'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한자말이 순수한어처럼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었을까?

답은, 이 말이 하복/산동성을 선주지로 하는 진한인들의 진한어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가 또 있다. '동이 트다'는 말이 있다. 아침이 밝아온다. 동쪽하늘이 밝아온다는 뜻이다. 이 말도 한자와는 무관한 순수한어로 보기 쉬우나 역시 한자어다. 표기하면 '東이 트다'는 말이다. 고어에 東을 '아침'의 뜻으로 쓴 사례가 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아즈마[東]는 한어 '아침'이란 말이다. 이 역시 진한어로 보아야 한다.

솔본 (2005-07-14 00:44:39)

고대사산책/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환하다의 喚(환) / 때리다의 打 / 가다의 去 / 체하다의 滯 등등..

조으니 (2005-07-14 02:50:56)

제대로된 어문학 연구를 보는군요. 솔본님 감사합니다!

솔본님 글들을 보고있으면 왠지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솔본님 전공이 어문학이신지요? 고어문관련 지식이 깊으신듯 한데,
기회가 된다면 귀동냥이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고대 언어는 어떤방법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옥편 설문 음운 등의 서적연구로는 아마 한계에 부딪칠것인데.

sumer (2005-07-14 11:24:53)

솔본님 견해에 동감입니다.

乃建都于太白山西南 '牛首河之原' 曰壬儉城今滿洲吉林之地有蘇密城在於之南此即其地也...蓋蘇密涑沫粟末皆與牛首之意相近... (규원사화-북해자-단군기).

위 내용중 蘇密(소밀), 涑沫(속말), 粟末(속말)은 모두 우수(牛首)와 뜻이 서로 가깝다(비슷하다)

북해자께서도 우수(牛首 : 소머리)가 곧 소밀, 속말과 뜻이 비슷하다고 하셨군요. 발음대로 하면"수메르"가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북부여의 왕 해부루는 hebrew(유대인?), 해모수(mose?), 고구려 동명성왕 고주몽의 왕비 소서노(susana?), 박혁거세(heracles?), 가야금을 만든 우륵(수메르 고대도시 uruk출신 후예?)

"배달민족" 혹시 아부라함이 건설한 고대도시 bethel이 있지요.(beth:house)+el(god),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유대인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때, 베델시 출신들이 집단으로 다시 옛 선조들의 땅(수메르 문명은 동이족이 일으켰다?)으로 찾아와서 우리 고대 국가건설에 참여한 것은 아닐까요?

전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만들어 졌다고 하던데. 해모수(모세)가 오룡거를 타고 다녔다지요?

고대 우리선조님 이름들은 하필 서양식으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수메르와 관련이 있을런지...

고대사산책 (2005-07-14 13:40:50)

해모수는 천제(천제) 또는 천자(天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일신을 뜻하는 겁니다.

천제(천신)=일신(태양신)

천자=천제(일신)의 자=일자(日子)

오룡거(五龍車)의 오룡은 태양을 상징하는 원 바깥에 수레바퀴 같은 화염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가야에서는 파형문양(巴形紋樣)으로 나타나 있지요. 파형문양은 일신의 상징임. 태양의 화염을 용으로 비유한 겁니다.

사람이 타고다니는 수레가 아니예요. 해모수의 오룡거나 가야의 파형문양은 "한낮의 작열하는 태양을 상형한 것"임. 그 오룡거에 타고 있는 것은? "삼족오=태양흑점"이지요. 그래서 까마귀가 '태양=천신(일신)'의 상징이고 제왕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일본의 국기 중에서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라는 것이 있는데 가운데 태양을 그리고 가에는 빨간색 직선의 부채살 모양을 그린 것이지요. 이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 그림이에요. 욱(旭)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본 뜬 것인데 음도 '아사히[旭]'지요. '아사히[朝日]'와 같습니다.

'旭=旭日=朝日'임.

홍승희 (2005-07-14 16:41:20)

참 대단하시네요. 환이 알르, 알이었다는 말씀. 단은 후에 우리 말에서는 땅, 터로 새끼치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는 탄, 타 등으로 바뀌거나 새끼치기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국명의 ~스탄 등이 ~의 땅이라는 의미라지요. 그리고 아사달의 달 역시 땅을 의미한다는데 실제 발음은 지금과는 좀 달랐을 테지요.

역사탐방 (2005-07-14 19:23:11)

환 - 아르, 와르. 혁거세 - 카(하)슬라. 거서간 - 카자르칸으로 변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람풍은 푸~으 하고 부니까 풍이 된 것 같은데

솔본 (2005-07-14 22:03:56)

桓= 아르/와르, 혁거세= 카(하)슬라. 거서간= 카자르칸 등은 모스크바 대학의 스타로스틴교수와

북경대, 대만대가 공동연구한 한자의 옛음 재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조합한 것입니다.

스타로스틴교수의 바벨 프로젝트는 알타이어,셈어,인도유럽어, 코이산어 등 세계 각 어군의 프로토타입을 비교연구한 것으로서 미국의 펜실바니아대학과 공동 연구중이고 조지 소로스펀드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식 (2005-07-14 23:05:21)

글 잘읽었습니다. 재미있고 좋은 글이네요.

역사탐방 (2005-07-15 00:01:22)

아르는 알이고, 하슬라는 대구의 하빈과 비슬을 나타낸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환국은 알나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하슬라주가 대구입니다. 답변감
사합니다.

카마신 (2005-07-27 16:37:03)

환 - 아르 - _ -,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 허허허 재밌네요.

텃날개 (2005-07-27 17:30:50)

좋은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읽혀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복 (2005-07-31 20:18:23)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 글을 올려도 될까요?

설치국 (2005-09-02 07:02:24)

늑으막에 좋은 공부하네요.

이희석 (2006-10-05 05:03:29)

역시 한자는 훈으로 읽어야돼. 괜히 음으로 읽으면 중국말처럼 되버린다니깐. ㅋㅋ

<>

한민족의 비밀은 한자의 옛 발음속에 있다.

"한민족의 비밀은 한자의 옛 발음속에 있다."

아주 정곡을 집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항상 한자음이 왜 중국, 한국, 일본이 서로 다른지 궁금해 하고, 그 속에 무엇인가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솔본님이 든 예를 보더라도,

"風" 을 "바람 풍"으로 읽는 우리나라,

"風"이라고 쓰고서는 "かぜ(가제)" 라 읽기도 하고 "ふう(후-)"라고 읽기도 하는 일본,

그리고 "風"을 "feong/feng(평)" [고대에는 "pu"n|/pr@m(프람/퍼럼)"]으로 읽는 중국,

음독과 훈독이 다른 일본인들은 그저 "吳音과 唐音" 또는 "지방마다 다른 사투리의 차이" 정도로 얼버무리지만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발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어떤 다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풍습, 언어 포함)는 그 발생지보다 전파된 주변에 더 그 원형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을 상기해 보면 한자 발음의 연구를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고대역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 수메르와의 관계처럼 너무 오래되어 불확실하거나 비논리적인 내용을 내세우면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동아시아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본님의 의견을 접하고 보니 뭔가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다듬고 보완해서 우리역사의 복원연구에 여러사람들이 인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많이 배우면서 성원하겠습니다.

건필하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정리해서 책으로 내시길 권합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은 동이겨레 桓族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역사의 내용 가운데는 이미 학계에서 주장이 바뀌었음에도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여러 사실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토기와 관련된 사항이다.

흔히 빗살무늬토기로 알려진 그릇은 인류가 최초로 흙을 굽거나 말려 만든 도구이다.

지금으로 부터 1만2천년전에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릇의 출현은 바로 농경과 정착문화의 시작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빗살무늬 토기, 흔히 '구토기'가 처음 출현한 곳은 다름아닌 송화강 하류유역과 일본 큐우슈우지역이다.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아울러 '환동해권 문화'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 한반도의 오산리에서 발굴된 토기는 B.C 6000년전으로 소급된다. 아울러 만주와 발해만에서 발굴되는 토기 또한 '환발해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인류문명의 여명을 열었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토기가 아예 출현하고 있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지역의 레반트문화는 크게 '그릇 없는 신석기 유적' (Pre Pottery Neolithic site)과 '그릇있는 신석기 유적' (Pottery Neolithic site)으로 나눈다.

PN 사이트,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 출현하는 시기가 BC 4,000년 후반부이다. 동아시아보다 무려 4~5천년이나 늦은 시기이다.

인류문명의 여명을 열었다는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수메르에서 토기가 우리보다 늦게 나타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은 인류의 정착문화와 그에 따르는 농경문화의 전파가 서에서 동으로가 아니라 동에서 서로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동아시아의 '그릇'이 극동의 환발해권 문화공동체와 환동해문화권 공동체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지역으로 전파되었다면 이 '그릇'들을 일컫는 말도 함께 전파되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자.

다음은 그릇과 관련된 수메르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썸어를 나열한 것이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우리말에 대응하는 단어를 붙혀 보시기 바란다.

수메르어 출처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ePSD 프로젝트가운데 'Sumerian Etymology'에서
발췌한 것이며 썸어와 히브리어는 러시아 모스크바대학의 Sergey Starostin 박사의
'Semitic Etymology'에서 발췌한 것이다.

[수메르어]

1. Dug '독' : Clay Pot (흙으로 빚은 단지)==> 우리말 대응어는?
2. gullat '굴랏/굴라트' : bowl ==> 우리말 대응어는?
3. Shid '쉴' : Pot ==> 우리말 대응어는?
4. zabar '자발' : a metal bowl ==> 우리말 대응어는?
5. arah '아라흐' : storage vessel ==> 우리말 대응어는?
6. bar/bur/bahar '바르'/부르/'바하르' : bowl => 우리말 대응어는?

[썸어 : 아카드어, 히브리어, 아랍어]

1. parru '파루'(히브리어) : pot => 우리말은?
2. zirr '찌르' (아랍어, 썸어공통) : a big pot => 우리말 대응어는?
3. ubun '우분' (썸어 공통) : a vessel ==> 우리말 대응어는?
4. garrat '가랏'(아랍어) : jug ==> 우리말 대응어는?
5. qadra/qedra/qidr '카드라'/'케드라'/키들 : a earthenware => 우리말?

참고 : c[^]q'wa- '슈과알' : spoon : 코카서스어 => 우리말은?

che q'wa- '처과알' : chop stick : 위구르어 => 우리말은?

일단 수메르어 'dug' 이 흙으로 만든 단지 (clay pot)라는 점에서 우리말 '독'과
직접 대응한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논증했지만 수메르에 토기가 등장한 것은 b.c4천년 후반기이고 우리는 b.c6000년 이상

이다. 환동해권과 환발해권을 아우르면 1만년 이상 소급된다.

b.c4000년경에 수메르가 현재와 같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면 흙으로 만든 수메르의 단지 '독'(dug)이 우리에게 건너와 '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다시말해 일본의 '꼼뽀타'가 미국의 '컴퓨터'의 시조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위의 나열한 그릇관련 단어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어가 있다면 그것은 동이겨레의 토기문명이 메소포타미아로 전파되었고 그것이 사람과 기술이 함께 건너갔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홍승희 (2005-07-20 23:56:11)

독/독, 굴랏/그릇? 짜발/사발, 쉼/접시? 파루/바루? 우분/오봉? 슈과알/숫갈, 처과알/젓갈-> 젓가락, 바르/주발? ㅎㅎㅎ

슈메르의 언어도 우리말과의 친연성이 높다면서요? 교착어로. 그리고 검은 머리 사람들, 순장의 풍습 등 우리 상고대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다 슈메르인 자체가 그들 영토의 북방 산악 지대에서 왔다고 하고...

슈메르/수밀이/소머리...설도 있고.

산들바람 (2005-07-21 00:03:13)

독 > 장독

장독은 흙으로 만드는거는 다들 아실테죠??

갈천지어 (2005-07-21 01:23:28)

저는 술본님께 따지 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나왔다는 것이 재야에 빛이 죠. 그런데 아래에서 "민간연구"라 함, 그것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많은 음모들이 민간이라는, 자유라는,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죠.

아울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기를 조율해 볼때, 어느 누군가의 연구성과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 패거리 이익에 동조하지 않는 대쪽같은 사람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아느니 만치 먼저 떠돌고 나서서 마치 우리가 그자에 앞선 선구자인양 행세하자. 봐라, 우리는 그 자의 선생이다. 어차피 그의 연구가 발표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훼방함으로써 시간을 질질 끌게 하고 있다. 어떠냐 우리의 조직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공작범죄들이,,,

꽤 씩한...

신의 징벌은 피해가지 아니하리니,,,

갈천지어 (2005-07-21 02:37:57)

솔본님께 음모론을 제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본디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은 이미 유태계 학자들에 의해 오래전에 밝혀진 바요, 그래서 IMF가 그들의 음모로 일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상 IMF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 또 외국 지도자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음모가 드러날만한 수메르어와 한국의 천연성 운운이 이렇게 공개적이고 학술적 자료에 근거한 것 마냥 (미안합니다만 저도 자료의 출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훼방이 없이 논의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하답니다.

우롱차 (2005-07-21 16:19:28)

어떤 분은 이런식의 글을 사이비 비교언어학이라고 부르더군요.

사실 수메르인의 언어의 발음에 대한 정확한 음가는 알 수 없다가 맞을 겁니다.

사실 발음기호 보고 제대로 그 음을 읽어내는 한국사람 되게 드물죠. 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나는 잘 모르니,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인데, 좋지는 않습니다.

또하나, 이글은 상당한 심리적인 테크닉이 들어간 글인데요.

분석을 하자면, 민족의 우수성을 확신하고 그러한 말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주인공이 한족이다라는 제목은 가히 파괴적이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실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연관관계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음에도, 이글을 추천까지 한다는 점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해독으로 보여집니다.

갈천지어님의 음모론도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문제는 음모의 목적과 투자대비 효과인데요. 갈천지어님의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초기에는 보이지 않던, 움직임이 최근에 활발해지기 시작해야 말이 성립되는데, 그러한 증빙자료가 있는가요?

이 사이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음모가 시작되어야 말이 될 것 같군요.

하여간 이런생각 저런 생각이 그냥 한때의 망상이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음모일 경우는 여러분은 그저 실험쥐처럼, 열심히 역할을 한게 되겠군요.

우롱차 (2005-07-21 16:37:26)

이글을 분석하자면, 자극적으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을 민족의 우수성을 밝히는 글이라는 기대감에 들뜨게 만들어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노력을 상쇄시키는 제목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은 동이겨레 桓族이다." 와 멋진 제목이군요. 가히 파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4대문명의 주인공이 우리나라인이라니....물론 글쓰이는 우리민족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환족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이 이유는 이후에 나올 본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본문은 크게, 토기의 출토연대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선다는 주장보다는 메소포타미아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인도등의 토기는 우리나라와 연대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수메르문명과 동시대의 문명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4대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몇몇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토기 얘기를 하다가 말 얘기가 나옵니다.

수메르너,아카드어,히브리어,아랍어등을 예로 들고 비슷한 발음이 우리나라말에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이런내용, 즉, 우리말과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글은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것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이 누구냐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증도 되고 있지 않죠.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자면,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글이 도매금으로 이런글처럼 매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학자가 이글의 부당성을 들어 재야사학의 모든 글들이 이처럼 선정적인 제목과 그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차다고 주장하면, 어느누가 제대로된 답변을 할지 궁금하군요.

사실 저는 이글의 제목과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글을 올리는 중입니다.

솔본 (2005-07-21 16:50:19)

우롱차/

수메르어의 음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메르어의 음가는 아카드어와 병행표기된 점토판의 기록들로 인해 그 음가가 모두 밝혀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가 인용한 수메르어는 펜실바니아 대학의 연구결과입니다.

인도의 토기가 우리와 비슷하게 나온다구요?

예를 들어 보시죠.. 인도에서 BC 6천년경의 토기가 있나요?

사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무슨 까닭인가요?

우롱차 (2005-07-21 17:14:16)

솔본/

마치 제가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올리셨는데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민족이 세계문명의 시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글을 올리려고 본문을 썼거든요. 역시 달인 답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인도에서 bc6000년경의 토기가 발굴되었다는 것은 역사상식입니다. 다만, 그 진위여부는 제 능력밖의 일입니다. 고증해드릴수가 없군요. 검색창에서, 토기등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아카드어의 음가는 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겠군요. 하여간, 수메르인이 상투를 틀었고, 황인종이며, 언어가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점은, 상당부분 우리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는 수메르어나, 수메르문명만, 우리민족과 유사한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시 거의 모든 문명권이 우리민족의 영향력안에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솔본 (2005-07-21 17:57:03)

우롱차/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글에 맞는 제목을 추천해 주시죠.

桓族은 환단고기가 말하는 우리 민족의 시원입니다.
저는 환단고기의 모든 구절이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배경에 대한
오랜 전승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역사의 문명이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면 저는 그 수메르 문명의 기원에
우리 동이겨레 환족의 씨앗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寶溪 (2005-07-22 07:54:37)

솔본선생님 감사합니다.._()_ 날씨가 무덥습니다. 모쪼록 건강챙기세요.

sumer (2005-07-22 17:32:51)

고대 민족이동을 추정하는 것은 남겨진 문헌, 유물, 언어와 풍속 등이 아닌가요?
문헌과 유물못지 않게 언어와 풍습은 중요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수메르어와 우리 언어가 비슷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밝혀 보는게 학문을 하는 태도가 아닐
까요?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을 유대인이 먼저 밝혔다면, 한국어를 더 잘 아는 우리도 그 진
실성여부와 더 진보된 연구결과를 내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메르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소개하는 솔본님의 연구는 매우 가치있다고 봅니다.

역사탐방 (2005-07-25 07:13:47)

솔본님 댓글에 민감반응하지 마세요. 솔본님의 주장을 또한 굽히지 마세요. 화이팅하세요!

<>

김한수님에게.. 한자의 옛음가에 대한 설명과 출처

말에 김한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설명은 다른 분들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자료는 1990년 후반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비교언어학자인 세르게이 스타로스틴 박사와 미국의 산타페 고등연구소 그리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철학부(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Dept. of History and Philology) 홍콩의 Th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등이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비교역사언어 자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 주요 어족의 어휘를 비교하여 그 원형 (proto type)을 재구하는 작업입니다.

연구를 총괄 진행하는 세르게이 사로스틴박사는 코카서스언어와 노스트라틱어의 비교연구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언어학자입니다.

한자어의 고대음가는 홍콩대학과 중국 복단대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옛 상고시대의 한자음이 현재의 중국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설문해자와 기타 고문서의 주해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한자로 된 문집은 해석을 하다보면 종종 뜻이 통하지 않는 글자들이 문맥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소리가 같으면 바꾸어 쓸 수있다는 관습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대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왕니엔쑤같은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무릇 雙聲의 글자는 소리에 따라 뜻을 아는 것인데 소리에서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글자에서 뜻을 구하면 당연히 그 말하는 것은 대부분 억지로 갖다 붙힌 것이다"

왕니엔쑤 (王念孫) / 廣雅疏證

참고로 한 예를 보십시오.

한자를 일컫는 한자의 漢의 현대 중국어 발음은 한(han)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설문해자에서 漢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漾也...從水難省聲."

=> 강을 뜻한다. '수난성'의 음을 따른다.

漢은 원래 강의 지명입니다. 漢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漢의 발음은 水자와 難자와 省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반절음을 응용해 보면 s-n-ang /s-n-an이라고 재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어의 고대음에 끝음가의 'ㅇ'이나 'ㄴ'음은 흔히 '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漢은 s-nar (스나르)였다고 그 보편적인 원형을 재구하는 것입니다.

상고시대에 漢의 음가는 결코 '한'han'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Character: 漢

Modern (Beijing) reading: han 4

Middle Chinese reading: xaⁿ

Old Chinese reading: sɲār-s

Vietnamese reading: han

Translation: the Han river; Han river in the sky; the Milky Way

Number in GSR: 0144 c

=====

그러면 韓과 漢의 옛 음가를 비교해 봅시다.

Character: 韓

Modern (Beijing) reading: han 2

Middle Chinese reading: g|aⁿ

Old Chinese reading: g(h)a:r ==> 가르

Vietnamese reading: haWn

Translation: name of a county [L.Zhou]

Comments: Shuowen glosses the character as 'wall of a well', but there are no text examples for this meaning.

Number in GSR: 0140 h-i

=====

재구된 韓의 옛음은 '한'이 아니라 '가르'입니다. 중세 발음은 '글란'입니다.
이것은 '韓'의 발음의 'ㅎ'음이 'ㄱ'음으로 나는 것은 반절음에서 초두음 '胡'가 '曷'과
통했다는 근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胡는 옛음이 '고/ 코'였다는 것이지요.

漢의 옛음이 '스나르' 이고 韓의 옛음이 '가르' (모음조화를 적용하면 '가라')였다는
것은 지나인과 우리 한겨레간에 분명한 자기 인식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르게이 박사팀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인다면 韓이 '가라' 또는 가야가 되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세음이 '글란'(glan)이었다는 점은 거란족과 우리 겨레
간의 공통적 뿌리를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특히 漢의 옛고음이 '스나르'였다는 것은 중국인이 '지나'라고 자신들을
지칭했던 근거가 아닌가 합니다.

즉 지나(스나르) 漢과 가르(겨레)韓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원 최초의 국가라는 夏와 동이국가 殷의 고대음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르게이 사로스틴 연구팀에 의하면 夏의 옛음은 '가르/가' 였고 殷의 옛음은 '아르'(@r)
입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우롱차 (2005-07-21 16:48:51)

솔본님이 글중에서 가장 제대로된 글 같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빠지고 결론 부분만을 인용
하였기는 하지만, 어떤 한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자세로는 모범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러시
아 학자의 연구가 맞던 안맞던, 우리나라에는 이미 세계의 언어가 바로 한민족의 말에서 갈
라져 나왔다는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시지요.

저는 이분과는 상관없지만, 가보시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www.hanja.co.kr (박대중 선생님의 개인사이트), 이 사이트의 링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님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솔본 (2005-07-21 16:55:29)

상당히 우롱당하는 기분이군요..

고대사산책 (2005-07-21 17:13:36)

韓, 夏, 胡 등의 고어 음가를 보니 일어 생각이 납니다.

일어 가라[韓], 가[夏], 고[胡] 등이고 고[湖], 가와[河] 등이지요. 일어는 가야어(진한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말이고(가야의 열도개척과 대화왕조로 인해). 지금의 한어에서 히읏음이 일어에서는 기억음으로 나고 있는 것이 많네요.

한어와의 특징적인 차이는 '한어>복모음과 종성이 발달했다', '일어>복모음이 적고 종성이 없다시피 하다' 라는 점 때문에 한어가 고어로부터 훨씬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일어는 음이 한어에 비해 고어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변했다고 할 수 있다는 점.

결국 일어의 음이 한어보다는 한자의 고어 음가에 가까울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어도 같이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각도에서 연구한 다른 분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일어 음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도...

思無不通 (2005-07-21 17:25:23)

솔본님

여러가지 친절 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 곳(우리역사의 비밀)을 찾는 분 중에 "솔본"님의 글을 읽기 위해 찾아 온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과 뿌리를 찾아 고군분투하시는
솔본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의 설명 중의 한(韓)에 관한 원문 중에서 "wall of a well" 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 오는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솔본 (2005-07-21 17:49:33)

思無不通/

일천할 뿐입니다..

언제 서로의 연구들을 함께 모아 토론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韓이 과거에 "wall of well" 다시말해 '우물벽?'의 뜻이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에도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텍스트는 없다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코멘트를 단 것을 보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가봅니다.

우물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라....

고대사산책 (2005-07-21 18:13:07)

사무불통님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wall of a well'은 단순히 보면 '우물[井]의 담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 우물이 신라(진한)의 건국신화에서 굉장히 중요시되어 혁거세신화, 알영설화, 탈해설화, 알지설화 등에서 왕조의 상징으로 구사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물물은 왕권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고...

혁거세>나정, 알영>알영정, 탈해>요정, 알지>계정 등인데 이 우물이 실사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양신의 으뜸은 태양신 즉 일신(천신)이고 음신의 으뜸은 지기(地祇)인데 지기를 의인화하면 여신(大地의)이 되고 이 여신의 음(陰)을 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여신은 국토신(國土神)이예요. 혁거세신화에서 지기를 의인화하여 신격화하면 선도성모가 되고 다시 이를 인격화하면 알영이 되는 겁니다.

즉 천신과 선도성모가 대응되고 천신의 자인 천자 즉 혁거세에 대응되는 왕비는 알영이란 뜻인데 알영은 실존인물이 아니고 영토를 의인화한 인물이에요. 혼인한 후에는 영토통치권 즉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고대신화설화에서 '천신+지기=알'의 구도인데 알은 왕조의 상징이에요. 알이란 고대 음양사상에서 천신과 지기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지상에 내려보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곧 고대왕조사상에서 나온 '알=왕조'란 것이지요. 이 알에서 태어난 인물은 그 왕국의 시조라는 것이고....

"왕국성립=시조(지배층 포함)+백성(피지배층)+국토(통치영역/왕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인데 고대건국신화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신화설화예요. 신라의 지배층이라면 6부의 조들과 그 자제들이지요.

신라의 나을신궁은 알려지기로는 시조신을 모신 신사라고 하는데 산책은 음신의 으뜸인 지기를 모신 신사라고 봅니다. 우물 자체가 지기를 의인화하여 신격화한 여신의 '陰'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신라의 '나정(蘿井)'은 '여정(女井)=여음(女陰)'을 상징한 것인데 그것을 현실에서 구체화한 것이 나을신궁의 우물입니다(경주에 이 유적이 있다고...).

// (위의 내용들은 산책의 책 2권에 있음)

이런 의미에서 '우물의 담장'을 생각해보면 크게 볼 때는 1) '국토(왕권이 미치는 범위)'로도 볼 수 있고 좁게는 2) "지기를 모신 신사의 담장"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컨대 신라라면 나을신궁의 담장(신궁 안에 우물이 있음)이지요.

어느 쪽이든 의미는 국토를 의미하게 됩니다. 상징적이냐 현실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따라서 우물은 달리 표현하면 '나라[國]'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본님에 대한 사무불통님의 질문을 보고 생각이 나서 적어본 건데 엉뚱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우물 井'자는 고대에 일정 면적의 땅을 나타내는 단위였다고도 하던데...이건 잘 모르겠고요...

思無不通 (2005-07-21 18:28:28)

솔본님, 고대사산책님/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식 (2005-07-21 18:30:44)

'우물 井'자가 세겨진
고구려 유물이 많다는데,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037968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고대사산책 (2005-07-21 18:37:13)

국토가 확장되면 되는 대로 井자가 새겨진 토기를 쓰게 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임을 나타내는 표시인가?

홍승희 (2005-07-21 23:01:38)

井자가 들어간 고구려 유물은 광개토대왕 대의 표식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구신 (2005-07-21 23:08:27)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井 자가 표시된 기와에 관한 TV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아주 흐릿흐릿하게 납니다.

어떤 나라의 기와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홍승희 (2005-07-21 23:10:35)

고구려 유물은 맞다고 확신하는데... 그래서 그 때 서울 어떤 유적지가 한성백제 유적이냐 고구려 유적이냐를 논하는데 결정적으로 고구려설을 지지하는 이유가 됐던 것 같고.

하나 (2005-07-22 01:43:30)

한의 음가가 변했다는 말은 곧, 그곳의 주 지배계층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배계층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중국어는 청나라때의 성조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말이 지배계층에 따라, 수시로 변해 왔음을 뜻합니다.

한자음의 변화라기 보다는 지배계층의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서구인들이나, 솔본님의 경우에는 한자의 발음주체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전제하에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 사이트의 주장을 볼때,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중국역사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명멸했는데, 민족에 따라서, 훈독을 한 민족도 있을 것이고, 음독을 한 민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조는 어땠을 까요? 현대 중국어 한자 발음이 우리나라 한자 발음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맞다면, 음독을 한 케이스겠군요.

고대에는 훈독을 하기도 하였나 봅니다.

<>

우룡차님에게 - 사이비언어학과 비교언어학은 다릅니다

어휘를 비교연구하는 것은 사이비언어학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과학적이나 그렇지 않으냐하는 것이지요.

대중연구소의 방식은 엉터리입니다.
저를 그런 곳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의 비교언어자료는 신뢰할 만한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에서 흙으로 빚은 단지를 dug으로 불렀다는 것은
학자들이 아카드어를 통해 그 발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그릇을 'zabar'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수메르어로 za/zu는 금속 특히 구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bar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수메르인들이 구리로 만든 그릇을 '짜발'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놋그릇을 '주발'이라고
하며 흙으로 만든 단지 'a clay pot'을 수메르인들이 독 dug이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독dog이라 합니다.

단지 (Pot)를 의미하는 수메르어 쉐(shid)와 우리말 솥 (sot)이 동족어(etymology)이고
a big Pot(큰 단지)을 아카드인들이 zziru (찌루)라고 할 때 우리가 '시루'(siru)라고
한다는 사실을 서양의 어느 고고학자가 알았다면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는
당연히 그것은 수메르 토기문화가 한국에 전파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동아시아의 토기문명이 수메르에
선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 일까요?

다시말해 b.c 4천년전에 수메르인들이 '독'이라고 부른 단지가 어느날 한국에 오자
그 보다 앞서 3~4천년동안 '거시기'라고 불려왔던 같은 물건의 이름을 '거시기'가 아닌 수
메르어
'독'으로 부르다가 잘 못해서 '독'이 되었다는 코미디같은 사실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비교언어학계에서 인도 유러피언어군의 실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데
인도 유럽어라는 어군의 발견도 저와 똑같은 작업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서구 고고학계와 비교언어학계의 뜨거운 논쟁은 바로 이 인도 유러피언의 조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일컬어 독일어로 인도유럽어파의 '우르 하이마트'(Ur-heimat)논쟁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날을 뜻하는 독일어 Ur와 고향을 뜻하는 heimat, 다시말해 '원초적 고향'의 문제입니다.

최근의 학설은 기존의 카스피해와 남러시아 기원의 서방기원설을 버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의 아시아 기원설이 더욱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도 유럽어파 (아리안)의 선조는 9천년전에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고고학적으로 주장하고 우리는 근거없이 그 반대라고 하고..
참...)

중앙아시아 쿠르간의 주인공들이 유전학적으로 몽골-유럽어파의 혼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재작년이었던 가요?

공부안하고 우기는 이들에게 당할 재간은 없지요...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소르본 (2005-07-21 19:31:53)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지니 쑥스럽구만요.

최선엽 (2005-07-22 09:25:29)

웃겨.. 지가 스스로 그렇게 바꿔놓고서는...

여기가 운영자님이 필명 정해서 나눠주는 곳입니까? 그런 헛소리가 나오게...

<>

[re]한번 보시죠..

책명: <나는 언어정복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책의 내용 일부;

한자는 우리 민족이 창제하였다.

하도

상당수 영단어는 한자의 음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박)'의

영어 book(책)의 어원인 bark(나무껍질)은 동방문자 '朴(나무껍질

는 영어와

자음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이다.(중요한 점은朴의 현대중국어음 '푸'

히

전혀 맞지 않은데, 이는 한자를 제작한 민족이 우리 조상들을 강력

증거하는 것이다.)

yearn(그리워하다)은 '戀(그리워할 연)'에서

dawn(새벽)은 '旦(새벽 단)'에서

you(너)는 '汝(너 여)'에서

young(젊은, 나이어린)은 '영계'할 때의 (나이어릴 영)에서

fee(요금)은 '費(요금 비)'에서

tox-(독)은 '毒(독)'에서

see(보다)는 '視(볼 시)'에서

犬(개

canine(개의), kennel(개집)에 들어있는 어근 can(개) 및 ken(개)는 '

견)'에서.

된소리

speak(말하다)는 自白(자백), 告白(고백) 등에 쓰이는 '白(말할 백)'의

'백'의

고음 'ㅅ백'에서.

park(공원, 머무르다)는 泊(배달 박)에서.

want(원하다)는 '願(원할 원)'의 자음 '원'에 분사어미 t가 붙은 것이

고,

thigh(넓적다리)는 '腿(넓적다리 퇴)'에서

geo-(땅, 지구, 지리)는 '地(땅 지)'에서

car(차)는 '車(수레 거)'에서

go(가다)는 '去(갈 거)'에서

cow(암소)는 '牛+古(암소 고)'에서
cell(세포, 작은 방)은 '室(실)'에서.

=====

이것은 주장이지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단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름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곰뽀타'와 영어 '컴퓨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위의 설명같이 want가 원할 원 (願)자의 분사어미 t?가 붙는다는 식이 아닙니다.

한자에 무슨 분사어미?

geo가 땅地자의 음가라면 geo의 원음이 게오 였고 地는 di였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cow가 페르시아어 saw에서 비롯되었고 그 음가가 '싸우'였다는 것은 몰랐을 테지요..

speak가 自百의 백이 된소리로 뻑해서 났다니.. 거의 자뻑 수준이군요..

개를 뜻하는 cani는 모든 개의 조상이 동아시아의 개임이 증명되었으니 일리는 있겠고..

you가 너여 汝에서 비롯되었다지만 애석하게도 그 고음은 니/네였지요..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하나 (2005-07-22 00:54:33)

모든 학문은 어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술본님이 소개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바벨 프로젝트도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박대중님의 글의 전체 즉, 숲을 보아야지, 작은 몇개의 흙결을 찾아서, 이러저러하다, 논하며, 전체가 옳지 못하다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듯합니다.

적어도 엉터리라고 말하려면, 주장의 대다수가 틀렸음을 증명해야 되지요.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방법과 다르면, 무조건 엉터리라고 주장한다면, 이세상에, 남아날 학문은 없을 것이며, 남아날 지식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든 수많은 논쟁이 있죠. 분명히 자연현상은 하나이지만, 학자에 따라, 혹은 방법에 따라서, 수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지요.

인간배아는 복제할 수 없다고 권위있는 학자가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본님이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대중연구소의 주장이 사실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의 음이 변한 이유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외부의 문화충격에서 변화 되었다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즉, 언어의 변화를 볼때, 당시의 정치사회문화민속등 전분야를 걸쳐서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 몇마디가지고, 비교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지요. 자만과 오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중합시다.

하나 (2005-07-22 01:06:34)

이상한 일은 you의 고어 발음이, 니/네와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여기 예에서는 빠졌지만, I와 我가 you의 예보다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they와 他도 가깝고.....

마루 (2005-07-28 02:00:18)

영계? 나이어릴 영 이라는 글자가 원지 당채 알수가 없네요..

웅스(강운기) (2006-05-06 02:46:03)

영계의 한자는 '연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영계로 발음하는 바람에 잘못된 발음을 표준으로 승격시켜준 희한한 경우에 속합니다.

ex) 석유황-석뉴황-성뉴황-성뉴왕-성뉴앙-성냥 : 석유황(돌로 된 유황)을 빨리 읽어서 발음대로 쓴 것인데, 한자 기준으로 보자면 명백히 잘못된 표기인 성냥이라는 단어를 표준어로 승격시켜 준 예입니다.

웅스(강운기) (2006-05-06 02:47:58)

영계(←軟鷄)[-계/-계][명사] 병아리와 큰 닭과의 중간 정도의 닭. 약병아리.

영계의 한자는 軟鷄입니다. 한자로는 연계가 맞습니다.

연'이라는 글자는

연-(軟)[접두사] 《빛깔을 뜻하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부드러운’·‘연한’·‘얇은’의 뜻을 나타냄.

¶연보라./연분홍.

바로 연보라빛 추억 어찌고 할 때 쓰는 그 '연'자 입니다.

이 연계를 모든 사람이 다 영계라고 발음하는 바람에 그냥 표준어 자리를 꺾치게 되었습니다.

<>

그릇을 뜻하는 수메르어, 아카드어,히브리어 원문자료 [펜실베니아 대학/Epsd]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dug [POT]

DUG: dug

ŠEŠ.IB.BI: dugx(BI)

1. (clay) pot

Akk. karpātu "(clay) pot".

See ETCSL: dug=pot.

==> 독

=====

Protoform: *zi:r-

Meaning: 'big vessel'

ARABIC: zi:r-

==> 시루

Protoform: *?ubun-

Meaning: 'vessel'

AKKADIAN: ubbunu

==> 오봉

Protoform: *parr-

Meaning: 'kind of vessel' 1, 'pot' 2

AKKADIAN: paru:tu 1

HEBREW: pa:rur 2

COMMENTS: Derivatives of *parr- in Akk and Hbr.

==> 발/바루 (한자어 鉢/발의 훈은 '바리떼'이며 중국어 발음은 '뿌'bu임.)

Protoform: *gull-

Meaning: 'bowl'

AKKADIAN: gullu, gullatu

HEBREW: gulla:

=> 그릇

=====

Protoform: *garr-

Meaning: 'box' 1, 'jug' 2

AKKADIAN: garru 1

ARABIC: garr-at- 2

=> 그릇

zabar [BRONZE]

UD.KA.BAR: zabar

1. (to be) bright, pure

2. arrowhead

3. weapon

4. metal mirror ==>자바라?

5. (to be) shiny

6. measuring vessel made of bronze

7. a metal bowl ==> 주발

8. bronze

Akk. ebbu "bright; pure; clean"; hutpu "bronze arrowhead"; kakku "stick; weapon"; mušālu "metal mirror"; namru "bright, shining"; qû "a capacity measure, as measuring vessel"; sappu "a bowl; a lance"; siparru "bronze".

[1992] P. Steinkeller and J

==> 주발/사발

=====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김한별 (2005-07-21 18:18:40)

안녕하세요 솔본님.

이사이트에 온지 별로 안되서 솔본님글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정말 저에겐 대단하게 느껴
잡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소르본 (2005-07-21 19:33:32)

솔본님, 좋은 답변 좋구요.

질문인데요.

어디가면 저것과 같은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

한기식 (2005-07-21 21:06:25)

역시 솔본님이십니다. 이맛에 여기 온다니까요. 계속 연결해 글을 봤지만 잘 배웠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구신 (2005-07-21 22:52:55)

소르본님.. 말씀의 순서가 조금 빠르신 듯 합니다...

하나 (2005-07-22 01:08:27)

구신님이 이런 댓글 다는게 난 더 이상해 보이네요. ^^; 한군데도 아니고, 사방에...

<>

桓因의 옛 음가 '아린'/arin=> 아리안?

Character 桓

Modern (Beijing) reading: huan 2

Middle Chinese reading: g|wa^n

Old Chinese reading: a:r

=====

Character: 因

Modern (Beijing) reading: yin 1

Middle Chinese reading: ?jin

Old Chinese reading: ?in

Vietnamese reading: nha^n

=====

桓因 => ar-in (아르-인/ 아라-인/알린/아린/아링/아령/알랑/)

=====

arya : 아름답다. 고귀하다. 빛난다 => 산스크리트어

=====

4. Miscellaneous aspects of the Aryan invasion debate

4.3. WHERE DID THE KURGAN PEOPLE COME FROM?

4.3.1 Kurgan immigrants

From the east, a foreign IE-speaking population intruded into Europe, soon to be diluted by genetically mixing with the natives, and totally assimilated before they, or rather their language and culture, reached Europe's western shores. However, it stands to reason that they were still genetically distinct when their entry began. That is why the start of the Kurgan culture was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racial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of South Russia in about 4500 BC: "The Dniepr-Donets people are known to be massive Cro-Magnons, continuous from the Upper Palaeolithic; the Strednij Stog-2 men are described as more gracile, tall-statured, dolichocephalic with narrow faces."¹⁷ And again, Maria Gimbutas writes: "The skeletal remains are dolichomesocranial, taller-statured and of a more gracile type than those of their predecessors in the substratum."¹⁸

It is this new racial element which the Kurgan Urheimat school identifies as IE. In that case, the cultural change was effected by an incoming new ethnic group. It is fair to observe that the racial type described here as typical of the first Kurgan-making community, is similar to the tall, robust and long-headed type which you find in the Pashtu, Panjabi and Kashmiri populations of contemporary India and Pakistan, as also in the Harappan and pre-Harappan settlements.

But the two racial types coexisted for long, though still culturally distinct: “Kurgan II, ca. 4000–3500 BC. Materials from this period demonstrate continuous coexistence with the Dniepr–Donets culture: two different physical types (both of ‘Cro–Magnon C’ type, but with the Kurgan people being more gracile) and burial customs (collective burials in trenchlike pits characteristic of the Dniepr–Donets culture, and single burials of Kurgan type) were proved to be present even in the same villages.”¹⁹ This is precisely the type of coexistence which renders cultural assimil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IE language to pre–IE populations possible.

4.3.2. Eastern origins

While V. Gordon Childe, one of the first to identify South Russia as the Urheimat, thought that the Urheimat population and/or culture had come from more westerly regions, “Gimbutas, following most recent Russian work, has departed from Childe, to the extent of deriving the Kurgan cultures from the steppes on the Lower Volga and farther east (…). While linguistic opinion has been moving in the direction of putting the Indo–European homeland in the region of the Vistula, Oder or Elbe, archaeological opinion is now putting it in the Lower Volga steppe and regions east of the Caspian Sea.”²⁰ This was written in 1966, when considerations of the geographical and linguistic location of “birch” and “beech”, now quite outdated, were still tempting people to locate the Urheimat in Germany or Poland “on linguistic grounds”.

Population geneticists like L.Cavalli-Sforza have also discerned an east-to-west migration through eastern Europe in ca. 4000 BC, and identified this westbound population with the bringers of the Indo–European languages.²¹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lso indicates an abrupt change, suggesting an immigration, and more particularly an immigration from the east: “Local evolution cannot account for such abrupt changes (…). The pottery is relatable to the earliest Neolithic in the Middle Urals and Soviet Central Asia.”²² We already saw how the Kurgan people brought the cultivation of millet from Central Asia.²³ All in all, there is now a very strong case for an Asian origin, dated to before 4500 BC, of the Kurgan culture. Tracing these pre–Kurganites to India is a job yet to be done, but at present it should certainly be considered one the reasonable hypotheses.

==> 요지는 아리아인의 선조인 쿠르간인들이 밀의 농경과 신석기 초기의 그릇(pot)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B.C 4500년 이전에 아시아에서 이주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Remark that in this section, I have only quoted findings which predate the ongoing

AIT debate by years or by decades. All of them were published by established academic indo-europeanists. On respected platforms,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had been made available to deduce an Asian origin of IE. Yet, so strong is the paradigm inertia that few if any established academics have intervened to draw that conclusion openly. Let us therefore add the more recent and more outspoken opinion of Bernard Sergent: "The present stage of research effectively permits tracing an Asian origin for the Indo-Europeans well before their dispersion."²⁴ Sergent affirms in so many words that "the Kurgan people had to originate in Central Asia"²⁵, and even that may have been a waystation en route from yet another country of origin.

Footnotes:

17Editorial note in Journal of Indo-European Studies, 1977/4, p-345.

18Marija Gimbutas: "Primary and Secondary Homeland of the Indo-Europeans", Journal of Indo-European Studies, 1985/1-2, p. 191.

19M. Gimbutas: "Proto-Indo-European Culture: The Kurgan Culture during the Fifth, Fourth and Third Millennia BC", in Cardona et al., eds.: Indo-European and Indo-Europeans, p. 178.

20Ward H. Goodenough: "The Evolution of Pastoralism and Indo-European Origins", in G. Cardona et al., eds.: Indo-European and Indo-Europeans, p.253-265, specially p.255, with reference to V. Gordon Childe: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1926.

21A.J. Ammerman and L.L. Cavalli-Sforza: The Neolithic Transition and the Genetics of Populations in Europe, Princeton 1984, p.59, and L.L. Cavalli-Sforza. The History and Geography of Human Genes, Princeton 1994, p.108. Harald Haarmann: "Aspects of early Indo-European contacts with neighbouring cultures", Indogermanische Forschungen 1996, p. 12, tries to refute the theory of the geneticists by pointing out early linguistic contacts between IE and North-Caucasian as well as Uralic. In fact, North-Caucasian may easily have borrowed everything it has in common with IE rather than having imparted anything, while Uralic itself migrated from north-central Asia to eastern Europe.

22M. Gimbutas: "Primary and Secondary Homeland", JIES 1985, p.191, emphasis added.

23B. Sergent: Les Indo-Européens, p.398, p.432.

24B. Sergent, Les Indo-Européens, p.62.

25B. Sergent: Les Indo-Européens, p.440, with reference to Roland Menk: Anthropologie du Néolithique Européen, dissertation, Geneva, 1981,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소르본 (2005-07-21 19:35:39)

다 좋은데, 어디가면,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퍼나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왕이면, 더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 자료의 소스를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에 게을러서, 찾기가 힘들군요.

한기식 (2005-07-21 21:11:14)

ㅋㅋ소르본님 몸이 달았군요. 그냥 솔본님 올리는 글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찾으려니 영어엔 좀 젠병이라서 못찾겠군요.

백신 (2005-07-21 21:57:33)

소르본님께 필요한 소스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coo2.net/bbs/zboard.php?id=con_4&page=1&sn1=&divpage=2&sn=off&ss=on
&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78](http://www.coo2.net/bbs/zboard.php?id=con_4&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78)

하나 (2005-07-22 01:36:51)

한기식님이나, 백신님이나, 예의가 없어 보이네요.

기본 예절은 갖추고 통신에서 글을 쓰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시장 바닥도 아니고요.

다들 지식인이라고 자처 하면서, 행동은 그러하지 못하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

자료를 퍼나른 것이 아니라 D/B를 모아둔 것입니다.

퍼나른 것 없습니다.

D/B를 모아둔 것들입니다.

어디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은 것이죠.

자료를 공개하니 정말 쉽게들 생각하시는군요..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한기식 (2005-07-21 22:08:47)

그러니 찾을 수없죠. 일단은 글올려 주신 솔본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주 올려 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최선엽 (2005-07-21 22:29:32)

어찌 된 부류들이 솔본님 자필과 같은 귀한자료를 보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는 짓들은 그저 출처가 어떠니 트집만 잡고.....

구신 (2005-07-21 23:00:35)

제가 보기엔, 소르본님은 말의 순서가 틀리신 듯 합니다.

작정하고 따지려고 오신게 아니라면,

출처가 뭐냐고 부터 묻는 방식의 질문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2005-07-22 00:47:48)

제 생각엔 DB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DB의 출처가 있을 것입니다. 논문이라던지, 참고서적이라던지요.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이는데, 어찌된 답글이, 완전히 편향된듯한 글만 올라오니, 이 사이트도 참 맛이 잘가는 사이트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화식 (2005-07-22 02:30:49)

'하나'분과 '소르본'분은 동일인이군요.

운영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듯.

하나 (2005-07-22 02:43:30)

김화식 분은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가방끈 탓만 하는 격이로군요.

하나 (2005-07-22 02:50:39)

나는 참고로, 솔본님의 DB에 관심없습니다. 사실 자신만의 DB구축이란 것이 수고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축한 내용이 흥미가 있지도 않은 대상이구요.

김화식 분이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상황은, 소르본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은, 그 말의 오가는 내용이지요.

비슷한 예는, 교회헌금 안내면 지옥간다고, 떠드는 목사들, 물론 목사들도 밥먹고 살아야 되니, 심정적인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이치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요.

김화식분이 그러한 의견을 내는데에는 심정적인 이해는 갑니다만, 이치에 맞는 말은 아닙니다.

김화식분과 손본분은 동일인인가요?

사실 이런 알맹이 없는 얘기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寶溪 (2005-07-22 08:02:38)

솔본선생님께, 선생님의 글에 비판적인 몇몇분들에게 신경쓰지마세요...날도 더운데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하시면 맘도 좀 편해지실듯.^^~

최선엽 (2005-07-22 09:20:48)

밑의 글에서 어디의 연구자료 인용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문자 그대로 '눈깔이 뺏나?'

동명성 (2005-07-22 09:39:02)

솔본님

힘내세요.

무작정 반대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박대중 선생의 글은 인정하면서 솔본님의 글은 인정 못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대중 선생파와 솔본파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저는 솔본님의 글이 상당히 타당성있다고 느껴집니다.

계속 열심히 연구하시고, 나쁜 의도의 글을 잘 분간하십시오.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보면, 간혹 이간질에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의 글이라면 무시하고 다른 주제의 글을 계속 올리십시오. 혼자 떠들다가 맥빠지게요.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김화식 (2005-07-22 13:54:51)

하나분.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쪽에서 정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되물고 싶군요.

"덧글을 달 때마다 일일이 필명을 바꾸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한기식 (2005-07-23 03:13:12)

에~~~ 또 시끄럽네 휘이 구신들 물렸거라!!!!

(그냥 글쫄으면 좋다하지 웬 말이 많아요. 글 보기싫은 분은 조용히 사라지시고...)

<>

[질문] coo2넷과 디씨겔간에 어떤 문제라도 있습니까?

가끔 게시판의 글을 읽다보면 이곳 쿠투와 디씨간에 감정적인 발언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관점의 차이인지 아니면 지향점의 차이인 지..

관점의 차이라면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토론하면 될 것이고
지향점의 차이라면 서로 열심히 하면 될 터인데..

서로 잘났다는 프라이드문제라면 공개적으로 무사도를 열어
한 번 붙든지..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송준희 (2005-07-22 17:50:31)

운영자 송준희 입니다

운영자가 잘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족사서 인용을 잘안하는 곳으로 소문을 들었으며
학생(초중고대/다양)들 위주의 "디지털카메라 사이트" 중 한 곳이라 들었습니다

고대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본사이트를 많이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는 제보만 여러번 받고 있으나
학생들 위주의 자유스러운 토론 공간이니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리라 보고있습니다

의견이 있다면 정당하게 본사이트에 들어와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가끔 다중필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와 연관이 있는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문에 입각한 학술적인 부분 토론은 언제라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우천자의 역사를 비하하는 동영상 그림파일 등

상식을 초월하는 민족사에 반감을 가지는 일부 네티즌(관공서 근무)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간혹 표출되어 운영자가 적절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웃을라 하면 한명씩 나타나니 그것 참 ~

하여간 한번은 시범케이스로 다스릴 생각입니다

의미없는 글들에는 너무 개념치 마시고 좋은글 소개 바랍니다

항상 좋은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송준희 드림)

솔본 (2005-07-22 22:22:10)

운영자/

감사합니다.

안파견ㄴ (2005-07-23 17:55:15)

거긴 아뒤 업이도 맘대로 글쓸수 잇어서...

한놈이 계속 아뒤 바꿔서 헛소리 올립니다. 구리넷이 증산도가 만든 것이네 하며....

신경쓰지마여 병8이들임

<>

주몽(朱夢)은 누구인가? -이집트를 정복한 몽골인들?-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주몽은 '추모', '도모', '상해(象解)', '동명' 등 여러 이름을 갖는다

다소 의아한 것은 주몽과 동명이 동일인인 가 하는 것인데...

이 둘의 신화내용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또 고구려는 주몽뿐만 아니라 동명왕에게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측 사서에 의하면 동명은 고구려가 아닌 부여의 건국 시조로 설명된다.

고구려가 비록 부여에서 나왔지만 고구려와 부여의 건국신화가 유사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고구려가 동명왕의 사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은 혹시 주몽과 동명이 실존 인물이라기 보다는 동북아시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일단 주몽의 이름을 분석해 보자.

朱蒙이라는 이름의 상고한음은 '토몬'(To Mon)이다.

만일 이 蒙자를 夢으로 쓰면 'To Man' / To Mun'이 된다.

추모芻牟의 옛 상고음 역시 'To Mo / Tu Mo'이다.

동명(東明)의 상고음이 'Tong Mang/ Tong Mung'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주몽, 추모, 도모와 동명의 옛 발음은 상당히 유사하거나 같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동맹역시 바로 동명왕이나 주몽을 기리는 제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몽이 투몬/투만이었다는 이러한 이름은 즉각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름들을 떠오르게 한다,

두만강, 토문강, 두만선우, 달문.....

통구스어로 투만 (Tuman)은 1만(10,000)을 뜻한다.

두만선우는 '1만명의 기병을 가진 선우'라는 뜻이다.

투르크어 투만(Tuman)은 '연기,안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흉노의 두만선우는 투루크계가 아닌 통구스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주몽, 추모, 도모, 동명등이 하나의 어휘 'TuMun'을 지향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투문'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찾은 신들의 이름을 참고해 보자

=====

Tamon : Janese god of the north and luck.

Togo mun The chief deity, goddess of the fire and of the tent, Protectress of the clan. The Evenki (Tunguso-Manchurian), Siberia

Tummu : The supreme being of the Pibor Murle, identified with the sky and with the rain. Ethiopia

Tumo : The supreme being of the Bodi, the Mekan, the Didinga. Southwest Ethiopia

=====

'타몬/토고문'이라는 신의 이름이 일본과 만주 시베리아에 등장하는데 이와 비슷한 이름이 이디오피아에도 등장한다. 다시말해 옛 이집트의 강역에서..

이것은 주몽, 도모, 추모라는 신의 이름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집트의 옛신의 이름이 고구려에 까지 흘러왔거나 우연이라고 치자.

문제는 주몽의 다른 이름 상해象解이다.

문자 그대로라면 코끼리와 관련되어 보인다..

하지만 이 상해는 시베리아 샤먼 신 '상케'(snag ke)의 가차임이 분명하다.

Sanke : The omniscient supreme being and sky god who bestows the power of shamanism. The Ostyaks, Siberia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베리아의 샤먼을 주관하는 신 '상케'와 수메르/ 아카드의 '상카' (sang ka): 제사장), 인도네시아의 상크레(Sankre: 창조신)와 아무런 관련이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상카'가 인도네시아와 시베리아에 전파되어 '상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디오피아Tumu신 역시 이집트에서 만주-통구스로 전파된 것인가?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보자.. BC 2.000년경 이집트의 어떤 미스테리를 설명한 논문의 일부다.

=====

At any rate foreign brides were entering the royal harem, and the exclusive traditions of Egypt were being set at defiance.

Senusert II had a favourite wife called Nefert, "the beautiful", who appears to have been a Hittite. Her son, Senusert III, and her grandson, Amenemhet III, have been referred to as "new types". 1

Their faces, as is shown plainly in the statuary, have distinct non-Egyptian and non-Semitic characteristics; they are long and angular--the third Senusert's seems quite Mongoloid--with narrow eyes and high cheek bones. There can be no doubt about the foreign strain.

EGYPTIAN MYTH AND LEGEND

With Historical Narrative, Notes on Race Problems, Comparative Beliefs, etc.

by Donald Mackenzie Gresham Publishing Co., London p. 235

=====

서기전 1800년경 이집트를 정복했던 히타이트의 학소스이라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새로운 유형'

(new Type)이 등장했고 그들은 분명히 셈계통이나 지중해, 아프리카 계통이 아니라 몽골로이드

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논문을 인용하겠다.

Researches Into The Ethnic Origins Of Israel by C. F. Parker, B.A., page 37:

"It must be confessed that they (the Hittites) were not a handsome people. They were short and thick of limb, and the front part of their faces was pushed forward in a curious and somewhat repulsive way.

The forehead retreated, the cheekbones were high, the nostrils were large, the upper lip protrusive. They had, in fact, according to the craniologists, the characteristics of a Mongolian race.

Like the Mongols, moreover, their skins were yellow and their eyes black. They arranged the hair in the form of a 'pigtail', which characterizes them on their own and the Egyptian monuments quite as much as their snowshoes with upturned toes.

In Syria they doubtless mixed with the Semitic race, and the further south they advanced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become absorbed into the native population.

The Hittites of Southern Judah have Semitic names and probably spoke a Semitic language. Kedesh continued to bear to the last its Semitic title, and among the Hittite names which occur further north there are several which display a Semitic stamp.” (If one could observe one of Esau’s wives today, she probably would look somewhat like an Albanian Turk.)

이스라엘인종의 기원을 추적했던 성경고고학자 파커는 그의 글에서 이집트와 히타이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몽골인의 캐릭터에 무척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BC 2천년경이다. 12세기 장키스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기원전 2천년,, 지금으로 부터 4천년전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지역에 몽골로이드가

출현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집트를 정복한 4천년전의 동아시아인의 왕조가 있었단 말인가?

궁금하신 분은 이미 솔본이 올린 이집트와 수메르인들의 사진을 다시보기 바란다.

그랬다.

이집트에 분명히 몽골로이드왕조가 있었다. 지금으로 부터 4천년 이전에 말이다..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해답은 고구려 주몽의 옛이름 tumu/tomo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의 신 tumo는 이집트로 건너가서 tumu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자연 스러울 것이다. 주몽의 옛 이름 말이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홍승희 (2005-07-25 01:04:23)

알렉산더의 정복 이전까지 왕조 가운데 한동안 몽골로이드 왕조 시대가 있었다는 건 근래

유럽의 고고학 쪽에서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특히 학소스는 유라시아 유목민들 중 몽골로이드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나요. 문명의 창세기든가 어느 책에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수메르와 동일계가 아닐까 유추해보기도 한 것 같던데.

그리고 이집트는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 역사와의 친연성을 연구해 볼 대목이 많아 보이네요. 성수개념도 있지요? 호루스라는 새가 가지는 상징도 그렇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언어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지 않은가 싶고... 아직은 스킷처럼 보이는 수준이지만 한 가지씩 파들어갈 부분은 있어 보이네요. 문양이라거나 죽어서 일단 하늘로 돌아간다는 개념도 그렇고...

<>

동이문명의 빙백과 우리겨레의 원형

이제까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살펴본 내용들을 거칠게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 BC 1만5천년전 홍적세 마지막 빙하기인 사르탄 빙기가 끝나가면서 인류는 춥고 어두운 동굴생활을 마감하고 대지로 나오게 되었다.

만주와 동시베리아의 두터운 빙하들은 북쪽으로 퇴각하고 그 자리에는 탁 트인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초원에는 맘모스를 비롯 '메가파우나'라고 불리우는 덩치 큰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자동차만한 거북과 어깨 높이 3m의 대형 들소들이 초원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인류는 이 거대한 초원의 동물들로 부터 대량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것들은 인류의 생명과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의 사자들이었다.

사냥은 만주와 시베리아에 남은 이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생존수단이었는데 이들은 이를 위해 처음으로 개를 길들여 사냥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석기도구를 개발해 내었다.

세석기라고 불리우는 작고 예리한 석영돌칼들은 면도날보다 예리해서 잡은 동물의 가죽과 고기를 다루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것은 나중에 전세계로 퍼진 만주-시베리언의 첨단 기술혁명이었다.

이 시기에 초원은 동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만주 초원은 서쪽으로 남러시아 초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동물들을 따라 동으로 서로 이동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남러시아의 코카서스 인들이 동시베리아로 들어와 아이누가 되었고 만주-시베리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석기와 토기문화를 전파하게 된다

동아시아의 만주-시베리아인들은 이 세석기를 가지고 사냥외에 낚시바늘을 만들 줄 알았다.

어로는 만주-시베리안들의 독특한 경제활동이었다.

강과 해안가에서 잡은 고기는 빠른 시간내에 저장을 위한 손질이 필요했고 그것은 더욱 다양한 석기도구의 발전과 함께 인류최초로 '토기'라는 또 하나의 기술혁명을

이루어 내게 된다.

알프스 유럽 그리고 중근동에서 이시기에 돌을 깎아 그릇을 만드는 동안
만주-시베리안들은 흙을 반죽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구워서 아주 얇고 가벼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토기의 이용과 확산은 만주-시베리아에서 정착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마을이 생기고 마을과 마을이 서로 연결되면서 교역과 족외혼을 통해 문화적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서기전 1만2천년까지 만주-시베리아에서 유지된 환동해권 문화공동체의 모습
이다.

그러던 어느 때, 그러니까 서기전 1만2천년을 전후로 이 온난하던 만주-시베리아에 급작스
런
기후변화가 찾아 온다.

소위 '영 드라이어스'라는 짧은 빙하기가 지구 북반부를 강타하기 시작했던 것.
'빅 프리즈'라고도 하는 이 급작스런 빙하기는 간빙기에 녹은 빙하가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의
난류를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그야말로 어느날 아침에 급격하게 찾아왔던 것.

강력한 냉방하강기류가 대륙을 덮치면서 만주와 시베리아는 급속한 냉동고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맘모스들은 풀을 뜯다 선채로 얼어죽었으며 -60도에 이르는 칼바람이 만주
시베리안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약 1천년간 지속된 이 빙하기로 만주-시베리아의 드넓은 초원은 다시 툰트라로 변해 갔으
며
초원은 남쪽으로만 연결되었다.
만주-시베리언들은 초원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을 따라 함께 남으로 이동해 갔
다.

이동하던 그들은 지금의 황해지역에서 드넓은 초원을 발견했다.
황해초원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과 좁은 해안선을 따라 그들은 이제껏 보지 못했
던
수 많은 초원동물들의 군집을 보았던 것이다.

북에서 남하한 만주-시베리언들은 황해초원에서 자신과는 다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
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사냥할 수 있는 동물들의 수가 줄어 곡식을 심어먹던
초기 농경인들이었다.

사냥과 어로가 주업이던 북방족과 농경의 남방족은 황해초원에 새로이 형성된 동물군들을

놓고 경쟁관계에 접어든다.

그들의 체구는 북방종족보다 작았으며 무기나 도구도 그들보다 열등한 것이었다.
남방 종족들은 새롭게 남하한 북방족과 문화적 경제적 충돌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동아시아대륙 황해초원에서 결국 북방족과 남방족간에 세계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결국 북방족의 승리로 전쟁은 끝난다. 그것이 1만1천년 경이다.

황해초원에서 빚어진 전쟁과 문화의 융합은 그곳에서 엄청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북방족의 수렵과 어로, 그리고 남방족의 농경과 가축의 문화가 얼키고 설키면서
비로서 동이문화의 원형이 구현되기 시작한다.
황해초원에는 거대한 신전과 성이 건설되고 천문과 수학의 발전이 이루어 졌다.

이것이 바로 '환발해권 문화공동체'이다.

그러던 어느 때..

서기전 1만년과 9천년을 사이로 다시 지구에 급격한 간빙기가 찾아온다.
영드라이어스의 갑작스런 빙하기처럼 그 간빙기역시 급작스러운 것이었다.

지구의 온도는 평균 10도가 치솟았으며 엄청난 폭우와 해수면의 증가로 인한
해일이 몰아쳐왔다.

거대한 문명의 금자탑을 건설했던 황해초원에는 폭우와 홍수, 해일의 파괴적인
재앙들이 몰아쳐 왔다.

동이족에게 남은 선택이란 해일을 피해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으로 피신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이 지금으로 부터 1만년과 9천년사이의 일이다.

황해초원을 떠난 동이겨레 일부는 서쪽으로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에 이르렀고
다른 일부는 힌두쿠시에서 남하해 인도로 들어갔다.

일부는 서진과정에서 정착해 원주민들과 새로운 혼혈자손들을 내었다.
이 모든 것은 만주-시베리아이 처음 고안한 토기와 세석기의 서방전파경로와 일치한다.

오늘날 중국의 고고학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중국문화의 원형이 동-서간 융합이
아니라 남-북간 융합으로 선행되었다는 증거들이다. 남-북간의 문화적 결합이후에 동-서간
의
결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황해초원을 떠난 동이거래가 이집트와 수메르에 정착하는 것이 B.C 5000~6000년경이다.
인도에 정착하여 인더스문명을 연 것은 B.C 3000~B.C 2000년경이다.

특히 B.C 2000~B.C1000년경에 동이거래는 아리아인의 시조로서 유럽에서 이집트,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정복지를 구축하게 된다. 그것은 철기의 발명과 말의 사육이 원동력이었
다.

환단고기는 어쩌면 이 시기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메르의 딩기르(Dingir), 이집트의 타르쿠(Tarku) 히타이트의 타르훈(Tarhun)
은나라의 탕군(東君)과 투르크의 텡그리(Tengri) 시베리아의 탕가라(Tangara)
그리고 우리의 단군까지...

그 원형은 알(ar/al)로 전세계를 통일했던 황해초원의 桓(ar) 문명이 아니었을까..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솔본 (2005-07-25 03:00:11)

쓰고 보니 진짜 거칠군요.. ^^;

김한별 (2005-07-25 13:17:39)

카..글 잘봤습니다. 진실을 찾을날은 언제쯤 올까요.

갈천지어 (2005-07-25 14:52:55)

순전히 우연히, 저는 화장실에 갈때마다 아무 책이나 건성으로 들고 가서 읽거든요.
잡힌 책이 한민족의 기원 대탐사 인데, 거기 106-109페이지에 흑요석이 아라랏 부근에서만
나온다는군요. 문자 때문에 신경이 그쪽에만 쏠려 있기에 질문의 번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오스 (2005-07-25 16:50:03)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고 보니다만....,

BC 1만5천년 :

홍적세 마지막 빙하기(사르탄 빙기) 끝남.

인류가 동굴생활을 마감하고 대지(만주와 동시베리아 초원)로 나옴.

세석기와 토기의 발달.

인류의 [동<-->서] 이동

BC 1만2천년 :

'영 드라이어스(빅 프리즈)'라는 짧은 빙하기가 지구 북반부를 강타.

맘모스 멸종.

북방족의 [북-->남] 이동 : 황해초원에서 남방족과 교우

'환발해권 문화공동체' 형성 (동이족 , 동이문화의 원형)

BC 1만년 :

급격한 간빙기 래습 ==> 평균 10도 상승 (홍수, 폭우로 해수면 상승)

동이족 서쪽 이동 : 이집트, 수메르 문명 (B.C 5000~6000년경)

동이족 남쪽 이동 : 인더스문명 (B.C 3000~B.C 2000년경)

나로서는 전체적으로 쉽게 인정키 어렵군요. 앞으로 차차 하나씩 증빙하시겠지만, 우선 솔본님의 주특기인 비교언어학에 의한 동아시아 여러 민족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 두가지 참고 질문>

1. 황해초원의 '환발해권 문화공동체(동이문화)'의 범위는 지금의 황해 바다 속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다면 바다속은 비교적 풍화, 침식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작으므로 문명의 흔적을 지상에서 찾는 것 보다 바다 속에서 찾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쉽게 답을 얻게 될 수도 있겠네요.]

2. 1만5천년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만주-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인류가 최초로 기원(활동개시)한 것 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북방족이 '황해초원'에서 이미 선주하고 있던 남방족과 교유했다고 하는 것 처럼 이집트, 수메르, 인도에도 이미 만주-동시베리아인과 다른계통의 선주민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수메르, 인도에 1만5천년전 이전에 헤어졌던 공통인류의 후손이 이동해서 살고 있었던지...]

3. "B.C 2000~B.C1000년경에 동이겨레는 아리아인의 시조로서 유럽에서 이집트,동아시아

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정복지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정복(지배, 통치)"이라는 개념에 집착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복, 지배, 통치 등은 상대적으로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런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난 정복자/피정복자의 실체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비슷한 문명이나 유전적 동질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넓게 퍼져 살고 있었다는 정도가 아닐까요?]

솔본 (2005-07-25 19:13:45)

갈천지어/

흑요석 세석기가 아라라트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흑요석은 유리질 화산암입니다.

다시말해 화산활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세석기는 백두산석입니다.

솔본 (2005-07-25 19:28:49)

카오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대문구문화와 신락유적 등 동이 유적 분포가 황해안을 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세계 고인돌의 70%가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황해가 한때 고도문명의 거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특히 은이 고도로 개발한 청동기와 하가점의 채색도기들의 전단계가 대륙에서 발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황해의 해저문명에 대한 심증이 있습니다.

2. 인류가 처음으로 만주-동시베리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존재했던 북경원인의 선사활동을 유추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구 고고학과 인류학계는 중근동지역에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면서도 토기와 세석기가 만주-시베리아로 부터 전파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않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호모 사피엔스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연구 결과만 내놓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특히 만주와 시베리아의 고고학 발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우리 고고학과 인류학계는 동아시아의 신석기문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현재 고고학계의 입장입니다.

3. 정복이라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닐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리안이라 불리웠던 제족은 대단한 프라이드와 자긍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그베다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들의 철학과 경제,종교는 주변 다른 제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기와 말이 끄는 전차는 바로 지배계급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구신 (2005-07-25 19:31:57)

그렇다면 역사탐방님의 금속의 기원과 솔본님의 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알,아르,쇠,소,소머리,소 울음소리 음..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홍승희 (2005-07-25 22:56:50)

동이족의 주류가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이전에 출발한 지점은 파미르 고원일 가능성을 더 믿게 됩니다. 우리가 천산산맥에 특별히 천착하는 이유도 그런 시원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또 천산산맥에서 알타이산맥으로 넘어가는 길 양쪽으로 '알' 발음을 품고 있는 지명(산이나 호수 이름 포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화적 서술이기는 하나 부도지가 지시하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파미르고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파미르고원은 고대 대홍수 때 인류가 생존한 몇 안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르지요.

부도지는 그곳에서 사방으로 흩어져간 인류의 행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 방향이 현재의 방위개념으로 보자면 시계방향으로 약 15~30도 정도 틀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충 인류 고대문명의 발상지들과 맞아떨어집니다. 기묘하게 백소, 흑소, 청궁, 황궁이라는 색감이 현재 인류의 지역별 피부색과도 흡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동쪽으로 출발했다는 청궁씨들은 동남아 지역으로 내려간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리고 그들 집단이 현재 화하족의 주류적 혈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동이족과의 심한 혼혈이 이루어지기는 했겠지만.

부도지는 또 그들이 단계별로 흩어져 나간 후에 우리 민족은 북방루트를 따라 마지막 출발

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들은 시베리아에서 현재의 중국대륙 동안지역을 따라 남으로, 다시 그곳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한바퀴를 도는 일종의 문화회랑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대충 소위 화하족들의 근거지인 중원지역이라는 고원 산악지대를 빙 한바퀴 도는 문화회랑은 분명 우리 문명과 깊은 관련성을 보입니다. 언어적으로도 그 문화회랑과 두루 연관성을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한 알타이어군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있다는 의미이지요.

장기간에 걸친 종족집단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많은 투쟁을 겪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은 바로 무기류를 중심으로 한 금속문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류의 금속문명을 선도해온 민족이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지요.

어쨌든 그런 문화회랑이 도는 외곽으로는 또 꾸준히 서남방으로, 서북방으로 확산돼 나간 동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슈메르, 이집트 문명에서 분명 우리 고대문명의 흔적들을 발견하기는 매우 쉬워 보이니까요.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혼혈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일 몽골로 이드로 보이지만 현재 드러나지 않는 유전형질에는 상당히 다양한 인종적 요소들도 포함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단일민족설이 언제부터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는 과거 광역 연방의 역사를 감추려는 어떤 의도가 내포된 축소지향의 역사논리가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북경원인은 현재의 인류와 문화적 관련성은 잘 모르겠으나 유전적 연관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정말 황설수설, 알아듣기 힘든 글이 돼버렸네요. 솔본님 글의 대강을 보다보니 저도 모르게 따라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잡설을 늘어났습니다.

카오스 (2005-07-25 23:23:02)

솔본님>

답변감사합니다.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답변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면,...

1. 황해의 해저문명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황해 전체는 아니었을 것으로, 발해만 일부 정도가 아닐까요... 우선 지질학적으로 발해(또는 황해)가 육지였던 시기 및 범위가 규명되거나 아니면 바다 속의 문명이 우연히 발견되든가 해야 확인이 되겠지요.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 북경원인은 69만년전의 인류 화석으로서 조금 주제와 관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뚜렷하게 "동방의 호모사피엔스"의 존재가 규명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토기와 세석기 유물의 전파경로를 연결시켜 "동방의 호모사피엔스"가 이집트, 수메르로 이동했다고 결론(추정)짓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여겨집니다만....

3. 내가 잘은 모르지만, 리그베다는 BC10세기 경 인도 부라마교의 경전으로 당연히 아리안인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요...그리고 당시의 아리안 제족들이 프라이드와 자긍심이 세고 문화수준이 높고 철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리안인들이 동이거레(1만2천년전 ~ 1만년전)의 후손이다라는 증거로 설명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4. 결국 전체적으로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역사의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과거로부터 현재로의 역사의 체계를 세우는 것보다 좀더 상대적으로 신빙성있는 자료가 많은 현대에서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하나씩 증빙해 가면서) 역사의 줄거리를 더듬는 것이 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득한 과거는 사실확인(증명)이 불가하기도 할 뿐더러 자칫 첫단추를 잘 못 끼우면 계속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잘못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솔본님의 강점이기도 하고, 현대에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고대언어를 비교하는 비교언어학 등은 강력하고 유용한 연구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연구 이루시길 바랍니다.

솔본 (2005-07-26 00:55:22)

홍승희/

부도지와 환단고기는 동이족의 역사가운데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파미르고원에서 시작해서 전세계에 퍼져나갔다면 그것은 인도유러피언 즉 아리안의 테마에 근접하는 것 아닐까요? 아리안의 기원으로서 동이겨레의 원형질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솔본 (2005-07-26 01:06:21)

카오스/

지적하신대로 황해 해저문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본질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발굴된 자료가 없어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발굴의 시도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 북경원인이 69만년전의 화석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오래된 화석이 그렇고 북경원인은 호모 사피엔스로서
20만년전까지 존재한 현생인류입니다.

북경원인은 분명히 동방의 호모 사피엔스가 맞습니다. 문제는 그 후손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3. 아리안의 기원문제는 '우르 하이마트'논쟁이 중요합니다. 즉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아리안의 기원으로 히타이트를 주목하는데 히타이트의 인종적 문제는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들이 인도유러피언이아니라 아시아인 몽골로이드형에 가깝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역사를 현재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보자는님의 생각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시점에서 과거로... 현재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추적하는 작업이 되겠지요.. 사실 저의 결론은 그렇게 얻어진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서술하다보니 처음부터 고개가
가우뚱해질 수도 있겠군요... 담에는 좀더 가까운 현재의 문제점으로 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
지요.

솔본 (2005-07-26 01:14:46)

카오스/

북경원인의 최근 발굴은 12만년전 현생인류라하는군요..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속하지요.

문제는 서구 고고학계에 동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이후는 없다는식의
무관심이지요.

카오스 (2005-07-26 09:13:28)

솔본님>

님의 다양한 지식에 감탄합니다. 난 공학전공자로 별로 역사, 고고학, 언어학, 종교학, ...
등 인문사회학 쪽은 전혀 쟁쟁이라 다른 분들이 언급하면 그때부터 찾아 보기 바쁘지요. 그
래서 나는 내가 언급한 것들을 반론의 근거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너무 논리의 비약이
나 서술상의 모순이 될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재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님의 설명
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매우 흥미있는 설명이 많이 있으므로 계속 청취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은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좀더 피부에 와닿는 "5천년전 이후의 역사"에 포커싱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승희 (2005-07-26 12:19:10)

아리안의 기원으로서 동이족의 원형질이 앞으로 솔본님 손을 통해 어떻게 풀어져 나올지 기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단고기가 우리 민족 역사의 중간부분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부도지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출발시기를 1만2~3천년전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어딘가

에서 6만3천년전 설을 본 기억도 있어서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태초의 시기, 우주생성의 과정부터 시작되는 서사구조는 보다 기억의 원형을 쫓아가는 후대의 기록이었을 것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수메르 전승에 힘입었다는 것이 이즈음의 정설입니다만 그 수메르 전승보다 더 원형적 서사가 부도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웅스(강운기) (2005-08-18 01:22:18)

황해의 해저문명에 관해서는 역사에 문외한인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발해만 부근은 수천년 전까지는 육지였으며, 현재도 그 평균 수심이 15~24미터 가량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지문]을 지은 그레이엄 헨콕 선생도 발해만 부근은 고도의 문명의 흔적이 숨어있는 지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더군요..

<>

[동이문명탐험]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위의 사진은 기원전 1300년경 어느 왕의 미이라입니다.
이 왕의 이름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한 나라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왕이 통치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창조신으로
받들어지는 어느 여신의 부조상입니다.
이 여신의 이름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동안 속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왜 이런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 것일까요?

위 미이라의 주인공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입니다.
그리고 여신은 바로 하토르(Hathor)이지요..

이들이 셈족이나 아프리카인으로 보이십니까?
만일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인이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왕조시대 직전 이집트인들은 동방에서 온 새로운 종족에 의해 정복당했다"
-영국의 이집트 학자 브라이언 에머리-

" 고왕국의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비흑인 침략자"
- 플린더스 페트리-



이집트의 창조여신 하토르..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고대사산책 (2005-07-28 06:23:50)

맨 위 남왕은 전형적인 동양인 그것도 동북아... 시골 노인 같은 인상을 주는...

중간 여신은 지금 서울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형...깊지 않은 눈, 광대뼈, 높지 않은 코, 볼이 빠르고 약간 작은 듯한 입...전체적인 골격 등등...

세 번째도 얼굴이 두 번째와 비슷...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 가까운

신시 (2005-07-28 08:41:13)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투탕카멘을 특집으로 다룬 프로를 보았는데

흥미롭게도 투탕카멘의 미이라에서 머리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편두" 더군요.

이집트 부조에 나온 투탕카멘의 묘사에서도 "편두"가 보이는데 처음엔 학자들도 그냥 왕이니

특별하게 묘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미이라를 확인해 보고 진짜 그런 형태였다는 것이

임증되었고 나아가 투탕카멘의 선조들의 머리 모양도 "편두" 였다는 것입니다.

"편두" 문화를 가진 문화권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프로에서는 편두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지 유전적인 요인이었을 뿐이다" 라는 다소 어이없는 결론을 내리고 끝내더군요.

홍승희 (2005-07-28 11:49:37)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분위기인데 남들이 먼저 인정하길 바랄 수는 없지요. 저런 자료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함께 공유해가면 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거야인 (2005-07-28 19:20:48)

솔본님,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동아시아 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해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이집트에 건너간 동아시아인들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한민족사와 이집트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시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비록 동아시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문화는 이집트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과의 이질성이 생겨났고 한민족사와는 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뿌리는 한국 수메르 문명이지만, 이들의 역사는 이집트 역사라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은거야인 (2005-07-28 19:30:16)

아무튼 뿌리는 한국 수메르 문명이지만, 이들의 역사는 이집트 역사라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집트 문명의 뿌리가 한국 수메르 문명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역사는 이집트 역사라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합니다.

솔본 (2005-07-28 19:57:42)

은거야인/

야인님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옳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지요.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이집트 왕조시대 이전에 이집트에 동아시아인들이 진출했다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하는 것입니다.

유러피언들은 자신들의 선조로서 아리아인의 원초적 고향을 찾는 문제에 근 200년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른바 '우르 하이마트'논쟁입니다.

까짓것 터키의 역사는 터키 것이고 그리스 역사는 그리스의 것인데 왜 영국과 독일의 학자들은 남의 나라 고대사에 그리도 몰두하는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원형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원형을 찾는 것은 현재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도발하려는 겁니다.

파영 (2005-07-30 03:45:23)

이홍피는 어째서 저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뒤바꾸게만드는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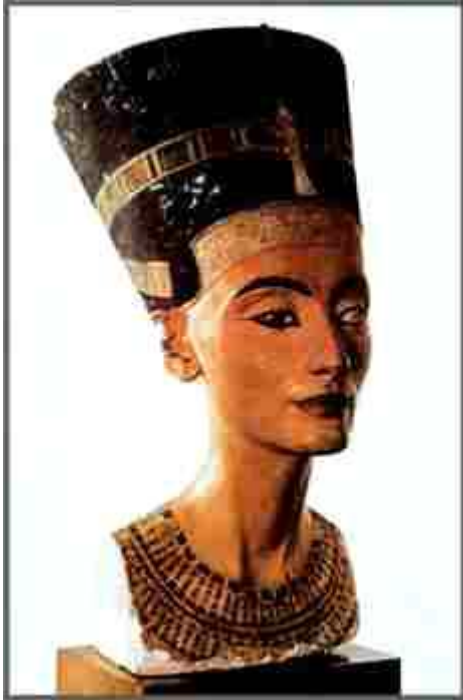
엄청난 정보에 입만 열뿐입니다.

심재복 (2005-07-31 19:37:10)

음, 우리나라도 고대에 편두 풍습이 있었는데, 흠...

<>

[re] [동이문명탐험]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 여기 아줌마 한명 추가요~



이집트 제 18대 왕조 시대의 왕비 네페르티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저 두드러진 광대뼈라니...

북방계 아시아 여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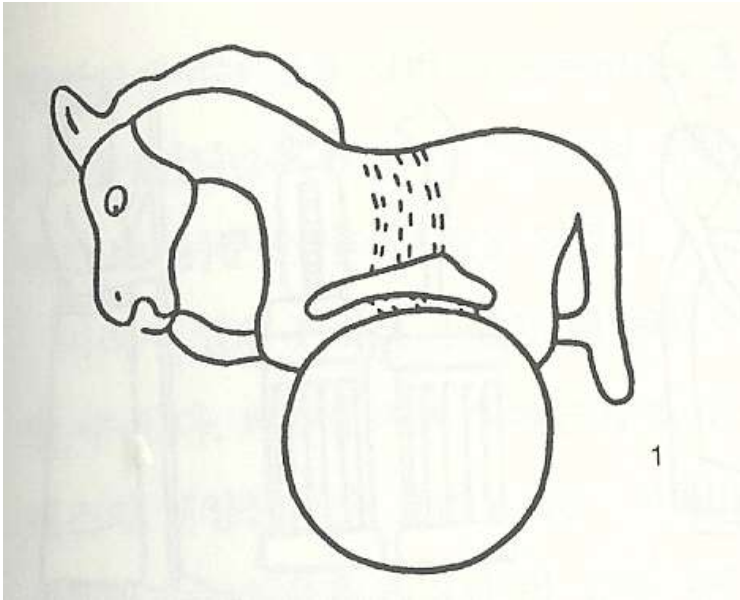
이상하게 왼쪽 눈알은 없네요. 어디갔는지..

말년에 왕의 총애를 잃고 왕궁에서 나갔다고 하는 이집트 왕비 네페르티티...

이집트에 가시면 그녀의 흉상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종류의 악세사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이문명추적] 박혁거세 미스터리..



위의 그림은 러시아 민속학자 아리엘 골란(Arial Golan)의 저서 "신화와 상징"(Myth and Symbols)에 소개된 선사시대 시베리아 암각화의 복원 스케치이다.

한 마리의 말이 꿇어 앉아 있고 그 옆에 커다란 둥근 알이 있다. 아리엘 골란은 이 둥근 알을 태양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것을 시베리아와 노르딕신화에 등장하는 태양말 (Sun horse)로 해석했다.

노르딕 신화에 등장하는 이 태양 말의 이름은 "아르-박"(Ar-vak)이다. 그 뜻은 "일찍 일어나는 자"(Early Riser)이다.

이 아르박은 태양의 여신 솔(Sol)의 마차를 끄는 성스러운 말인데 독일에서 발굴된 2천5백년전의 모습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노르딕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의 여신 솔의 다른 이름은 순나(Suna)인데 그녀는 하루에 한번 이 아르박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일주한다. 그 뒤를 스킨(skall)이라는 늑대가 바로 이 '솔'/'순나'를 삼키기 위해 뒤쫓는다.

대개 여신 솔/순나는 잡히지않고 서쪽으로 피하지만 잡혀 먹힐 때가 있다. 그때 일식이 발생한다. 하지만 태양의 여신 '솔'은 다시 부활한다.

중국에도 이러한 신화소가 남아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일식현상을 하늘에 사는 天狗가 해를 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태양의 여신 '솔'과 그 말 '아르박'의 신화는 범 유라시아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화는 박혁거세로 연결된다.

박혁거세의 탄생지에 백마가 알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길게 한번 울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박혁거세 탄생신화를 보면 중간에 뜬금없이 '선도성모가 낳을 때 이야기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선도성모가 무엇을 낳았다는 것인가? 알인가? 박혁거세인가?

학자들은 태양의 여신 '솔'이 바로 태양 그 자체라고 한다. 사실 솔(Sol)의 뜻은 태양이라는 것인데 다른 이름 순나(Suna)역시 만주-통구스어로 태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것은 태양신 솔/순나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삼국유사가 말하는 "선도성모가 낳을 때 이야기"라는 것에서 선도성모가 바로 이 '솔'/'순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도성모가 낳을 때'라는 것은 매우 오랜 상고시대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신라가 건국된 B.C57년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박혁거세의 성씨 '박'이 알과 비슷해서 '박'이되었다는 삼국유사의 설명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 '아르박'(Ar-vak)이라는 단어에 어떤 유추관계가 개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박'(Bagg/Bak/Bek)이라는 단어는 인도-이란어 계통에서는 '말을 탄 군주'를 뜻한다. 아울러 God(신)에 대한 존칭어이다.

솔의 전차를 이끄는 아르박이 '일찍 일어나는 자'라는 뜻은 리그베다에서 태양신 솔을 '빠른 신'으로 일컬었던 유추를 짐작케한다.

그렇다면 "알지 거서간 한번 일어나다"라고 외쳤던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어쩌면 "아떨 카사르칸 아르 박"이라는 박혁거세의 공식 칭호를 풀어썼던 것이 아닐까?

關智의 고대 한어음은 "At-Dirr"(앗-떨)이다.==> (starostin / Chinease Etymology)

고대에는 𪛗/𪛘등의 이모음 치음은 t/d였다. 김부식은 알지를 어린아이를 일컫는다 했는데 아마도 '알지'의 옛고음이 '아들'과 비슷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어쨌든 이 '앗-떨'은 유라시아에서 사슴의 뿔을 뜻했고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 Atitre라는 단어로 남아 있다.

아울러 '앗-틸'(闕智)을 앗-틸(at-til)로 표기하면 투르크어로 '말옆에 서있는..'이라는 뜻이 된다. 유럽을 정복한 아틸라(Attila)의 어원이다.

그렇다면 박혁거세 신화는 아주 오랜 상고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유라시아 특히 인도유럽어파, 직접말해서 '아리아'인의 모티브를 쏙 빼닮은 것인데..

우리가 아리아인의 세례를 받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리아인에게 세례를 준 것일까?

나는 분명히 훈족의 아틸라가 우리 '아틸 카사르칸 아르박'의 후예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고대사산책 (2005-07-29 16:33:36)

알이나 박을 말이 끄는 것은 태양신사상에서 나온 신화의 원형이고 그런 것이 어느 시점엔가 고대 동북아로 들어오면 음양사상과 결합되어 태양신은 양신(남성)으로 표현하고 그에 대응되는 음신을 여성으로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이것은 "신화도 진화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본 (2005-07-29 17:35:59)

고대사산책/

그런데 아주 오랜 고대에는 태양신이 여성이고 달의 신이 남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바뀐 것인데..

마리아 김부터스같은 여성주의 신화학자들은 신석기시대의 모계주권이 큰여신으로 등장했다가 가부장제인 아리아인의 등장으로 천신이 남신으로 바뀐 것으로 보더군요..

우리에게 마고신화의 원형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 아닌가합니다. 아리아인의 가부장제적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고대사산책 (2005-07-29 20:27:49)

그런 것은 비슷한 종류의 신화들을 대표적으로 수집하여 연대를 비교해보면 대략은 알 수 있겠지만 신화라는 것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결국은 고고학적인 유물/유적에 의존해야 될지도 모르지요.

중국에서 음양오행사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확산된 건지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중국신화들 중에서 전환점을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솔본 (2005-07-29 23:14:33)

고대사산책/

그럴 수 있습니다..

위성천 (2005-07-30 16:02:51)

솔본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님의 글 가운데,

어쨌든 이 '앗-떨'은 유라시아에서 사슴의 뿔을 뜻했고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 Atitre라는 단어로 남아 있다.

저로서는 'Atitre'라는 단어가 금시 초문인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고대 혹은 중세 영어 어휘 인가요?

아니면 'Antler'의 오기가 아닌지 살펴 봐 주십시오.

하지만 درا군이 출동하면 어떨까?

sumer (2005-07-31 09:31:02)

몇년 전 인도 델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인도의 태양신 조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고대

인도에서는 태양신을 "수리야(surya)"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마차바퀴와 똑 같이 생긴 것이 있던데 수리야의 상징이라고 같이 간 인도인 친구가 말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조각상이 마차바퀴를 발 밑에 두고 선 것 같았는데. 당시 크게 관심두고 보지 않아서 기억이 희미한데.. 아쉽군요.

북부여의 임금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다녔다고 했는데, 태양신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요? 낮에는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해의 움직임과 같군요. 밤에는 태양이 서쪽으로 진 것을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해"라는 성씨도 심상치 않군요. 그 당시도 태양을 "해'라고 불렀을까요?

홍승희 (2005-08-01 23:22:54)

북부여의 해씨 성을 태양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태양신 수리야에서 연상되는 우리 말에 수리라는 말이 있지요. 둥근 모양을 말하고 역시 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수리떡이라는 것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산동성에는 고조선 유물로 36개인가의 바퀴살이 있는 대형 바퀴가 발굴돼 현재도 전시중이라는 것 같더군요. 이 역시 바퀴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앙적 상징물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솔본 (2005-08-02 03:35:42)

위성천/

attire [ti]1 옷차림새, 복장, 의복; 성장(盛裝)2 문장수렵 사슴의 (가지)뿔

<>

운영자님께 질문

솔본입니다.

게시판에 전에 썼던 글들 중에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삭제하신 건지요? 아니면 사라진 것인지요?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

[re] 별도 자료실로 모아서 게시중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보시면 주요자료실 별도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본님 글을 별도로 모아서 게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별도로 게시조치 하였습니다

◎주요참고자료 및 보조자료실 바로가기 <- 클릭하세요!◎

지금처럼 글을 올려주시면
한달정도 지나서 운영자가 자동으로 글을 옮겨서 게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

[동이문명추적] 환인의 미스테리

삼국유사의 일연은 '환인'을 불교의 석제환인으로 해석했지만
환인의 이름이 '인드라'의 가차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색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입니까? 아니면 뜻이 그래서 입니까?

대개 고대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서로 다른 종족간에 이주나 정복, 전파
에 의해 신이 함께 움직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 이름이 비슷하게 옮겨 지는 것.
둘째는 기존의 신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

그렇다면 '인드라'라는 신의 이름이 동아시아에 전파되어 '환인'이 되었다면
어떤 경향을 따른 것이었을까요?

음가로는 큰 차이가 있고 기존의 '환인'이라는 신의 이름에
인드라의 성격이 사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에게 '환인'이라고 발음했던 신이 이미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오래부터 환단고기의 내용가운데 환국에 대한 서술이 타당한 것이
었다면 그 시기로 보아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어떤 기억의 흔적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말에 이 자료는 이 주장을 뒷받침 하기에는 엉터리일까요?
인터넷에서 발견한 어떤 신의 이름입니다.

Hawenniyu, Ha-wen-ne-yu [환니유/ 환네유]

:The beneficent and just Great Spirit who is considered self-existent,
a god of virtue and harmony, the creator of "man, and all useful
animals, and products of the earth." The Iroquois, Eastern United States

=>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자비와 정의의 大神.
덕망과 조화의 신이며 사람과 모든 유용한 동물을 창조한 신.
그리고 지구의 만물을 창조한 신.

- 미 동부지역의 이로쿼 인디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솔본 (2005-08-05 19:36:05)

일전에 桓의 고대음가가 ar였다고 소개한 스타로스틴의 설명에
어쩌면 수정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군요.

솔본 (2005-08-05 19:46:27)

아니면 桓의 음가가 '한'과 '알'두개였던 것은 아닐까..

고대사산책 (2005-08-06 08:48:22)

솔본님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한자의 (중국)고음이 지금의 한자의 음과는 다르다는 사실
과 관련하여 보면 桓자도 훈독과 음독 두 가지가 있었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 달리 전파되었
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승희 (2005-08-09 20:30:09)

발음에 관해서는 고대사산책님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알과 환이 현상적으
로 다르면서 의미상 같은 것으로서 글자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고대사산책 (2005-08-10 11:14:16)

그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聖數 미뜨[三]와 태양신의 분신인 미뜨[光]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 경우는 의미가 같기 때

문에 음을 공유한 것에 해당합니다.

'알 한(栴)' --> 이것이 고대 상형문자에 나타나는 '알(O)'을 대체한 문자가 아니었나 생각
되네요. 알(O)은 '闕(O)'이고, 말하자면 '闕(O) 한(栴)'으로?

<>

사마천! 나는 그대가 '사기'친 내용을 알고 있다.

존경하는 사마천.

나는 그대가 수치스런 궁형을 당하면서까지 굳은 절개로 춘추의 도를 가려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오.

하지만 그대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던 것을..
그대의 가문과 조국과 시대의 영예에 스스로 모든 것을 바쳤기에
그대는 결국 우리 한민족과 동이겨레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사기'를 치게 되었구료.

이해하오.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니까..

하지만 당신의 사기는 완전범죄가 되지 못했다고요.
내 이제 그 것을 한번 밝혀 보리다.

사마천!

당신은 현인 '기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대의 품성과 학식과 철학으로 보건대 당신이 기자를 모른다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소?

당신은 사기 조선열전에서 주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소.

그런데 말이오..

우리에게는 어떤 노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도오.
일연이라는 이 노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조선을 조선이라 하지 않고 古朝鮮이라 제목을 달았고 이상하게도 '왕검조선'이라는 별칭을 달았도오.

이 노스님께서 근세조선을 알리는 없을 터이고...

사마천!

당신은 당신의 후손이 남긴 당나라 시대에 쓰여진 '배구전'이라는 책이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오.
불행하게도 우리의 노스님께서 그 책을 구해 보셨고 거기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오.

" 고려(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이였다. 주왕이 기자를 봉해 '조선'이라고 했다"

우리 일연 스님께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겨 쓰셨다오..

그러면서 우리 일연 스님은 기자가 고죽국에 가서 생긴 '조선'과 그 이전에, 다시말해 魏書와

古記에 기록된 '조선'이 서로 다름을 아시고 그 조선을 '고조선','왕검조선'으로 구분하신 거라오.

사마천!

당신은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소. 분명히 묻겠소. 기자가 고죽국으로 간 것이오?

아니면 '조선'으로 간 것이오?

조선으로 간 것이라고요? 알겠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자가 갔다는 '조선'이 이미 그 전 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오. 당신이 칭송한 '군자의 나라'이니 이 점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오.

사마천!

당신은 조선열전에서 조선과 한나라간에 전쟁을 마치 자신이 종군기자라도 된 듯 아주 상세하고 리얼하게 묘사했소. 당신이 다른 열전에 할애한 것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 그대는 조선의 기원에는 선수,습수,열수 등 무슨 강이름을 들이대며

그래서 조선이 되었다고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있소.

아울러 조선의 역대 군주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제대로 된 기록이 없소.

사마천!

당신의 그러한 비균형적인 서술로 보아 우리는 배구전의 기록대로 기자가 고죽국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권력을 잡아 국호를 '조선'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오.

그러한 데는 이유가 있소.

사마천!

당신은 당신 지나족의 선조인 위대한 임금 주 무왕의 신하 기자가 무왕을 떠나 고죽국에 들어가

국호를 '조선'이라고 한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자존심을 상했을 것ियो.

그것은 마치 로마 황제의 신하가 로마를 버리고 자신의 속주로 돌아가 한때 로마를 정복했던

알렉산드리아를 재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로마 귀족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यो.

사마천!

당신은 기자가 다시 재건하려는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소.

그 '조선'은 지나족으로서는 혹시 두렵고, 불길한 이름이 아니었소?

그렇기에 그대는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킨 기록에는 그토록 편집증적으로 집착했었으면서도

정작 그 나라의 건국과 기원과 영토, 제도에 대해서는 그 토록 소홀히 했던 이유가 아니오?

더구나 그대의 기록 이후에 그대의 후손들은 한사군이라는 억지 주장에 목숨을 걸다 시피 해왔소.

사마천!

기자가 고죽국에 들어가 국호를 '조선'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소?

그것은 주왕실에 대한 복수를 의미하는 다른 이름이 아니었소?

중원을 다시 회복하고 사해의 군주로 컴백하려는 기자의 야심찬 선포는 아니었소?

사마천!

역사의 진실은 감추어 지는 것이 아니오.

당신의 춘추필법 역시 사마천 그대의 공포와 자존심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싶소.

당신은 남자답지 못했소.. 남자로서 자존심을 포기할 때 이미 알아 봤지만...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가나다 (2005-08-07 12:03:04)

이 내용은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더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내용이 참으로 좋아 보이고

이 내용을 되새김질을 함녀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대사산책 (2005-08-07 13:19:27)

모든 사서는 이중구조로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극히 일부(유사, 규원사화 같은) 정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이 쓴 것을 제외하면 당대의 권력집단이 주도하여 그들의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그들 선대의 역사를 요리(편집)해 놓은 것이 소위 '정사'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서를 짓는 것이 대개 왕조가 바뀌었을 때 흔히 짓는데 그들 선대와 차별화하려고 하기 쉽고 이런 것이 사서를 분석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

그래서 소위 정사라는 것을 겉보기 한문원전대로 충실히 번역하여 역사라고 하면 할수록 바로 고대의 사서편찬그룹의 시각을 통해서만 역사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시각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歷史를 歷死로 만들지 않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보기대로 충실하게 번역/해석하는 것은 대체로 학자들의 능사인데 그러다보니 사서의 엄청난 세뇌효과 때문에 한일중 3개국 학자들이 역사해석 태도를 대략 비교해보면

한인은 사기집필자와 흡사한 태도를 보이며 자기비하적으로 해석하려고 무지 기를 쓰는 것 같고, 중인들은 고래로 그랬듯이 대륙사서의 일반적인 경향처럼 침략과 팽창주의에 젖어있는 것 같고, 일인들도 8세기초의 고대사서 기술태도와 아주 흡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요. 인국을 낮춰 보고 넘어다보는 태도...

한인들은 현재 남아있는 사서의 내용대로 "大者和 倭者是 고래로 거시기도 크다"는 식의 선입견부터 제거하고 사서를 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식 (2005-08-08 03:03:21)

술본님 글은 언제나 읽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 제가 한씨라서그런지 기자에선 관심이 많습

니다. 상나라가 주에 망했으니 기자가 조선에 봉했다는게 말이 안돼죠. 기자가 성씨가 자씨라하는데 이름이 수여 기씨가 아닙니다.

저도 느낀게 상나라는 은이고 은은 조선 제후국으로 압니다. 주에 망했으니 조선으로 가는게 당연하죠

<>

역사21에서 잠시 놀다 온 소감

역사21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잠시 놀다 왔습니다.
제법 학구적인 분위기가 있어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지요..

그곳에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문제를 분석하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되는 자의적 해석으로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어떤 분들은 제 글에 공감을 하시며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글이 많은 관심을 끌면 끌 수록 야비한 수법의 리플들이
조직적으로 불더군요..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태서 왜곡하기
분명하게 제시한 자료들을 강그리 무시하기.
꼬투리 잡기 위한 질문..

진지하게 의문을 품은 분들에게는 저 역시 성의껏 제 주장의 근거들을 밝혔지만
양아치같은 도전에는 양아치같이 대꾸했죠.. 하하하..

시대정신이 변하면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새로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전 부터 있었으나 우리가 미처 모
르고
있었던 사실들일 뿐입니다.

동이거래가 인류문명의 씨앗을 전세계에 퍼뜨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남에도
그들은 그러한 것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욕지거리와 근거없는 모략, 버젓이 남의 주장을 왜곡하는 태도들..
그리고 그러한 추점함을 방기하는 관리자...
그곳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이 과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선조를 모시고 살아왔던 거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감추려해도 다른 누군가가 계속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역사21에 남은 저의 글들은 그곳을 처음 찾는 이들이 보게 될 것이며
제 글에 달린 수많은 리플들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자부심 (2005-08-20 00:35:00)

환영합니다 !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대사산책 (2005-08-20 11:49:47)

실력으로 그냥 탱크처럼 밀고 나가지 그랬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기도 하고, 부루스로 땡기다가 탱고로 돌리기도 하고 하면서 말
이에요.

<>

다항님의 주장에 담긴 근본적인 모순.

구이넷과 역사21에서 본 다항님의 주장에는 한 마디로 근본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의 시조로서 단군과 치우를 말하면 그것은 당대 역사 기록이 없는 것이므로 근거가 없다면서도 그 단군대신 소호금천이나 전욱 고양을 말합니다.

신라 김유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소호금천이나 전욱고양 자체가 신화적 인물이며 그들에 대한 당대의 기록 역시 없는 마당에 김유신의 '소호금천씨 선조설'을 그대로 믿어야 할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다항님은 우리가 단군겨레의 후손이라는 말에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왜 근거도 없이 조상을 바꾸냐고합니다.

다시말해 소호금천,전욱고양등이 우리 겨레의 조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의미없는 주장입니까?

단군은 신화에 불과하니 조상으로 인정하면 안되고
소호금천,전욱고양은 신화라서 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러한 근본적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다항님이 중화문명에 대해 갖고 있는 콤플렉스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말해 소호금천,전욱고양은 중국사서에 나오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하고
단군은 중국사서에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중국사서가 얼마나 제대로 주변국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흔히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헤로도투스는 '역사'라는 자신의 기록에서 주변의 스카타이와 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후대 역사학자들은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다른 여러 방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그에게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는 다른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철저히 당대 자신의 세계관에서 주변을 살폈을 뿐이죠.

사기의 사마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조선전을 썼을 때는 '한나라가 조선을 멸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썼을 뿐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 전혀 궁금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연과 대등해지면서 거만해졌더라든지 입조해서 중국 황제를 알현하지 않았더라든지 주변국이 지나와 교류하는 것을 방해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조선을 쳐야했던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의 중국사서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그런 사서를 통해 우리 역사를 본다는 자체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고대사에는 기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해서 역사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는 언어,종교,풍습,고고학등 다양한 방면으로부터 여기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항님은 이러한 방법론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만 기지고 논하겠다면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배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역사가 이긴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각자의 주체적 관점입니다.

중국을 통틀어 말하는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미국사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역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언 계곡에서 나온 유물이 앵글로 색슨의 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중국의 통합역사관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항님은 자신을 다시한번 주체적으로 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san (2005-08-21 17:34:24)

솔본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왜 다항이란 단어가 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자의 글을 보면 철저하게 한반도 남부중에서 동쪽지역만이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주 더럽게 치졸한 반도사관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협조하는 자식입니다.

가나다 (2005-08-21 18:08:35)

다항님도

제 멋에 산다고 말을 하겠지만

다항님을 보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1. 세 버릇 여든까지 간다.
2. 제 버릇 개 못 준다.
3. 빈 수레가 요란하다.

고독한늑대 (2005-08-22 00:02:40)

역사 21에 다녀오니 솔본님 참 많이 고생하셧군요

님은 짱꼴라라 한글을 배운 짱게 화교라고

차마 같은 민족이 그랫을까하고 외면하심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부정하는 정신나간 우리의 일부도 잇는게 사실이지요

그들은 단군을 신성시하는 종교가 교세를 펼치가 두려워서 저런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단군종교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말이죠

곧 진실이 밝혀질겁니다. 힘 내십시오

고독한늑대 (2005-08-22 00:03:32)

ㅋ 근대 다항이 올린 글 중에 보면 술본님을 포섭하려는 시도도 보이던데
어디 넘어 갈뻔 했습니까?

국학정립 (2005-08-22 06:48:30)

술본님의 대응 논리에 철저히 공감합니다. 수고많이해주세요~

茶香 (2006-12-08 14:11:20)

오랜만에 이곳을 들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계시더군요.
술본님의 평소의 신중한 자세와는 너무나도 판이한 태도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겨레의 시조로서 단군과 치우를 말하면 그것은 당대 역사 기록이 없는 것이므로
근거가 없다면서도 그 단군대신 소호금천이나 전욱 고양을 말합니다. 신라 김유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같은 지당대신들만 모아놓고 그들에게 견해를 묻는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술본님이 말씀하시는 추상과 추리보다는 더 근거가 있는 까닭에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견지하는 역사공부방법은 '출토된 기록과 전해온 기록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 다음은 이를 기준으로 과연 역사의 공백을 해석해낼 수 있는가이죠.
다음부터는 저뿐 아니라 누군가의 결론일지라도 먼저 그 근거를 물어보시는 것이 '술본'님
답다할 것입니다.

<>

환단고기의 새로운 면모

환단고기를 통째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개 환단고기의 내용이 그야 말로 '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문명의 시원이 우리 환족에서 시작해서 동이겨레에서 꽃피웠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모든 문명이 서구에서 비롯되어 동방으로 전파되었다는 유러센트리즘적인
사고에 깊숙히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고학과 인류학은 이와는 반대인 증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것이 바로 그릇(Pottery)과 농경기술(agricultural skill)입니다.

환단고기는 분명히 그릇의 발명과 농경기술이 한국시대에 역대 환인들에 의해
환족에게 전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인도에서 발간된 "그릇과 농경의 기원"(The Origin of Pottery and
Agriculture)

이라는 책은 권위있는 전세계 고고학과 생물학,인류학자들의 논문을 엮어 한권으로 편집한
것인데

여기서 농경의 시작은 인도에서 9천년전에 이미 본격 시행되었고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는
1만년전

으로 소금됨을 보여 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만년전 양쯔강에서 이미 널리 재배했던 쌀의 품종이 인디카종이 아니
라 자포니

카였다는 것이지요. (1만5천년전 세계 최고의 볍씨 소로리의 것은 언급되지 않는군요!)

아울러 그릇의 경우 중국 도기가운데 호남성에서 최근 발굴된 것이 1만년전으로 소금됨을
보여줍니다.

(시베리아 아무르 유역의 토기는 1만2천년전입니다)

The Origins of Pottery and Agriculture

New Delhi, Roli Books, 2002, 400 p., ISBN 81-7436-203-7.

The conventional view that the East has been behind the West until now will be completely reversed in this book at least in terms of the origins of pottery and agriculture.

==> 동양이 서양보다 문명적으로 뒤쳐져 있었다는 종래의 보수적인 견해는 적어도 그릇과 농경의 기원이러는 점에서는 이 책을 통해 명백하게 뒤집어졌다.

It should lead also to rediscovery of value of Eastern Civilization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which has been overlooked for a long time. Being based on a pluralistic view and carrying out comparative studies of the East and the West, this book tak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 이러한 점은 인류문명에 있어 오래동안 간과되어온 동방문명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함으로 인도

되어야 한다. 동양과 서양의 비교문명적 연구에 있어서 복수적 관점을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인류문명에 새로운 역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이 책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It is clear that the origins of pottery and agriculture in the East precede their origins in the West."

==> 그릇과 농경의 기원에 있어서 동양이 서양보다 앞선다는 것은 분명하다.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홍승희 (2005-08-22 02:11:05)

우리도 그렇게 세목별로 하나씩 우리 문명사를 증명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디씨역꺄 장꺄라 고람거사 박살뵈더니....

디씨역꺄에 고람거사라는 분이 저 솔본에게 웃기지도 않는 반박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씨역꺄에 가서 고람거사라는 분 반박을 무참히 꺄지요...
바로 디씨역꺄에 저 솔본의 글이 삭제되더군요..

두 가지 었습니다.

저 솔본이 제시한 한자어 我가 고대음가가 n|ha였고 (스타로스틴)
그래서 그 발음이 '나'였다는 것에 대해 "영문 발음기호로 nh가 ~eng인 것도 모르는 솔본의 이야기는 더 듣고 싶지 않다" 었습니다.

그리고 훈노가 순으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 "웃긴다. 훈을 순으로 할 때 알아뵈다" 이거 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두가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대어서 반박했습니다.

'nh'의 음가가 ~eng인 것은 포르투갈식 표현이고 뉴 링귀스틱스에서 nh는 N이다.

다만 n|h 표현은 |가 dental 표시이고 뒤의 h는 stoper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ha는 '나'(Na)가 맞다..

그리고 훈/순 병음은 러시아 타타르 학자의 논문을 인용해서 증명했지요..

만일 제 반박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재 반박을 했어야지요...
무턱대고 지워버립니까?

그게 디씨역꺄의 현재상황입니다.

장꺄라 고람거사가 디씨역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모르꺄으나
저하고 한번 불혀주시쵸...

저는 디씨역꺄이 뭐하는 곳인 지도 몰랐으니까요...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웅스(강운기) (2005-08-26 01:46:34)

에.. 솔본님의 글내용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님의 주장이 부자연스러웠던 기억은 한번도 없구요, 늘 재밌고, 유익하게 읽고 있습니다.

다만 디씨역갤이라고 하는 곳은 그 사이트 전체의 규칙이 바로 '사진게재'이므로 혹시 사진을 올리지 않고 글을 쓰셨다면, 이유불문하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곳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솔본 (2005-08-26 02:26:19)

그런거야?

한기식 (2005-08-26 03:12:48)

디씨 역갤에 저도 가봤는데 인품 버립니다. 하오체라나? ~~하오. ~~그렇소. 이런 말쓰고..

특히 웅스님 말씀처럼 꼭 아무사진(내용과 관계없는 사진이라도...)이라도 올려야 하는줄 압니다.

이상한 곳이 더라고요.

두눈 달린 정상인이 한쪽눈 만 있는 세계가면 병신 취급받는 그런곳 입니다.

딱 한번 가보고 아예 안갑니다. 카페 회원 님께 듣고 알았습니다.

한기식 (2005-08-26 03:17:41)

정~ 술본 님 붙고싶거든 한쪽 눈 안대하고 간다 생각하시고..

하오체쓰시고 아무사진이나 사진(유적 사진이면 더좋고..) 필히 올려 붙어 보십시오.

신시 (2005-08-26 10:42:51)

예전에 저도 다른 아이디로 고람거사와 얘기를 해본적은 있는데
단군조선의 설립연도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친구
만주와 한반도 등지에서 BC 2000년을 넘기는 청동기 유물들이
나온 사실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언론이나 윤내현 교수나 김성재 선생의 책에 소개된
고고학적 사실을 말해주니 윤교수님과 김성재 선생은 거론의
가치도 없는 사이비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해외유명 연구소에서도
의뢰를 한 결과이기도 하나 탄소동위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친척중에 누가 무슨 고고학 연구소에 있다고 그사람에게
물어보고 오겠다고 은근슬쩍 회피를 해버리던데 그 외에도 이 친구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싸잡아 무시해놓고 은근슬쩍 논점을 다른데로 돌리거나 아님 황설수설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식으로 도망가 버리는 수법을 씁니다.

아마도 글이 삭제 되지 않았다면 술본님의 반박에 그 친구는 틀림없이
그 인용하고 참조한 논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을 겁니다.

고람거사 옆에서 딸랑거리는 몇몇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심지어 어떤 애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까지도 우경을 하지 않았기에
오래전부터 우경을 시작한 쟁개들 보다 더 후진국이 맞다는 식으로 썰을 풀길래
어떤 사람이 고구려의 쟁기 유물을 반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소가 끌었음에 분명한 유물이었는데도 그 친구 고구려 사람들이
무식하게 등치가 커서 사람이 끈 쟁기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소가 끌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하면서요.

이런식으로 물고 늘어져 사람 지치게 만들고 화나게 해서 떠나보내는게
그네들 수법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박이라도 제대로된 반박만 수용하시고 단순한 태클이상이다 싶은
쓰레기글들은 그냥 무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디씨 역갤이란 곳이 그렇게 꽉 막힌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다양한 사관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다만 상대적으로 그네들의 목소리들이 큰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일단 고람거사라는 친구가 내놓는 자료들의 양이나 질들이 일반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라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쉽게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고 주위의 패거리 몇놈이서 고람거사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람거사의 목소리가 커 보이는것 입니다.

팔도유람 (2005-08-26 13:42:35)

위에 우경관계에 대해서....현재 교과서에서는 우경이 신라 지증왕때 처음 실시되었다는 표
현이 있는데
그거 7차 교과과정부터 바뀌었습니다....우경 자체는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고
단지 신라에서 전국적으로 우경이 퍼진 것이 지증왕때인 것으로요....
이렇게 관변사학단체에서도 확실히 얘기하는 걸 고람거사류 디씨역갤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

수메르어. 국어고어 문법범례 대조분석

수메르어. 국어고어 문법범례 대조분석[요약]

조철수-한국언어학회 /언어학 19호

/히브리대 아카드어전공

- 임금은 GAL.LU라고 쓰고 lugal로 발음한다. 갈은 크다는 것이고 루는 사람을 의미한다. 큰 사람이 곧 왕이라는 뜻

- 수메르어 꿈은 mamud인데 수메르어로 토씨에 해당하는 <~에>는 그 발음이 아/ 이/이다. <꿈에>는 곧 <ma-mud-a>가 된다.

발음나는 대로 음절에 맞추어 쓰는 용법이 우리와 같다.

- 수메르문자는 처음에는 표의문자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표음문자화 했다.(수메르어의 위대성)

- 서기전2335년 수메르를 장악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사르곤은 셈어를 사용하는 집안이었으며 그뜻은 ‘정당한 왕’이다. 사르곤은 북으로는 터키인 아나톨리아중심부까지 진격했고 지중해쪽으로는 무역도시 에블라(Ebla)를 장악했다. 북으로는 아시리아를 동쪽으로는 엘람과 마르하쉬를 장악.

- 수메르는 통치말년 약 5년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동서남북의 광활한지역을 차지했으며 명실공히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lugal ki-en-gir ki-uri)라고 불렸다.

- 키엔길은 수메르가 자신의 영토를 이르는 말로서 ‘도시의 주들이 모인 자리’ Ki-uri(키우리> 쿠리는 우리 땅(자리)라는 뜻이다.

-수메르어는 셈어도 인도어도 아니다. 현재 학자들사이에 공통된 의견은 아마도 알타이어계 통인듯하다. 수메르어는 그동안 터키어,핀란드어 헝가리어등과 많은 비교연구를 통해 그 친연성이 연구되었다.’

- 국내에서는 김상일(1987년)이 처음 국어와 수메르어간의 수사를 비교연구 시작했으며 ‘인류문명의 기원과 한’가나출판사/ 박기용(1994년)언어학적 측면에서 그 연관성을 시사했다 ‘국어의 토씨비교’

- 수메르어의 어디어디~에는 우리와 같이 e로 발음한다.

- ~naki 우리의 속격토씨~ 나기, 시골나기,

- 바빌론의 최고신 마르둑 ‘Marduk’은 수메르어로 amar-utu’이며 그 뜻은 송아지(amar) 태양신(Utu)를 밀한다.

- Nin e-a ku : 여주인(nin) 집(e) 에 (a) 들어온다(ku)

- Nin-e geme tag: 여주인(nin)~ 이(e) 여중(geme) 때린다(tag)

- e- a ku : 집(e)~에(a) 들어간다(ku)
- e-e-gub : 집(e)~에(e) 서있다 (gub)
- za-e e-a mu-ku : 당신(za)~이(e) 집(e)~에(a) 들어왔다(mu-ku)
- za-e dumu e-a mu-ku : 당신(za)~이(e) 아들(dumu) 들어왔다(mu-ku)

nin uru-še du-da : 여주인(nin)(이) 도시(uru)~로(se) 가(du)다(da)

lugal-e e. hul-le da : 임금(lugal)~이(e) 집(e)(을) 헐(hul)으(e)다(da)

- il-la <= (il-a) : 일어! / 일라라! / il-la-an (일어! 개)

명령형 어미 -어, -아(먹어! 죽어!)

- nu (누어) , nu-ī (뉘어), ba-nu (저기 눕다): i는 사역형 어미

- 수메르어의 하늘 (an)은 방향을 뜻할 때는 앞(前)을 의미하며 땅(ki)는 뒤(後) 그리고 가운데를 MURUB이라고 한다.

- 미완성어미 -e- : du(짓) /du-e(짓어) / hul(헐)/ hul-le (헐어)
dul (둘) / dul-le(둘러)

- 동사원형뒤에 /ede/를 붙여 진행형을 만든다.

- Du3-de3 (집을) 짓(는)데 / dab-be2-de3 : 잡(는)데, du-de3: 가대
Ku4-r-ede <들어오(는)데> : 노니다가, 주더니, 오는딘대...

- 수메르어 as는 처음, 유일할 뜻하는 아시.

결론/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비록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머나 양자의 문법을 비교해 보면 어느 다른 언어보다 그 유사성이 높다. 또한 단어의 쓰임새도 그렇다. 영웅신화도 닮았다. 종교, 미술등에도 녹아 있을 것.

-솔본-

* 송준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1-23 11:06)

홍승희 (2005-08-28 20:35:06)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도시를 의미하는 우루 혹은 우르는 당시 도시가 성 안(城內)을 의미했다고 볼 때 우리의 '울'과 닮았죠. 같은 울 안의 사람들은 '우리'이고, 저들 말에선 '우리'와 같은 말로 뭘 쓰는지 궁금하네요.

sumer (2005-08-28 23:24:21)

수메르어 단어비교(영어-수메르어-터키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we에 해당하는 수메르어는 Menden이라고 하는군요. en은 복수형 접미어 같습니다.

터키어로는 Men-d-en (en은 터키어에서 복수형 접미어)

<http://www.compmore.net/~tntr/sumerturkb.html>

<>

A ENGLISH – SUMERIAN – TURKISH DICTIONARY

Prepared by

Polat Kaya

(September 12, 1997)

[A to G inclusive]

In the list below, the English words are the intermediary words between the Sumerian and the Turkish words.

English Sumerian Turkish

_____ ... _____ ... _____

-ablative Ka-ta Kapu-tan, Kapu-dan

-accusative Ka-n-i kapu-n-u, Kapl-y-l

-dative Ka-na Kapu-y-a

-equative Ka-gim Kapu-kimi

-genetive Ka-na(k) Kapu-n-un

-innesive Ka-ta Kapu-da

3 Es üç

10 U, un on

Abundance He-Gal ... g>b bol

Accumulate dirig irk (toplamak) [ONT]

Adam Adapa Adam (atam)=my father; (homosapien) ataapa = father's father

Advice Gal-ga ...g>b Bil-ge

Air Lil ...l>y yil (yel)= wind

Ancestor Bil-ga Bil-ge (=knowledgable, experienced)

Anger mir ...m>k kiz-mak (=to get angry)

Ant marun ...m>k karîn-ca [ONT]

Arm Kar Kol, kar?

Ashes De-Dal ... d>k kül

Away from -ta -tan, -dan, -ten, -den (suffix)

Back Eger Eg~er (=saddle)

Back of head Arku arka (=back)

Band dib yip (=ip=string) [ONT]

Bank of river Gu ... g>k Kî-yî

Base Ur Uruk (=family, clan)

Be strong (to) kalag ... g>ng kaling (kalabalık, çok sürü; kalîn, kesif; çok, sayısız, sık, koyu) [ONT]

Be great Diri Diri (=alive with life, energetic)

Beaches of river Ki-A Kî-yî

Bead nunuz ... n>y yinçü (=inci= pearl) [ONT]

Beans Lu-ub Lobyā, Lobi (Uygur)

Bear Az ... z>y Ayî

Beard Sig Sak-al

Beat (to) Tud ... d>v döv

Beginning Sha-Har seher, tan (=morning)

Behind E-Gir geri

Belligerent Kur Kîr-an (=one who breaks)

Beloved Ki-Aga Aga (=Lord, elder brother, one who is respected and loved)

Bend (to) Gur Eg~ (=bend; Kîr = break)

Best Sag Sag~ (=unbroken, in best condition)

Bird Mus~en ... m>k Kus~ (notice the "kus~/mus~" saying in Turkish)

Bird usa^an kus^ (uçan)

Birdnest us^ub kus^+eb (kus^evi, yuva) [ONT]

Birth Gal Gö-bek (=navel, emblical chord)

Blacksmiths Simug-A ... s>t timur (=blacksmith); (temir= iron)

Blood mud ... m>k kan [ONT]

Blow (wind) (to) es^ es-mek [ONT]

Border zag ... z>y yaka (taraf, yan, civar) [ONT]

Border, limit mas^ ... m>k kas^ (kîyî, کنار) [ONT]

Breakthrough Gu-Gir Klir gir (=break and enter)

Breath Lil ... l>y yil (yel) (=wind)

Bright zal ... z>y yal-drîk, (yal-druk, parlak, süslü)

Bright, light zalag ... z>y yalîng (alev, yalçîn) [ONT]

Broker Dam-Kar Klr-an

Brother (older) Bulug-Gal Aga-bey; aka-uka (Ui.Tr)

Brother S~es~ (Ses) Kardas~

Build Du Dik (=build a house; sew a dress)

But Am Ama

Butter la-Nun Yag~

By the God Dingir-E Tengir için , Tengi için

Call Sa Ca-g~lr

Cast away (to) ku ko-y (birakmak, koymak, terketmek, atmak)

Catch (to) Gab Kap= to snatch

Cattle stable s^urum ... m>k sürüg (sürü) [ONT]

Champion Ur Er, yigit (= brave man)

Chanal garim arik (ark; irmek) [ONT]

City Uru, Ur Uruk (=family, clan)

City Sag-Uru Sag~ (=complete, whole);

Cleanse zalag ... z>y Yala (= to clean by licking)

Cloth Tug E-tek

Come Gen, Gin Gel

Command A-Aga Aga (buyuk kis^i) (=Lord, one who commands)

Conqueror Al-Tar Tarkan

Constable (police) Aga-Us Aga (=Lord); Us (=reason); koy agasi (=village master)

Country side Kur Klr

Country tir yir (yer, toprak, [ONT])

Crown Aga Aga (=Lord)

Crush (to) Gaz, Guz Ez

Crush gaz ez-mek [ONT]

Cry l-lu Agla

Cut (to) Has^ Kes-mek

Cut into pieces (to) kid2 kid-mak (kiymak, öldürmek)[ONT]

Cut up (to) Sil(a) 12,117 S^III (Tele. Tr)=it cuts

Cut, break tar yar-mak [ONT]

Dagger Giri-Ba-Da-Ra Gir-en (=piercing instrument)

Dark Ku-Kuga Kara (=black)

Darkness Ku-Ku (G) Kara

Dawn Sha-har Seher, Tan

Day U Gün, Kün

Day, time (in general) u4(d) kün (gün, güneş, gündüz) [ONT]

Daybreak, dawn dag ... g>ng tang (tan, sabah vakti) [ONT]

Dead, to die us² ...s^{>l} öl (ölmek) [ONT]

Decree A-Aga Aga sözü(=Lord's orders)

Deity Dingir Tengir, Tengere, Tengri, Tangara

Desert Kur Klr (=not fertile land); Kum (=sand)

Discernment umus[^] ... m>k ukus[^] (akil, anlayis[^]) [ONT]

Disperse, undo (to) bur ... r>z boz-mak, yikmak [ONT]

Distance Us Az, uz (az gittik uz gittik gibi);

District nanga ... n>y yanga (yan, kanat)

Divorce Tag Dag~—ll (=separate, disperse)

Dog Lik, Ur bōr, bōrū, it; kurt (=wolf)

Door gis[^]ig es[^]ik (kapi =outside) [ONT]

Drill (to) bur 411,104 Burgu (=drill)

Drive (to) Hus 565,58 Kos[^]u (Os. Tr)=wagon, coach ???

Elders Ab-ba Aba, apa

Enemy taga yagi (dus[^]man) [ONT]

Energetic dirig irig, diri [ONT]

Enourmous Diri iri

Equipment(for boat) Su-Kara su (=water); araç (=equipment)

Estate E Ev (=house, estate)

Esteem highly lg Kal iyi, iygi (= good); Kal (=stay)

Evening Usan Aks^am

Excellent Diri Diri (=alive with life, energetic)

Excessive (extra) Dirig-Dirig Diri diri

Face Sag-ki Sak-kal (=beard)

False Lul-La Yal-an (=lie, deception)

Far mountain land Ish-Kur Dîsh kîr (=outside lands)

Fat la Yag~

Father Ad-da, A-A Ata, Atta

Feet Gir Gir (=enter); yürü (=walk)

Fill (to) du3 t..... o-l-mak (dolmak) [ONT]

Find (to) Bu-Bu-Lu Bul

Fine flower Zid-Gu ... z>ç Çiçek

Finger u Ui (=sleeve)

Fire Ag, Bil, Gira, Izi Kôz (=non flaming fire); Ag~ (ak=color of glowing fire, white)

Flashing eyes Igi-Gun-Gun Gün (=Sun, Sun light, day light)

Flesh Uzu Kuzu (=Lamb)

Follow, accompany tag, tuku7 daga- (izlemek, es^lik etmek, taklit etmek, emrinde olmak) [ONT]

Foot Gir, Giri Gir (=enter)

Foot mulu ... m>k kôl (ayak) [ONT]

Foothill Hursag Klrsal (=unproductive land)

For Es İçin

Ford Bala Balaban (=large bodied)

Foundation us^ ... s^>l ul (duvar temeli) [ONT]

Free (to)? gid id (salmak, göndermek, serbest bırakmak, geçirmek, ular^tirmek) [ONT]

Front Gaba Gabag~ (=Front)

Fruit Gurud Gurud (=dried yogurt balls)

Garden , field kiri6 kîr (kîr, başîk, dag~, açık yer) [ONT]

Garden Kiri kir, yer (toprak) =dirt, soil

Garment Tug e-tek (=lower part of woman's dress)

Gate Ka Kapu, kapî

Gateway of the Gods Ka-Dingir Tengir Kaplsl, Tengri Kaplsl

Gather Ur Ur (=a round growth)

Girl (young) Ki-sikil-Tur Klz

Give (to) sum sun- (sunmak, uzatmak) [ONT]

Glanzen?, hell zalag ... g>ng yaling (alev: yalçin, sarp,

Glazed, bright zal ... z>y yal (yalov, alev) [ONT]

Gnaw (to) Tukur Tükür (=to spit)

Go Gin ... n>t Git

God – Moon Sin? Ay Tengri (the word SIN is in Akkadian)

God – Sun Utu Kün Tengri

God Dingir Tengir, Tengere, Tangara, Tengri

God of Air and Earth En-Lil Yil (=Wind, air)

God of Heaven An Tan (=Sky); Tengri, Tanrı (=Sky God)

god dingir tingir, tengri, tanrı

Goddess of Dreams Nina Ninni (=lullaby)

Goldsmith kudim ... d>y kuyumcu

Good sag sag (sag~, iyi, sag~lam) [ONT]

Grab urugal kurgan (kurgan, kale, mezar)[ONT]

Grasp (to) Kap Kap (=pot, utensil that holds something in); kap-mak = to snatch and hold

Grass ulia ölg (sulak yer, bataklık; ot, çayır; çimenlik; otlak) [ONT]

Great (to be) Gu-ul Ulu ol-mak

Great Gal Ulu =Great

Ground Ur Yer;

Grow (to make) Bulug Bulug~ (=to grow ripe; bulug~ =puberty; to reach puberty; to ripen)

Guard (to) Kurum, Uru Koru-mak

A ENGLISH – SUMERIAN – TURKISH DICTIONARY

Prepared by

Polat Kaya

(September 12, 1997)

[H to S inclusive]

English Sumerian Turkish

_____ ... _____ ... _____

Hair Suhur, sig Sakal (=beard; Kîl)

Half s[^]urim ... s>y yarîm (=bir s[^]eyin yarîsî) [ONT]

Hand silig elig (=el) [ONT]

Hand Su, gis El, ked, kesi ?

Happiness Sag-Ga Sag~ kal (=stay healthy and alive)

He is/she is E-Ne-Am o-dur

He/she E-Ne an, o

Head Rishu, Sa, Sag Bash; sag-ol (=thank you, stay alive)

Healthy(be) Sag Sag~

Hear (to) Gis-Tuku is[^]it

Heart Sa, Ur ür-ek (yürek)

Heat, hot izim ... m>k isig (sicak, sicaklik) [ONT]

Heaven An Tan (=sky)

Heaven Anna Ana (=mother)

Heaven Dingir Tengir, Tengri, Tengere (=the most omnipotent god, God of all gods)

Heavens Shamaini Shaman, Kam=Diviner, communicator with Heavens

Heavy Dugud Aglr

Height Gur Gür (= abundant, dense, high rank);

Help dirra yari (=yardim) [ONT]

Herdsmen Sipad Coban

Hero Mes, Ur Er

Hers Enene AnIn, onun

High as sky Ul Ulu

High Dingir Tengir (=Highest as God)

High Gur Gur (=high rank)

Highland Kur Klr (dagli tasli yer) = hilli, stony unproductive land, countryside

Hill country Kur Klr, Klrac (= arid land, waste land)

Hinzufügen?? tag tak- (takmak, bağ~lanmak) [ONT]

His/her Enene AnIn, onun

Holy Kug Kut-sal; kutlu (=blessed) Honey Lal l>b Bal

Hostile judgement Di-Kur Klran dil (=language that hurts)

Hostile Kur Klr-an (=one who breaks)

Hot Kum Kum=sand

House E Ev (eb)

How long? En-She ne-ce?

How? A-na Ne?, Ne-ce?, na-sll?

Huge Diri iri (=huge); diri (=very alive)

Humid Duru Duru su (=clean, pure water)

Hunter Ur Er (=man, hero, hunter)

Hurry (to) Ul Ul-as^ (=come quickly)

I Ma-a Men

Ill, hurt, pain gig ig (=hastalik, hasta) [ONT]

Inheritance Hala Hala (=father's sister)

Insect zibin cibin (sinek)

Intestine Ba, bel=inside Bel (bil = waist)

Judge (to) Di-Du De, di (=to say, to speak, to judge)

Just as Gim Kimi

King alim ... m>k ilig (hükümdar, kîral) [ONT]

Knife Giri Gir-en (=a piercing object, cutter)

Know how Zu Us (=experience, wisdom)

Know Zu Us (=reason)

Knowledge Zu Us (=intelligence, intellect)

Lady (heavenly) Nin-Ana-Si-Anna Tan ana

Lady (palace) s[^]is[^], S[^]es[^] is[^]i (=princes; es~= spouse) [ONT]

Lady Nin Ha-nlm, nine

Lady of Air Nin-Lil Yelana

Land kur kuru (kara, toprak, yer) [ONT]

Large (to) Gu-UI Ulu ol

Large Gal Ulu

Large, huge dirig irig=iri [ONT]

Lay out nad ... n>y yad-mak (yayak, sermek [ONT])

Leader l-Ku, Ku, Sa Hakan, Kun, Kan, Han

Leben?? tin tin (ruh, nefes, soluk) [ONT]

Leg Gir Yürü (=walk)

Liar Lu-Lul Yalanci

Lick (to) Eme em (emmek =to suckle)

Light Bir, gisnu Is[^]ln,

Light nurum ... n>y nur (yaruk, parlak) = light [ONT]

Lighted (be) Zal(ag) 393,5 Alav (alev)=flame

Like Gim Kimi

Limbs Ur Ur (=External growth on body)

Limitlessness Ab-Zu Son-suz

Lion Aru, Ur Arslan

Listen Gis-Tuku is^it

Little sig 592,10/19 -cik, cek (diminutive suffix)

Liver Ur Bag~-lr, cig~er

Long for (to) As^ 2 339,8 As^ ermek (=longing in pregnancy)

Make (to) ki ki-l (kilmek, yapmak) [ONT]

Man (my) mulumu ... m>k kul-um (köle-m) [ONT]

Man, manly Er, ir, ur 50,7 Er

Market Kar Kâr (=profit)

Meat Uzu Kuzu (= lamb)

Fate me men, men menem (=I am my fate)

Merchant Dam-Kar Kâr adamı (= profit man)

Metal t..... ibira temir (demir) [ONT]

Mighty Agal Ulug (ulu =grand, mighty)

Mighty Kalag Kalag~ (=wall); wall of dung bricks set up for drying;
military barracks

Mind Us, Us^ 4 536,26 Us (= intelligence, mind)

Mine Ma-E, Mana Menim

Minus La ... l>m -ma (=suffix for negative expression)

Misery dulum yulug (kurban, fidyе) [ONT]

Mother Ama Ana; emcik (=nipple)
 Mother um ... m>k ög (anne) [ONT]
 Much S^ug Çok
 My -mu benim, -m (in suffix form)
 Name, fame mu ... m>k kü (ün, s~an) [ONT]
 Named (be) Na 97,4 Nam (old Tr) =name ?
 Narrow Sig Sıkl
 Nibble Tukur Tükür (=spit)
 Nice Sag Sag~ (=health); sag~lam (=unbroken)
 Nose Bun, Kiri, Kur Burun
 Oil la Yag
 Old man Ab-ba Apa, baba
 Out of, from -Ta (suffix) -tan, -dan (suffix)
 Ox gud ud (=sığır, öküz, boga) [ONT]
 Perfume iduga yidik, sidik (pis kokan) [ONT]
 Path, trail, road sulu ... s>y yol [ONT]
 Patrimony E-Ad-Da Ata evi (=parent's home)
 Peak Pa 295,11 Bas^ (=head); tepe (=hill)
 Peck (with a beak) Ka-Ka-Durud Gaga (=beak)
 Penis Gis Sik (Note: word reversal)
 People, folk un kün (elgün, halk) [ONT]

Pierce Zi....Kes Kes (=cut)

Pleasant (to make) Sag Sag ol (=stay alive; thank you)

Pleasure Sag-Ga Sag Kal (=stay alive)

Ploughing Ur-Ru Tarla (=field)

Pluck Til-Til Yol-mak

Poem, song sir s~iir, türkü [ONT]

Point Kiri, Kur Burun (=nose, peninsula)

Pomegranate Nurma Nar

Pour out (to) dug tök (dökmek) [ONT]

Power (divine) Me men (kader);

Power (to have) Kalag Kala (=Fort; Kalag=wall)

Prayer Ziskur Zikir (=pray)

Prefer Sag-Kal Sag-kal=wishing you stay alive

Priest Saga Ak Sakal (=wise man, elderman)

Priestess Su-Kal Ak Sakal (=wise man, elderman)

Prime, good sig ... s>y yig (yeg~= iyi) [ONT]

Prophet Nabu Nebi

Protect (to) Dul Dul (=widow)

Protect (to) uru koru-mak

Protect, shelter kur koru- (korumak) [ONT]

Push gid it-mek [ONT]

Rain (to) Zub Çip Çip (Ui.Tr)=Noise made by dripping water

Rain s~eg ... s>y yag-mur [ONT]

Raise oneself Zig 84,45 Çık-mak (=to go out or up)

Ram (Animal) alim ... m>k elik (geyik, elik, kiyik; ceylan; dag~ keçisi, yaban keçisi) [ONT]

Raven (the) Kur-Su-Na Karga (=crow); suna (=duck)

Reap (to) gur10 or- (=kesmek, biçmek) [ONT]

Reap (to), mow gur10 orak (=sickle); [ONT]

Reaping gurun6 orum (=kesim) [ONT]

Reeds Gi Cil (hasir = a water plant used for weaving)

Reeds Gi i (= ağaç, ekin, bitki, orman) [ONT]

Rest (to) nad3 ... n>y yat-mak; yatak [ONT]

Right side zag sag~ (sag~ taraf)

Ripen (to) Bulug Bulug (=to reach puberty age)

Run quickly Kas-Kar Kos~ (=run); kos~ kos~ (=run quickly)

Sanctuary E-an-na Anaevi (=mother's house)

Sandstorm U-Lu Ulu yel (=strong wind)

Search for B-Bu-Lu Bul

Seat dur dur-ma yeri

Seat dur tör (sedir, oturma yeri) [ONT]

Seed (grain) Numun Tohum

Seed Nummun Su Meni suyu (=semen, human seed)

Semen A Meni

Send back (to) Ge Ge-ri (=towards back)

Sentence Di De-mek (=to speak out)

Sesam oil dig yag (=oil, fat) [ONT]

Set foot on (to) Giri-Si Giris^ (=entrance)

Shadow gis^ge ... s^>l gölge [ONT]

Shallow sig sig~ (derin olmaya)

She Ananene Hanîm, anaana (=Lady Grandmother)

She Ene-E-ne An, o

Sheep udu kon~ (koyun)

Shepherd sipad çopan [ONT]

Shine (to) zal ... z>y yal-dra (az îs~îmak) [ONT]

Shine (to) Zal(ag) 393,5 Alav (alev)=flame

Sink (to) Su-Su Su=water

Six as^s^a ... s^>l alti [ONT]

Skin Bar, kus Deri; örtü=cover

Sky An Tañ, Gök

Sky God Anu Tangara, Tengere, Tengir, Tengri

Slaughter Gaz Bo-gaz-la; Kes (=cut)

Sleep (to) U , Tu Uyu

Sleep u u (uyku) [ONT]

Sleep udi ... d>y udi-mak (uyumak; ud=uyku)[ONT]

Small child sag ... s > ç or s^ > ç çag~a (yeni dog~mus^, daha tÿyÿ bitmemis^, [ONT])

Small sig 592,10/19 -cik, cek (diminutive suffix)

Smear Ta-Sar Sÿr (=smear over a surface) sar (=wrap, surround, encircle, bandage)

Sour lzi 172,159 Eks^i

Speak Gu-de, di-Di de, di (=speak)

Speech Inim Inle-mek (=to moan)

Speed Kas-Kas Kos~ Kos~(=hurry); kac (=run away)

Speed kas^4 kaç-mak (kos^mak) [ONT]

Split (to) Sil(a) 12,117 S^ilî (Tele. Tr)=it cuts

Split Dar yar-mak [ONT]

Spring t..... ul2 yul (kaynak, pınar, su gözÿ, çay) [ONT]

Spring tul bul-ak (su kaynag~î, gözÿ)

Stall hum kom (ag~il, ahîr) [ONT]

Star Mul Ulduz, yîldîz

Star Zal(ag) 393,5 Yalduz: (S^ol-pan (Kr.Tr)=morning star, Venus)

Stay (to) mal ... m>k kal-mak [ONT]

Stinking gid sidik (= urine)

Stinking gid id/yid (koku, misk) [ONT]

Storm Lil Yel, yil (=wind), wind storm

Storm ud kad (kar fırtınası, bora, tipi) [ONT]

Strong (to be) Kalag Kalag (=wall); Kala (=Fort)

Submerged (to be) Gir-Gir Gir-mis~entered

Suffer a mishap Tag-Tag Deg-mek (=To touch); tak tak vurmak, zorlu deg-mek (=hit to hurt)

Summit pa Bas^(=head), tepe (=hill); ka-pak(=cover)

Sun kid2 ... d>n kün (gün, güneş, gündüz) [ONT]

Sun, day, time ud, dKIN kün (kün, güneş, gündüz) [ONT]

Supplies kish kis~lak (=winter quarters)

Surpass Diri Diri (=very alive); Gür-büz (=sturdy, robust, healthy)

Swear Tu Tu (tükürmek) =spit used as insult

A ENGLISH – SUMERIAN – TURKISH DICTIONARY

Prepared by

Polat Kaya

(September 12, 1997)

[T to Z inclusive]

English Sumerian Turkish

_____ ... _____ ... _____

Tabou niggig ... n>y yig- (=engel olmak) [ONT]

Tail Kun Kuy-ruk

Taste Su-Su Su (=water)

Tears (crying) Biz ... b>g Göz (=eye)

Ten (10) u on (sayi "on")

Textile Gada, Buz Boz, bez; boz (= gray colour of textile)

Their -ne-ne Onlarîn, -in, -în (suffix form)

Thick (to be) Gur Gür (=dense, thick, robust)

Thight Sig Sîkî

Thing nig ... g>ng neng (nesne, s^ey, mal, es^ya) [ONT]

Throw (to) ku ko-y (birakmak, koymak, terketmek, atmak)

Time ud öd (zaman, mevsim, hava) [ONT]

To be extra Dirig Diri olmak, canlı olmak

To found, establish ur kur (tertip etmek, düzenlemek, hazırlamak, tasarlamak) [ONT]

To guard uru koru-mak

To hit sag~ çak (çakmak, vurmak) [ONT]

To sweep away ur kürü- (kürek gibi bir s^eyle atmak)

to be Gal ... g>b bol, ol

to speak di di, de (demek)

Tongue E-Me em (=suckle); meme (=breast)

Torn dirig yirik , yarik (yirtik) [ONT]

Toss away (to) ku ko-y (birakmak, koymak, terketmek, atmak)

Touch Tag Deg~

Touch upon (to) te(ga) teg~- (deg~mek, dokunmak) [ONT]

Trail Sila iz, yol (keci yolu) =goat's path

Tree Gis Agaç

Troops Eren Eren (Erler, askerler)=troops

Truth, upright, just zi(d) çin (gerçek, gerçeklik, dog~ru) [ONT]

Turban Aga Aga (=Lord)

Two imma ... m>k ikki (iki) [ONT]

Uncle Dod ... d>y Dayî (=mother's brother)

Underground fresh water Ab-zu Su (sub, suv =Water) (5)

Uplands Kur-sa Klr-lar

Urine kas^ kas^-an-mak (atin, buyukbas^ hayvanlarin is^emesi) [ONT]

Utensils kabkagag kapkacak (kitchen utensils) [ONT]

Vast Gal Ulu, Genis^

Verdict (to render a) Di-Til Di, De =To speak; Til (dil)=tongue,

Vessel Bur Bur-mak (=to turn); buruk (=turned, rotated); burgu (=drill)

Vigorous Kalag Kala (=Fortified, well protected)

Village E-Duru Ev=house; Duran (=stays put, immobile); duran ev = immobile house

Violence Erim Er (=man, soldier, hero)

Virgin Ki-sikil-Tur Kîz

Vizier Sukkalmah Ak Sakal= elderman, wiseman

Washing tu5 ... t>y yu (yikamak) [ONT]

Waste land Su Sulu yer(batak)=waste land

We Menden Men-d-en (en is a plurality suffix in Turkish); miz, biz

What is it? A-Na-Am Nemene (Azeri)

Whatsoever nig ... g>ng neng (nesne, s^ey, mal, es^ya) [ONT]

Wheat ziz ... z>ç çeç (teç, samanından ayrılmış^ tahıl yığını) [ONT]

Who Ki Kim

Willow gis~kim ... g>y yîlgîn (îlgîn ağacı) [ONT]

Wind Lil ... l>y Yil (yel)

Wood, tree gis~ ... g>y yis~ (agac, orman, dag) [ONT]

Wooden house Barag Baraka

Wool, body hair sig ... g>ng yüng (yün, yün sümeg~i) [ONT]

Work umus^ yumus^ (hizmet, vazife, is^) [ONT]

Work us^ is^

Workmen Erin-E Eren (=men)

Write Sar Sür (old Turkish); yaz

Written document Petka Bitke

You Menzen Sen, Sin

NOTES

1. According to the observations of Prof. Dr. Osman Nedim Tuna, the following sound transformations take place between Sumerian and Turkish:

a. The consonant D, when at the beginning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Y or drops out altogether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dar/yar (yarmak); dip/yip (ip); dig/yag (yag~); dir/yir (yirmek); dirig/irig (sert, kaba, has^in, gayretli, iri, kalin).

b. The consonant G, when at the beginning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Y or drops out altogether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gamar/agir (ag~îr); garim/ar(î)k (irmek, ark, germeç, kas^, kanal); gaz/ez (ezmek); gi/i (ag~aç, ekin, bitki, orman); gid/id- (salmak, göndermek, serbest bırakmak); gig/ig (hastalık, hasta); gis^/yîs^ (orman, dag~, ag~aç, çalî,); gis^ig/es^ik (kapî); gud/ud (ox = sîgîr, öküz)

c. The consonant M, when at the beginning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K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mal/kal (kalmak); mulu/kul (kul, köle); mus^en/kus^.

d. The consonant N, when at the beginning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Y or drops out altogether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nad9/yad- (yaymak, dös^emek, sermek; Note: among dialects of Turkish d>y translation is common); nanga/yanga (yan, taraf, îrmagîn bir yanî); niggig/yîg- (bir s^eye engel olmak); nigin/yîgîn (yîg~în, kume, yig~îlmîs^); nurum/yaruk (îs^îk, aydınlık, parlak).

e. The consonant S, when at the beginning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Y or drops out altogether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sig/yig (yeg~, iyi); sig/yüng (yün, yün sümeg~i); sis^,s^is^, s^es^/ is^i (princes, lady); s^urim/yarîm (yarîm, bir s^eyin yarîsî); zag, sag/yaka (taraf, yan, cîvar); zal/yal (yalînmak, alevlenmek).

f. The consonant S[^], when at the beginning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Ç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sag/çak (çakmak, vurmak); sipad/çopan (koy buyugunun yardımcrısrı, gizir, çoban); s[^]ab/çap (vurmak, çaptırırnak).

g. The vowel U, when at the beginning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K plus a vowel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ud/kün (gün, gündüz, güneş[^]); udu/kong (koyun); umag/kömek (gömek, çamurlu bataklık yer); ur/kur (kurmak, düzenlemek, hazırlamak); urugan/kurgan (kurgan, mezar, kale); uru/koru (korumak).

h. The consonant D following the first vowel of a Sumerian word, stays as D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adakur/adak (ayak, içki kadehi, çanak, kase); gid/id (koku, misk); gud/ud (sığır, öküz); ud/od (zaman, vakit, mevsim, hava); udi/udi- (udimek, uyumak); nad/yad (yaymak, döşemek, sermek).

i. The consonant M following the first vowel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K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amas[^]/agıl (agıl, koyun yatağı, koyun pıslığı); geme/eke (abla); imma/ikki (iki); umus[^]/ukus[^] (akıl, anlayış[^]).

j. The consonant R following the first vowel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Z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bur/boz (bozmak, yıkmak); har/kaz (kazmak); mir/kız- (izmek); sar/yaz- (yazmak, s[^]as[^]mak, çözmek, yanılmak); ur/öz (can, ruh, gönül).

k. The consonant S[^] following a vowel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L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amas[^]/agıl (agıl, koyun yatağı); as[^]s[^]a/altı; gis[^]ge/kölige (gölge); us[^]/ul (duvar temeli); us[^]2/öl- (ölmek)

l. The consonant D at the end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N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dugud/yogun (kalın, yogun); kid2/kün (gün, güneş[^], gündüz); sipad/çopan (çoban).

m. "ae" at the end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an"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mae/men; zae/sen; s[^]ulpae/çolpan (Çoban yıldızı); ulia/öleng (sulak yer, bataklık, ot, çayır, çimenlik).

n. "g" at the end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ng"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as[^]a(g)/alang (alan, düz, açık yer); dag/tang (tan, sabah vakti); nig/neng (nesne, s[^]ey, es[^]ya, mal) m. "m" at the end of a Sumerian word, changes to "k" in becoming a Turkish word. Examples in Sumerian/Turkish are: alim/elik (geyik, elik, kiyik); alim/ilig (hükümdar, kral); izim/isig (sıcak, sıcaklık).

2. For the English – Sumerian dictionary, sources by Adapa and Ott Kostner as given below in References ESD and SSMM below were used.

3. In this list of Sumerian and Turkish correspondence words, I went through a large number of words in the referenced dictionaries and marked those Sumerian words that I believe are related to or are direct correspondence to the word or words shown in the Turkish column.

4. Some of the correspondences that I located were also given in Dr. Osman Nedim Tuna's book, so in the list above, I marked them with [ONT].

5. In Sumerian writing the word "abzu" is in fact written in the form of "zuab". Why is it read as "abzu" has no bases for its rendition as "abzu". If it was read as "zuab" as written in Sumerian, it would have a direct correspondence with the Turkish "sub, suc, su" meaning water, fresh water.

REFERENCES

ONT Prof. Dr. Osman Nedim Tuna, "Sümer ve Türk Dillerinin Tarihi İlgisi ile Türk Dilinin Yası Meselesi",

..... Atatürk Kültür, Dil ve Tarih Yüksek Kurumu,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 561, Ankara, 1990.

ESD Adapa, "English – Sumerian Dictionary", Twin Rivers Rising Homepage, Internet, 1996.

SSMM Ott Kostner, "Some Sumerian Morphemes and Modern U-A Words", ott@zzz.ee (Ott Kostner), 1996.